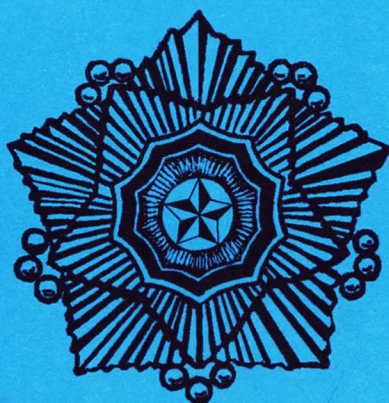


조선문학



1

주체103(2014)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3(2014)년 제1호

(루계 제795호)

《전당, 전군, 전민이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단
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김 정 일

차 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노래)	(4)
조선의 새해(시)	김 석 주(5)
새해의 해돋이(시)	한 원 희(6)
새해의 첫 해빛을 안고(시)	문 동 식(6)
하얀 눈 뽕은 꽃(시)	윤 희(7)
위대한 김정은시대 작가의 최대의 사명(론설)	박 춘 택(8)
아, 그 존함(시)	류 민 호(11)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12)
권선길에 대한 생각	최 윤 철(12)
단편소설 들꽃의 서정	김 하 늘(13)
주체문학의 대강	(22)
새해의 환희(혁명일화)	(22)
약동하며 솟구치는 내 조국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자	김 영 희(23)
새해 결의 당의 의도에 맞는 작품을	주 명 옥(23)
신들매를 든든히 조이고	리 준 호(24)
높은 실력으로 문학운동을 선도하겠다	권 선 철(25)
우리는 백두산혈통밖에 모른다(시)	류 동 호(26)
신념의 노래(시)	박 경 심(27)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리라(시)	장 명 길(27)
원수벌의 서정으로 총만된 불패의 《전함》에 대한 시형상(평론)	김 순 립(29)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며
강성국가전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것입
니다.》

김 정 은

단편
소설

하모니카 림 봉 철(33)

우리 분조원들 변 창 룰(48)

초 석 (실화문학) 리 룡 운(60)

수 대동강의 새 노래 백 성 근(72)

필 식지 않는 열풍 박 경 철(76)

◇ 시 ◇

1월이여 (시초) 함 영 근(46)

탄부의 행복 박 상 민(59)

바다! 사랑의 바다 권 오 준(28)

사랑의 절정우에서 황 명 성(74)

탄전이여 앞으로! 홍 민 식(74)

그들은 가슴에 손을 얹는다 김 정 삼(75)

후날! 먼 후날에도 리 성 애(71)

어서 가고싶어 앞서 가고싶어 김 충 기(77)

새해의 첫걸음 리 영 일(79)

열정, 노력, 언어형상의 능수(소개) 장 원 기(78)

군량골(전설) 옥 성 일(80)

표지2면: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노래)

3면: 《조국과 나》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서정적으로 밝게 (♩=72)

작사 집체, 작곡 황진영

mp G B7 Em C Bm Dsus4 D

1. 그 대 정 답 고 눈 부 - 신 자 태

G Bm7 Em C A7/C# D D7

우 리 맘 속 에 어 머 니 로 새 - 졌 - 네 당 기

mf G Em Am Dsus4 D

여 - 그 대 는 우 리 의 희 망 아 름 다 운 우 리 의 미 래 그 대

f G Em Am A9 D G

준 생 을 그 품 에 바 처 그 대 만 을 사 랑 하 리 라 당 기 여

2. 그대 불갈고 즐기찬 열정

펼럭임소린 나래퍼는 조국의 노래

당기여 그대는 우리 고운 꿈 만발하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대 뜻에 참되리라

당기여

3. 우린 민노라 오직 그대를

세월 끝까지 눈비바람 막아줄 그대

당기여 그대는 우리 뭉친 힘 빛발치는 우리의 승리

영원불멸할 그대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

당기여

조선의 새해

김 석 주

하늘은 끝없이 맑고 푸르다
눈덮인 강산은 눈부시다
밝아오는 새해를 향해
두팔을 한껏 벌리고 웨치고싶어라
오, 희망찬 새해여 하고

새해...
이해에는
또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
어떤 기쁨 어떤 행복 어떤 영광이
가슴벅차게 안겨질것이나

지난 한해는 실로 벅찬 해였다
날에 날마다
아름벌게 안아본 기쁨과 행복
눈시울 후더워오는구나
우러러 큰절 드리고싶은 원수님 생각에

지난 온 한해
천만군민의 소원과 꿈을 다 안으시고
하실 일 그리도 많아
가실 길 그리도 멀어
만나실 사람들 그리도 많으시여

새해의 숫눈길을 헤치며 떠나신 길로부터
비바람 찬바람 다 맞으시며 온 한해
어느 하루도 쉽없이 찾으신 곳
그 초소 그 공장 그 건설장을 꼽으면
1년 365일이 되지 않느냐

내 알던 고장 모르던 고장
내 가본 곳 가보지 못한 곳
원수님 사랑속에 황홀하게 펼쳐졌으니
다 찾아가 보고싶구나
온 나라 방방곡곡 그 모든 고장들을

온갖 심혈을 다 바쳐 가꾸신 산과 들

다심한 마음이 어린 거리와 마을들
애국헌신의 그 자욱자욱을 새기면
강성부흥하며 눈부시게 전변하는
오늘의 조국의 지도가 되지 않느냐

해빛같은 사랑의 미소를 지으시며
자애로운 품에 안고 정을 나누실 때
울며 웃으며 목메여 흐느끼며
그이를 우러러 터치던 군민의 환호성
그칠줄 모르던 걱정의 한해여

우리의 한해는 그렇듯 환희롭고
우리의 새해는 승리의 신심에 넘치거니
이 새해에는
그 어떤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있고
조국은 얼마나 문명하고 아름다와질것이라

우리 미처 소원하지 못한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것
그런것마저 기적같이 이루어주시려
헌신의 길 이어가실
원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군민의 마음

우리에겐 원수님이 계신다!
이것은 조국이 무궁번영한다는것
이것은 인민이 길이 행복하다는것
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있다는것

결사옹위의 맹세로 불리는 새해
드리는 축원 그지없이 순결하고 열렬한 새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여
언제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려니
새해에 안녕하시고 행복하시라!

조선의 새해는 축원의 인사로 시작되여라



새해의 해돋이

한 원 희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에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림처럼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한없는 축복안고 내려와 쌓인듯
흰눈 복눈이 은빛세계를 펼친 이 강산에
새해의 해돋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눈부십니까
떠오릅니다 붉은 해님이
빙글빙글 웃으며 밝게밝게 웃으며
억만가닥 억만빛발을 뿌리며

얼마나 힘차고 억센 기상입니까
얼마나 광휘롭고 슬기롭습니까
쫓아오릅니다 우리의 해님이
가슴벅찬 포부와 꿈을 안겨주며
또 한해 참된 삶의 기쁨을 안겨주며

끝없는 환희와 걱정이
바다처럼 파도처럼 설레이며 솟구칩니다
이해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한뼘씩 자라고
사람도 산천도 한껏 젊어지리

어제날 바람세차 풀도 뿌리 못 내리던 세포등판이
락원의 땅으로 전변된것처럼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안고
온 세상에 소리치며 솟아오른 마식령처럼
이해에도 꿈같이 일떠서리라
은하과학자거리처럼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하루도 쉬임없이 인민을 찾으시며
건설의 대전성기를 펼치시던 지난해처럼
우리의 원수님 안아오시리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찬란히 꽃피워
이 한해를 십년맛잡이로 빛내이시리

아, 해돋이 새해의 해돋이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이 어리어
백가지 천가지 아름다움을 다 안은 해돋이
이해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뜻깊은 날과 날들을 다 펼치는 해돋이

보입니다 해빛속에 보여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따라
붉은기 높이 폭풍헤쳐 총진군해갈
우리 인민의 도도한 흐름
미제와 괴뢰역적들의 반통일책동 물리치고
기어이 앞당겨올 조국통일의 새날이

승리의 신심 넘칩니다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칠
백두산대국의 기상이 나래칩니다
우리 원수님 받들어올리신
2014년 새해의 해돋이

온 세상 가득채우는 해빛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미소같고
떠오르는 태양은 원수님의 모습 같아서
우리러 우리러 감격을 터치는
선군조선의 해돋이입니다

새해의 첫 해빛을 안고

문 동 식

눈부십니다
새해의 첫 아침 해빛은
인민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우리 원수님의 축복의 빛발입니다

그이께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다 안으시고
해빛처럼 빛나는 승리의 진군길
또 한해
우리앞에 광활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찬란한 해빛 가슴에 안으니
내 마음속에 봄빛처럼 흘러듭니다
새집들이한 가정을 찾으시어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고
화목과 더큰 행복이 있기를 축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음성이

자욱자욱 위훈으로 이끄시는 뜨거운 사랑
오리오리 깃들어 뜨거운 해빛
그것은 우리 원수님
세계에 더 높이 펼쳐가실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의 백승의 빛발입니다

사회주의무릉도원에 안겨 인민이 누려갈
만복이 실려있는 은혜의 해빛에
새해의 벽두건만 나는 벌써
환호성 진감하는 승리봉에 올라선듯

1월의 해빛과 더불어
365일 온 한해를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를
재부의 보물고로 력사에 빛내시려
광휘로운 태양의 해빛 사랑과 은정을
인민에게 베푸시는 김정원수님

새해의 이 아침
태양의 나라 나의 조국에
이 한몫 다 바칠 심장 불태우며
아, 나는 충정의 발자국 새겨잡니다
해빛넘치는 첫 진군길에

척척척...
원수님의 발걸음에 발맞춰 나아갑니다
더 크게 더 높이!

하얀 눈 붉은 꽃

윤 희

대원수님들 계시는
만수대언덕에
순결의 세계를 펼치며
눈이 내리네 흰눈이 내리네

하얀 눈 내리는 계단을
조용히 밟으며
사람들 오르네
가슴마다 붉은 꽃 영생축원의 꽃송이 안고

사람들 삼가 드리네
대원수님들 우러러 삼가 우러러
하얀 대돌우에
붉은 꽃송이 영생축원의 꽃송이

하얀 대돌우엔
붉디붉은 꽃송이 꽃송이
꽃송이를 포근히 감싸안은듯
만수대언덕은 하얀 눈세계

돌우에 꽃을 피우는
그 정성 사람들은 보았어도
눈우에 꽃을 피우는
그 의리 세월은 보았으나

혁명은 준엄하여
대원수님들의 한평생은

눈보라강행군의 한평생
설령에 붉은기를 날려오신 한평생

이 땅에 내리는 첫눈우에
첫자욱 새기시며
혁명을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오시어
세월의 첫눈도 다 맞으신 대원수님들

이 땅에 내리는 마지막눈도
어깨우에서 다 녹이시며
이 땅우에 락원의 봄을 가꾸신
대원수님들

잊지 못해라 눈
눈내리는 날이면 더욱 그리워
영생축원의 꽃을 안고오르는
만수대언덕 흰눈의 세계 순결의 세계여

하얀 대돌우에
붉은 꽃은
세월과 력사우에
영원히 수령님을 받드는 인민의 마음

아, 영원불멸하리
하얀 눈세계와 붉은 꽃
정과 의리로 영원히 만발할
만수대언덕의 붉은 꽃이어

위대한 김정은시대 작가의 최대의 사명

박 춘 택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는 장엄한 새 력사가 이 땅우에 새겨지고있다.

2월의 기상 떨치며, 2월의 위업 받들어 발걸음도 높이 강산을 쿵쿵 울리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의 령도따라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의 력사적전환기를 빛내어나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자라난 수천수만의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걸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휘날리며 오직 한길-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보무당당히 나아가고있다.

온 나라 강산에 선군위업의 최후의 승리를 위한 장엄한 대전군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 령도의 현명성을 격조높이 노래하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화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우리의 문학에서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특출한 실력으로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력사적과정에 선군위업의 탁월한 령도자, 참다운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비범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신 충실성의 최고귀감이시며 문무를 겸비한 실력가형의 지도자이시며 한없이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소유하신 인민의 자애로운 령도자이시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과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한결같은 호모를 받으시며 선군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시는 걸출한 령도자,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절대적인 위인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계시는것이다.

무엇보다먼저 작가들은 수령영생위업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 끝없는 충정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형상하는데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장군님의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 가장 충직한 혁명전우이시다.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 절대적인 권위를 전결히 옹호하는데 언제나 최대의 심혈을 기울이시였으며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오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누구보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수령영생위업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상징하는 수령영생위업의 대기념비로, 우리 인민뿐아니라 전체 조선민족이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사는 성스러운 태양의 집으로 훌륭히 꾸리시고 이르는 곳마다에 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생탑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오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는데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빠른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심을 인민의 진정한 목소리로 칭송하여야 하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이야말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중의 업적이라는것을 철학적으로 심도있게 부각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다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형상하는 문학에서 위대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로서의 그이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펼쳐보여야 한다.

인민이 사랑하고 높이 모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사상과 령도, 품모에 있어서 아버지장군님을 그대로 닮으신 위대한 장군이시고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제3차대표자회의 높은 연단에서 뵈옵던 때에 벌써 우리 인민은 그이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었으며 그이와 함께 혁명을 하고 피눈물의 언덕도 넘으며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사상도 신념도 령도방식과 품모도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가슴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작

가들은 작품에서 우리 인민의 이런 사상감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담아야 하며 그이를 우러르며 장군님의 모습을 그대로 뵈옵고 신심과 용기에 넘쳐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부각시켜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 령도자의 위대성은 곧 사상의 위대성이며 인민들에게 베푸는 최대의 사랑도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이로부터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후계자의 자질과 품모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은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 한분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는것을 깊이있게 보여주는 형상창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이 주체의 창작에서 특색있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의 심화발전이다. 그이의 사상리론에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에 판통되어있는 주체의 원리, 선군의 원리가 그대로 판통되어있고 그이의 력사적인 로작과 말씀들에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빛내이고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시려는 그이의 고결한 충실성과 확고한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또한 원수님의 사상리론은 장군님의 사상리론 그대로 독창성과 가장 숭고한 인민성으로 일관되어있다. 그이의 사상리론마다에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인민적인 언어들로 충만되어있다. 때문에 작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비범한 사상리론 활동을 부각시킬수 있는 감동깊고 의의가 큰 사실 자료들을 형상화하여 원수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실뿐아니라 무한대한 정력과 세련된 령도예술로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정치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단 0.001mm의 편차도 없이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식으로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신다. 원수님의 령도방식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인민대중에게 튼튼히 의거하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분출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령도방식이다.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을 철칙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걸으시던 현지지도의 길을 또다시 이어가고계신다.

작가들은 인민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방식의 근본바탕에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 숭고한 인민관이 그대로 놓여있다는것을 깊이있는 형상화폭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작품들에는 오성산과 장재도와 무도를 비롯한 전연초소의 군부대들과 통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여러곳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신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형상된 원수님의 걸출한 령도품모가 빛나게 아로새겨져야 한다.

선군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며 우리 당의 변함없는 혁명방식이다. 일찍부터 총대와 인연을 맺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함께 계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령도, 선군정치의 력사적 필연성과 그 정당성, 생활력을 누구보다 깊이 절감하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굳건히 이어가고계신다. 우리 작가들은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품모를 생활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원수님의 헌신의 세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방식은 대담한 공격전으로 일관된 혁명방식, 투쟁방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군사작전계획을 비준하시여도, 대상물건설계화를 보아주시여도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으로 공격전을 벌려 모든 일을 와닥닥 해제끼도록 이끄신다. 대담한 공격전, 이것이야말로 천출위인이신 원수님의 혁명방식, 창조방식, 투쟁방식이다.

령도자의 혁명방식이자 인민들의 투쟁기풍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은하파학자거리,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공격정신을 구현한것이다. 당에 충직한 군대와 인민을 믿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강성부흥의 찬란한 설계도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서 우리는 언제나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고있다.

작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방식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시는 백두의 선군령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위용떨칠것이라는것을 강렬한 사상미학적주장으로 터쳐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숭고한 덕망의 체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인간세계와 품격을 감명깊게 형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을 그대로 부여주시는 친어버이이시다.

인민들과 동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 소박하고 겸허하신 품성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고유한 인간적향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간애와 인민적품모를 그대로 체현하고계시는 절세의 성인이시다.

작가들은 고결한 인민적품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품모를 감동깊게 형상하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원수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인민에 대한 인정이며 존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간애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참다운 인민존중의 숭고한 미덕이다. 인민을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관점과 투철한 립장의 정확성은 인민을 제일로 여기시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구의 총구가 앞에 도사리고있는 선군의 산악 오성산에 나가시어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창전거리의 새집들이한 평범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시어 사랑의 축배잔도 부어주신다. 잊지 못할 원수님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섬방어대의 군인가족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있으며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다 깃들어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 문수지구에 인민의 별궁전,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상징으로 몇들어지게 솟아오른 대규모종합물놀이장은 가장 아름다운 꿈을 인민에게 심어주고 가장 절대적인 복무정신으로 그 꿈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떤것인가를 실증해주고 있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심장속에서는 우리 인민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안겨주시려는 하나의 생각만이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것을 더 좋고 더 훌륭하게 마련하여 인민들에게 통채로 안겨주시려는것이 원수님의 뜻이다. 수령의 리상만큼 인민의 꿈이 커지고 수령의 현신만큼 인민의 행복이 커진다.

작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 인민의 꿈을 모두 안으시고 인민들이 미처 바라지도 못했던 꿈까지도 다 이루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세계를 심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이미 훌륭히 창작완성된 수령형상문학 작품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인민의 그 어떤 꿈도 현실로 만드는 본격적인 공격전의 시대, 락원의 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인민의 꿈을 빛내이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위업이 어떤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더욱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나라의 크고작은 일로 그러침 바쁘신 속에서도 문수물놀이장

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최상급의 선물로 마련하시려 마음쓰신 그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비롯하여 인민사랑의 기념비들에 깃든 이야기들을 감명깊게 형상하여 령도자가 추켜든 인민사랑의 기발, 인민제일주의의 리념이 어떤것인가를 빛나는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잠도 잊으시고 피곤도 모르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속에 낮이나 밤이나 끓고있는것이 인민사랑의 뜨거운 불덩어리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여야 한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우리 당의 정치에 의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고있다. 우리 당의 광폭정치, 인덕정치아래 일시적이거나 조국을 떠나갔던 사람들도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고 나라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혁명대오에 다시 들어서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지고있다.

작가들은 이런 가슴뜨거운 사실들을 통하여 병든 자식, 못난 자식을 탓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마음을 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 창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작품의 인간학적풍격을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우는것이다.

뜻이 깊은 종자, 생동하게 살아숨쉬는 산인간의 성격, 풍만하고 진실한 생활, 이것이 작품을 인간학으로 만드는 기본요인이다.

력사적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그 력사적사실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말고 한결음 더 들어가 심오한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종자를 깊이있게 심어야 하고 그 종자를 통하여 그 사실의 본질을 의의있게 밝혀야 하며 생동하고 다양한 세부로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실감있고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령형상작품의 높은 예술적풍격을 보장하는 길이 있고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예술적진실의 세계를 창조하며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느끼게 하는 예술적전형화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소가 있다.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근거하는것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창작원칙이다. 그러나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근거하여 전형화하는 원칙만으로써는 수령형상작품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할수 없다. 수령형상작품을 인간학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담보는 종자의 탐구에 있다.

만약 력사적사건과 사실들이 위대하고 격동적인 것이라고 하여 사상적알맹이를 똑바로 천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수령형상작품의 사상적심오성과 예술적감화력을 제대로 보장할수 없다.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서의 종자는 수령형상작품창

아, 그 존함

류 민 호

내 한생 찾고찾던 그 존함인듯
꿈결에도 외워보던 그 존함인듯
그지없이 다심한 그 존함
다시없을 정다운 그 존함

나도 몰래 따뜻한 해님향해
봄씩처럼 파릇이 움터오르는
이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도 아되는
망설임도 모르고 부르는 존함

그 존함 가슴속에 조용히 외워도
기쁨은 가슴가득 찰랑이고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지고
희망은 끝없는 미래로 나래치는

아, 그 존함 친근한 존함
우리의 김정은동지!

이내 마음 깊은 곳 속깊은 곳에
떨ैया 떨수없이 자리잡은
늘 함께 사는 존함

떨어져선 못살 해와 같은 존함

위대한 그 존함으로
축복받은 내 삶의 희열도 있고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세월
무궁한 조국의 번영도 있나니

심장으로 부르는 존함은
이 땅의 반복을 안아오는
영원한 사랑의 태양
우리 이고사는 운명의 하늘

그 존함은 이 행성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전진하는 대오의 기치로 휘날려라
그 존함은 새 세기의 창조와 기적을 펼치는
빛나는 승리와 존엄의 노래로 메아리치나니

아, 경애하는 그 존함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 존함은 한생토록 내가 부를 존함
내 조국이 영광속에 부를 존함이어라

=====

작에서 위대한 혁명력사에 있었던 역사적사건과 사실들의 본질과 의의를 깊이있게 형상해낼수 있게 한다.

단편소설 《우리의 계승》(윤정길 작)의 철학적 깊이도 우리 나라에서만 고유한 계승의 전통,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지는 세대와 세대의 참다운 계승이 있는 한 선군조국의 청사에는 태양을 옹위하는 별무리처럼 빛나는 김정은동지의 수천만 동지, 전우들이 위훈과 애국으로 펼치는 영원무궁한 승리와 영광의 역사만이 아로새겨질것이라는 심오한 사상적알맹이의 탐구로 담보되고있다.

수령형상작품의 인간학적풍격을 높이고 사상에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령의 위대한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탐구하고 형상을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창조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아름답고 숭고한것을 찾아 그것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생활을 최상의 경지로 승화시키는것은 생활탐구에서 범속성을 극복하고 위대한 생활을 그릴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전통은 오늘의 선군시대를 강성국가의 령마루에 힘있게 떠밀어주는 역사의 원동력으로 될것이라는 작가의 사상미학적주장이 강렬한

단편소설 《감사》(윤경찬 작)는 강성원건설과정 에 한 중대장의 처벌사건을 두고 군대와 인민들 사이에 오고간 혈연의 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장군님의 선군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하여 곧바로 전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리념의 정당성을 깊이있게 부각하고있다.

수령형상작품의 사상에술적풍격을 높이자면 다음으로 독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식과 류형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새로운 문학세계를 창조하자면 시대와 생활, 인간을 보는 눈, 미학적리상이 달라져야 하며 경직을 풀고 혁신적안목에 기초하여야 한다. 생활을 도식적으로 대하고 틀에 맞추어 형상하려고 하는 작가는 현실에서 새롭고 절실한 문제를 찾아내지도 못할뿐아니라 설사 찾아내었다고 하여도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하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작가의 창작정신, 문학정신이 대고조의 정신으로 높아져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덕망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품모를 훌륭히 갖추신 천하제일명장 김정은동지를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혁신적인 문학세계를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결사의 각오를 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는 있어서 제일 귀중한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입니다. 진실한 동지는 제2의 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것처럼 충직하고 의리깊은 동지들이 뭉치면 하늘도 이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말하군 합니다.

동지라는 말은 뜻을 같이한다는 말인데 뜻이란 곧 사상입니다. 일시적인 리해관계나 라산에 의하여 맺어진 동지관계는 공고할수 없으며 때에 따라 쉽게 깨여지고합니다. 그러나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된 동지관계는 영원하며 총알도 단두대도 그런 동지관계를 갈라놓을수 없습니다.

조선혁명은 령도자에 대한 충정으로 숭고한 모범을 보여준 수많은 동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동지들이 우리 주위에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고있습니다.》

전선길에 대한 생각

최 윤 철

우리 장군님
인민을 위하여 걸으신 길이였다
천리... 또 천리...
우리 장군님
조국을 위하여 가고가신 길이였다
한해... 또 한해...

전선길! 불러만 보아도
굽이굽이 가파른 령길이 떠오르고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불멸의 자욱으로 력력히 어려오는
아,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이어

때로는 아찔한 벼랑을 옆에 끼시고
미끄러지는 야전차를 어깨로 밀며
길아닌 길을 내며 오르시던 순간조차
눈앞엔 오직 사랑하는 병사들 모습 그리며
더 힘껏 앞으로 앞으로 달리셨나니

숨막히는 폭양도 아랑곳 앉으시고
언제나 끈추
비바람 몰아쳐도 멈추지 앉으시고
언제나 곧바로
전선에서 전선으로 번개처럼 달리시던
우리 장군님의 빨찌산식 전선길이어

그 자욱우에 이 나라의 아침이 밝았고
평화로운 사계절이 흘러갔어라
그 자욱이 있었기에
아이들의 노래소리 랑랑하였고
인민들의 단잠이 지켜졌어라

진정 슬하에 수백만 전사들을 두시고
그렇게 걸으셔야 했던 말인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그 길을
명절날 휴식날 따로 없는 그 길을

때로는 족잡으로 이어가시며
때로는 췌기밥도 달게 드시며

진정 안개도 오르기 주저하는 오성산벼랑길에
폭설이 가로막는 자강도의 령길우에
눈보라는 얼마나 모질게 일었던가
그 길에서 맞으신 새날은 그 얼마
그 길에서 지새신 밤은 또 얼마

아, 그래서 우리
전선길이란 말만 들어도 목메이는것인가
그래서 우리 불러만 보아도
뜨거움이 앞을 가리워
그처럼 잠들수 없는것인가

백사장의 흰 파도 보기만 해도
초도의 풍량이 가슴에 뒤설레이고
한줄의 흰눈을 쫓아보아도
철령의 눈보라 가슴에 일거니
무엇을 위해 걸으신 길이던가
병사들을 찾으시어 몇천리
인민의 안녕 지켜 몇만리

새해의 시작도 이 길우에서
새해의 마지막날도 이 길우에서
승리의 자욱자욱 쉬임없이 새겨가셨나니
그것은 우리 장군님
생의 전부를 다 바치신것 아니라
애국의 넋을 다 바치신것 아니라

아, 전선길 전선길
우리 장군님 애국애족의 상징이어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 전선길 이어가시며
위대한 선군위업 계승해가시거니
전선길 그 길은 우리 장군님의 한생이여라



김 하 늘
그림 김 광 석

1

한밤중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문건의 마지막장을 덮으시었다. 밑줄을 긋던 마지크도 그옆에 놓으시었다. 활달한 필체로 비준하시여 한쪽에 무드기 쌓으신 문건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두개의 문건이 지금 집무탁우에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하나는 인민군총참모부에서 올린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중앙위원회 한 부서에서 올린것이였다.

군대에서 올린 문건은 최전연사단에 보내줄것을 청원한 총참모부의 한 군관에 대한 자료였다. 두아들을 다 전연초소에 세웠고 그자신도 27년간 전연에서 복무하다가 3년전에 총참모부로 올라온 군관이였다. 지난해 여름 그의 맏아들이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어린 학생들을 구원하다가 희생되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에서 보고된 그 군인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인민에 대한 우리 군대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때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시다.

그 병사의 아버지가 오늘은 자기를 최전연사단에, 바로 아들이 복무하다가 희생된 그 사단에 보내줄것을 청원하고있다. 총참모부에서는 그의 경력과 군공, 작전지휘능력을 보고드리면서 얼마전에 결원이 된 그곳 사단장감으로는 그 이상 적임자가 없다고 제기해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 그 문건을 펼치고 거기에 첨부된 대좌의 사진을 눈여겨보시었다. 파묵하면서도 강단있어보이는 그 모습이 언제인가 인상깊게

새겨두었던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만났던지는 딱히 기억되지 않으시었다. 첫눈에 벌써 낯이 익고 믿음이 가는 대좌, 아들을 참된 군인으로 키운 아버지이고 군사적실력이 겸비된 사단장감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밑줄을 그으신 한 문장에 더 마음을 쓰시었다.

《그의 안해도 남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면서...》

잘막하게 단 한문장으로 씌여진 그 녀인. 20여년간을 최전연에서 살다가 평양에 올라왔던 군관의 안해가 다시 이사집을 싸들고 남편을 따라서겠다고 한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옆에 놓인 마지막문건에 눈길을 돌리시었다. 몇해전에 몇푼의 돈을 바라고 이웃나라에 갔다가 남조선에까지 흘러갔던 녀인문제였다. 이제 와서 다시 조국에 받아달라고 남조선을 탈출하여 중국 심양의 우리 나라 대표부 문을 두드렸다고 한다. 두 문건에 너무도 상반되는 녀인들이 있었다. 그 녀인들이 지금 평범하고도 범상치 않은 자기들의 삶을 문건에 씌여진 글줄들로 이야기하고있다. 참된 군관의 안해는 잘막한 한문장으로, 일시적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갔던 녀인은 집안력과 살아온 경력, 국경을 넘어가게 된 동기와 그후의 굴욕적인 생활, 다시 조국의 문을 두드리게 되기까지의 긴 이야기로!...

그이께서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새집들이 경사를 눈앞에 두고있는 창전거리의 불야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오늘부터 입사증이 발급되고있다.

새집에서 누리게 될 희한한 생활을 그려보이며 현란한 불장식이 주인들을 부르고있다. 저 화려한 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인가!

얼마전 그이께서는 건설장을 현지도하시면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었다.

《이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집에서 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제 나름으로 꼽아보며 일꾼들은 누구도 인차 입을 열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도 굳이 대답을 바라고 물으신 것은 아니었다. 먼발치에서 보실 때나 가까이 지나가실 때나 그리고 건설장을 직접 찾으시어 아직 승강기설치도 완성하지 못한 초고층건물의 마지막까지 층층계단을 다 걸어올라가실 때에나 그이께서는 이 거리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고생을 많이한 우리 인민들을 다 이런 집에서 살게 하자는것이 바로 나의 리상이요. 내 고생으로 인민들이 잘살수만 있다면.》라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기곤 하시었다. 그래서 언명하시었다. 이 집에서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땀을 많이 흘린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근로자들이 살아야 한다고, 그렇기때문에 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더 정성껏 손을 대고 품을 들여 완공하여야 한다고!...

새 거리의 입사증을 받아안은 사람들이 행복의 이사집을 꾸리고있을 이밤 총참모부사택의 어느 한 집에서는 군관의 안해가 남편을 기다리며 조용히 이사집을 싸고있을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가? 우리 장군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심혼이 깃들어있는 저 새 거리에서는?...

그날 새 거리 건설장에서 누구에게라없이 하시였던 그 물음이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자신에게로 되돌아온것만 같이 여겨지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 집무탁에 돌아오시었다. 류철문대좌의 문건을 또 펼치고 푸른색마지크로 그의 경력을 한점한점 짚어가며 한 군관의 안해가 이사집을 몇번 꾸렸겠는가를 세어보시었다. 마지크가 마지막점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그 이사가 가장 복된 이사였을것이다. 수도 평양에서 살게 된다는 기쁨과 행복을 안고 가슴들먹이며 한밤을 지새였을것이다. 그러나 불과 3년!...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상시계를 보시었다. 전선중부의 한 연합부대에 대한 시찰을 계획하고 최고사령부작전지휘성원들을 부르신 그 시간이 되여왔다.

결론을 기다리는 이쪽문건은 아직 펼쳐진채로 있었다. 눈물로 호소하며 조국의 문을 안타깝게 두드리는 녀인, 하지만 아직은 누구도 그에 대답하

지 못하고있다.

《...평양에서 대학교원을 하는 아들을 비롯하여 그 녀인의 가족, 친척들도 모두 그를 만나는것을 거절하고있습니다.》

자신께서 밀줄을 그으신 그 부분이 다시 안겨오자 마음은 자못 괴로우시었다. 아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운 한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수치를 가져다준 다른 한 어머니... 아름답고 강의한 녀인에게는 무엇을 주고 치욕을 안고있는 녀인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두 녀인의 얼굴이 엇갈려 안겨드는 문건들을 겹쳐쥐시며 그이께서는 드디어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리문성은 아까부터 분무기를 쥐고 창가에 가지런히 놓인 화분들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분무기로 물을 뿌어주던지 한점 오를세라 잎사귀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품들여 화분을 가꾸는 이 정서적인 습관은 단순히 취미로 시작된것이 아니었다.

아득히 흘러간 20여년전 지방의 어느 한 공장에서 당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공장당책임일군이 그에게 화분 하나를 주면서 말했었다.

《당일군은 정서가 있어야 하오.》

처음에는 의미심장하게 새기며 취미를 붙여보느라고 했었지만 사업에 몰두하면서 점차 등한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심각한 비판을 받고 밤늦도록 사무실에 앉아 자기를 반성하고있을 때 당책임일군이 들어왔다. 그는 창가에 멍그렇게 놓인 초라한 화분을 가리켰다.

《이런줄 알았소. 좋은 꽃나무를 왜 이 모양 만들었소? 참,한심하군. 화분 하나 온전히 가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꾸는 당일군구실을 제대로 하겠소?》

후날 리문성이 도당으로 올라갈 때 그 책임일군은 년로보장을 받게 되었다. 그는 리문성에게 화분에 물을 주는 자그마한 분무기를 하나 쥐여주었다.

《사람들을 품들여 가꿀줄 아는 당일군이 되시오. 이건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이요.》

세해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는 영광을 지닌 자리에서 리문성은 취미가 무엇인가고 물으시는 그이께 잊을수 없는 추억을 담아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다.

그때 김정은동지께서는 말씀하시었다.

《참 좋은 이야기요. 한번 틈을 내서 꼭 동무가 가꾸는 화분을 봅시다.》

그런데 오늘 그이께 잘 가꾼 화분의 꽃이 아니라 너무도 불미스러운 녀인의 자료를 올린것으로 하여

그는 죄스러운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조국을 배반하였던 그 녀인...

마침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급히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송수화기를 정중히 받쳐드니 아닐세라 그이의 음성이, 부드러운 면서도 쇠소리가 섞인 김정은동지의 친근한 음성이 울려나왔다.

《부부장동무, 이제 곧 최전연부대로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예?!》 다음순간 그는 숨을 활 내뿜으며 말씀드렸다. 《알았습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2

전선시찰을 마치고 최고사령관동지의 야전차행렬이 어느 한 산굽이를 돌아섰을 때 마침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한밤을 꼬박 지새운 파로를 밀어 내시려는듯 그이께서는 차창유리를 반쯤 내리시었다. 순간 초여름의 산속에서 생신한 숲의 향기가 쏘어들었다.

《좀 쉬었다 갑시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순간의 휴식도 없이 긴장하게 맞물렸던 전선시찰의 길이었다.

최고사령부를 떠나 이틀째나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대들과 구분대들을 돌아보시고 군단지휘부의 작전계획도 검토하시였었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 여러 수행원들을 돌아보시였다.

《아침제초도 하고 산보도 좀 하다가 가는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수행한 최고사령부작전지휘성원들은 그이를 따라 군복단추들을 풀어놓고 두팔을 한껏 제끼며 걸탐스레 아침공기를 마시였다. 거의모두가 70전후의 로장들이지만 젊음이 뿜어나오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시선과 눈부신 아침해살이 온몸에 닿으니 청신한 활력이 부어지는지 췌! 췌! 소리를 내며 격술동작까지 해보고있었다. 그들에게 정겨운 미소를 보내시던 김정은동지께서는 뒤집을 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멀리 험준한 산악들사이를 굽이굽이 휘돌며 동부에서 평양으로 가는 도로가 아슴푸레하게 바라보였다.

작전사판처럼 한눈에 안겨오는 산천을 바라보시려니 부지불식간에 최고사령부에서 작전지도로 짚어가시다가 문득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혼자 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우뚝이 안겨오시였다. 조국을 축척 몇만분의 일이라는 작전지도의 등고선으로가 아니라 《푸른 산,

푸른 들》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로 안고사신 위대한 수호자! 이 길에도 장군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옥을 새기시였던가. 우리 장군님의 조국애의 강렬한 열정이 비껴있는 산천이어서 이리도 유정하게 안겨오는것인가!

목메인 그리움으로 젖어드는 눈길에 길옆에 피어난 들꽃송이들이 밟혀왔다. 소담스레 무리지어 피는가 하면 한송이, 두송이, 점점이 찍혀지기도 한 노랑고 하얗고 빨강고 파란 꽃송이들... 그이께서는 어느새 다가왔는지 말없이 자신을 따라 걷고있는 리문성을 돌아보시였다.

《부부장동무는 왜 저속에 끼우지 않소?》

그이께서 은근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혹시 사민이라고 군인들한테서 따돌림을 당하는게 아니요?》

리문성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최고사령관동지를 보좌해드리는 당일군이랴구 아바이들이 저한텐 끄찍합니다.》

《음-》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현듯 목이 짹 메이는것을 느끼시였다.

《장군님을 따라 걸었던 그 걸음으로 오늘은 나를 따라 걷고있는 귀중한 동지들입니다. 그럴수록 우린 그들을 더 존경하고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예,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시였다. 산기슭에 피어난 들꽃들에 또 눈길이 끌리시였다.

《들꽃들이 참...》

그리고는 더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곱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소박하고 수수하다. 그러면... 문득 한 녀인의 모습이 그려지시였다. 사진을 보실 때 무척 낮익게 생각되시던 군관의 안해. 얼굴 한번 보신적 없고 이름도 아직 모르시지만 저 들꽃처럼 오래전부터 친숙해진것만 같은 느낌이지였다. 더욱이 들꽃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부부장동무는 화초에 조예가 깊겠는데 이 들꽃들의 이름을 다 압니까?》

리문성은 저으기 당황해졌다. 장미, 글라디올라스, 튤립같은 화초들에는 내노라 했어도 산에 들에 흔하디흔한 이 들꽃들은 소담하다, 정겹다 하면서도 그렇게 눈여겨본 기억이 별로 없었기때문이었다. 민들레, 접시꽃, 제비꽃... 띄엄띄엄 이름들을 불러보다가 나중에는 어릴 때 농촌에서 나름대로 지어부르던 이름까지 끄집어냈다.

《저건 밥알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건 그저 노랑꽃이라고 했고 저기 노란 속잎이 있는 저

꽃은 군사복무때 우리끼리 해꽃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며 김정은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었다. 그렇다. 평범한 그리고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그래서 그들꽃이라고 한데 몰아 부르는 이 꽃들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은 별반 없을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들꽃들이 조국과 고향과 귀중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자, 이제 떠납시다. 부부장동무는 내 차에 옮겨타시오.》

이윽고 차들은 산악도로를 따라 바람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차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리문성은 저으기 긴장해졌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자신의 곁에 부르시였을까? 혹시 그제 밤에 보고드린 그 녀인의 문제가 아닌지?...

《음악을 트시오.》 김정은동지께서 운전사에게 나직이 이르시었다. 《참, 내가 어제 들던 그 노래 있지?》

《예, 있습니다.》

운전사가 재빨리 녹음기를 켜다. 그러자 밝고 랑랑한 노래소리가 차안을 가득 채웠다.

바라노라 나의 조국아
그대의 하늘아래서
그 언제나 밝게 웃으며
아이들이 뛰어놀기를
...

노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이께서 리문성에게 물으시었다.

《부부장동무 이번에 나와 같이 최전연부대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리문성은 재빨리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저... 최전연에서 복무하는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승용차도 오르지 못하는 높고 험한 산밭과 여러가지로 불비한 생활조건... 그런것을 볼 때마다 전 아직 우리가 도와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런데 총참모부에서 근무하던 한 군관은 여기 최전연부대로 보내달라고 제기해왔소. 류철문이라고...》

《예?》 리문성은 반색했다. 철문인가?!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러는 그를 돌아보시며 물으시었다.

《그 동무를 압니까?》

《예, 잘 압니다. 우린 한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부부장동무의 전우였구만.》

《그렇습니다. 참, 생각나실겁니다, 3년전에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전선동부의 대련합부대를 시찰하실 때 판하부대 참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처음 장군님의 전선시찰을 수행하는 영광을 지녔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 밝게 미소하시었다.

《아, 그래서 사진을 볼 때 어디선가 꼭 본것 같은 인상이였구만. 웬소. 그때 장군님께서 부부장사업을 갓 시작한 동무에게 인민군대의 화선식당사업을 배워줘야겠다고 수행성원으로 불러주시였지. 그때, 그때 그를 만났소. 눈매가 날카롭던 사람이였지.》

그이께서는 턱에 한줄기 주름이 내리패여 남달리 강단있어보이던 류철문의 모습을 다시 상기하시었다.

《강쇠같이 굳센 군인이라는 인상을 받았더랬소.》

리문성은 저으기 흥분되였다.

《그렇습니다. 헤어진지 20년이 넘어서 만났는데 그새 편지 한번 주고받은적 없지만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 만나니...》

김정은동지께서는 놀라시었다.

《20년만에? 허, 그런데 등뒤에서 전우들의 그런 뜨거운 상봉이 있을줄 내가 왜 몰랐을까?》

문성은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우린 그때 서로 말없이 눈빛으로만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력사적인 자리라고... 그다음 다시 마주보고 손을 한번 꼭 잡았다가 놓았을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린 하고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음— 그런 일도 있었구만.》

김정은동지께서는 리문성을 새삼스럽게 보시었다. 20년간이나 전혀 소식을 모르다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전선시찰의 길에서 만났다. 장군님슬하에서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성장한 일군과 전연군단에서 총총계단을 밟으며 성장한 전연군인, 장군님의 전선시찰을 수행하는 길에서 이루어진 전우들의 극적인 짧은 상봉... 아득히 흘러간 병사시절에 맺어진 전우의 우정을 다시 그리고 더욱 굳게 맺어주었을 그 악수—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윽도록 차창밖을 내다보시다가 나직이 시 한구절을 읊으시었다.

전우들의 악수—

그것은 싸움의 맹세였다
승리의 신념이었다
우리의 동무들이
그렇게 악수하고
탄우속으로 뛰어들었고
사지에 선뜻 들어섰다

그이께서 조용히 물으시었다.

《이 시를 들어본적이 있소?》

《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한구절이요.》

《예...》

김정은동지께서 그 다음시련을 또 조용히 읊으시었다.

아아,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어머니의 사랑같이 꾸준하고
의의 선혈같이 빨간
적도의 태양같이 열렬한
충직한 전우의 그 악수!
...

김정은동지께서는 눈언저리가 불길하게 달아오른 리문성의 얼굴을 정겹게 보시었다.

《오늘 참 뜻깊은 이야기를 들었소.》

야전차행렬은 어느덧 수도를 가까이하고있었다. 정답게 다가오는 거리를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조용히 이르시었다.

《이제 가서 그 녀성의 문제를 같이 토론해봅시다. 심양대표부에 찾아왔다는 녀성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

...김정은동지께서는 문건의 마지막장을 덮으시고 오래동안 창밖을 내다보시었다. 그러시다가 다시 문건의 마지막부분을 펼치시었다.

《그러니 믿을수 없단 말이지...》

리문성이 정중히 말씀드렸다.

《해당 부문 일군들과 심중히 토론했습니다.》

《심중히 토론했다? 심중히... 심중히...》

그이께서는 무거운 눈길로 집무탁앞에 긴장하게 서있는 리문성을 바라보시었다.

《부부장동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이 옳다고 봅니다. 한번 배반했던 사람은 두번, 세번도 배반할수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지난 시기 그런 실례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동지의 안광에 순간 어두운 그늘이 언뜻

스쳤다.

《그러니 지난날을 뉘우치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사람을 적들에게 되밀어보내자는거구만?》

문성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런건 아니지만...》

김정은동지께서는 저우기 격해지시었다.

《그럼 뭘니까? 받아는 들이되 믿지는 못하겠다?... 무엇을 믿지 못하겠다는거요? 그래 믿지 않을바엔 왜 받아들인단 말이요?》

문성은 고개를 수그렸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들었다.

《문건에도 써여있지만 그 녀성의 가족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을 많이 받아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전쟁때 월남했지만 어머니는 공화국의 품속에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꽃피웠고 더우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녀성의 어머니에게 일흔썰생일상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집안이어서 당에서는 그 녀성의 아들을 평양음악대학의 교단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남다른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고도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배신의 길로 갔으니... 지금은 그의 가족들까지도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만하시오.》

낮으나 저력있는 그이의 음성에 문성은 굳어졌다. 방안에는 잠시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이께서는 의자를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동무들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탓하자는건 아니고...》

그이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문성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부부장동무,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하루 쉼 쉬시오. 요즘 무리했지요? 몹시 피곤한것 같습니다.》

문성은 뜻밖의 말씀에 고개를 쳐들었다.

《아닙니다, 전 일없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천히 다가오시여 문성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었다.

《이 녀성의 문제는 내가 해당 부문에 말해주겠소. 부부장동무 좀 쉬고 저녁에는 류철문동무의 집에 찾아가서 옛 전우들끼리 회포를 나누시오. 총참모부에도 이야기해주겠소. 아마 오늘 저녁밖에 그럴 시간이 없을것 같은데.》

《?!》

《동무들의 관계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벌써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건데 안됐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서로 소식을 모르고지냈다니 지난해에 전선동부에서 복무하던 류철문동무의 딸아들이 폭우속에서 어린 학생들을 구원하다가 희생된것도 모르고있

겠지요? 아까 차에서 듣던 그 노래는 희생된 류동일병사가 제일 즐겨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다른 아들도 지금 최전연에서 복무하고있고. 그 동무의 안해도 참 훌륭한 녀성입니다.》

문성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그런 사연이 있던 말인가?! 철문이, 류철문이… 생각해보면 너무도 아득히 헤어져있은 자기들이었다. 20년. 대학과 3대혁명소조원시절 그리고 공장당사업,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와 도당을 거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흘려온 그 나날에 군사복무시절의 류철문의 모습은 차츰차츰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그러다가 뜻밖에도 영광의 자리에서 만났을 때 서로를 기억했고 그 20년을 참되게 보냈다는 긍지감에 넘쳐 뜨거운 손들을 잡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그가 어떻게 변함없는 병사시절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전우라고, 군사복무시절의 친구라고 최고사령관동지앞에서 자랑을 하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바로 그 시절의 우정을 이토록 귀중히 여겨주시며 옛 전우들의 정을 다시 맺어주시려 마음쓰시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은 인사를 드리고 나가다가 문가에서 돌아서 다시금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고맙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리문성은 나갔으나 그를 바래우신 김정은동지의 마음속에서는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이 울리고있었다.

(초소는 달라도 장군님을 받들어 한길을 걸어온 동무들이 고맙소. 선군혁명의 길에서 맺어진 전우들의 그 우정, 혁명동지들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이께서는 다시 집무탁으로 돌아오시여 탁우에 놓인 문건을 집어드시었다. 몹시도 낯설게 안겨오는 첫 글줄.

《조국을 배반하였던 한 녀성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배반, 배반이라…)

그것은 명백히 배반이었다. 자기 어머니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배려해주신 생일 70돐상이 전 달되었을 때에는 감격에 젖어 《우리 아버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저 하나 살겠다고 처자들을 버리고 남으로 나갔지만…》했던 녀성이 생활상 난관을 겪게 되자 그 아버지를 찾아 국경을 넘지 않았는가. 그것이 배반이 아니라면, 그런 배반에 용서가 있다면…

그이께서는 다시 문건을 한장한장 무겁게 번지시며 자리에 앉으시었다.

《…라고는 완전히 믿을수 없습니다.…》

문건을 만들어올린 일꾼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시었다. 시련의 시기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1선에서 보이지 않는 피를 흘려온 그들이 마음속 분노를 애써 누르며 자신께 말씀을 올리는 것만 같으시었다. 그리고 고지식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은근히 고집스러운데가 있는 리문성의 모습도 다시 그려보시었다. 남다른 사연을 안고 화분을 가꾸는 취미를 붙인 당일군, 사람들의 운명을 다루어야 하는 당사업이 화분과의 인연을 맺어주지 않았는가. 정서를, 정성을. 그러나 그런 당일군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 그들은 모두가 분개하고있다. 정의롭고 진실한 사람들일수록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려 하지 않고 타협하려 하지 않는 법이다.

《…믿을수 없습니다, 믿어선 안됩니다.…》

문건에 씌여진 그 글줄들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용서할수 없습니다!》라는 웨침을 그이께서는 분명히 듣고계시었다. 그러나 자신께서 더 가슴아프신것은…

저어하듯 조심히 들리는 문기척에 김정은동지께서는 고개를 드시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리문성이 다시 들어섰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거운 상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신채 그를 의아히 바라보시었다. 리문성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서있다가 송구스러운 눈길로 그이를 우려했다.

《다시 생각되는것이 있어서 돌아섰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없이 눈빛으로만 묻고계시었다.

《저희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넓은신도량과 인덕을 다 깨닫지 못하고 너무 편협했습니다. 문건을 고쳐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무엇을?... 그이께서는 죄송스러워하는 자세로 서있는 리문성을 묵묵히 바라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우리 당의 정치는 광폭정치라고 하셨는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순간 김정은동지의 안광에서 번뜩하는 빛이 뿜어나왔다.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허물을 탓하지 않는것이 광폭정치란 말인가? 판대성? 아니다. 우리 당 광폭정치의 본질을,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의 근본을 다 알지 못하고있다.

아득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며 추억속에 눈보라가 일기 시작했다. 일시적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간 우리 사람들을 유피, 랍치하여

끌어가던 남조선피뢰들, 《탈북자》로 불리운 그 사람들이 남쪽에서 당하는 온갖 치욕과 고통…

보고자료를 덮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짐무탁을 치며 결연히 일어나시었다. 즉시 전선길에 또 나서시었다. 울부짖는 눈보라, 일군들이 울면서 막아나섰다.

《안됩니다, 장군님! 금방 전선길에서 돌아오셨는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장군님—》

웃자락을 부여잡는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서는 마치 불을 토하시는듯 했다.

《나의 피와 같고 살점과도 같은 인민을 원썬들이 때내자고 하는데 가만 있겠는가! 동무들도 문건을 봤지? 그렇게 끌어다가 노예가 아니면 쓰레기로 만든단 말이요. 내가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정을 쏟은 인민이라고 놈들이 감히 때어낼수 있다고, 감히?!—》

오스러지게 틀어쥐신 주먹에서 분노가 푸들푸들 튀고 서슬푸른 안광에서 불이 펄펄 일었다. 자신께서도 어린시절에 혁명의 바통으로 넘겨받으신 사연깊은 권총을 품고 그밤의 전선길을 따라나서시었다. 하늘땅을 짝 메운 눈보라, 순간에 얼어들던 야전차의 차창…

《내 고생으로 인민들이 잘살수만 있다면!》

우리 장군님은 그렇게 불같은 한생을 사시었다. 가슴이 저려오는 2011년 12월 16일의 그 눈보라치는 밤에도 남모르는 중병을 안고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극력 만류해나서는 일군들에게 《내 고생으로 인민들이 잘살수만 있다면!》이 한마디를 뇌이시며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그렇게 걸으신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 그래서 시련의 나날 장군님의 가슴을 그리도 아프게 허비였던 한 너인도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결을 떠나가신 장군님을 목놓아부르며 무릎꿇고 조국의 문을 두드리고있지 않는가. …

《부부장동무는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허물을 탓하지 않고 다 품에 안아주는것이 광폭정치라고 말하고있는데…》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던 걱정과는 달리 자신의 음성이 무척 가라앉는것을 의식하시며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요. 누구보다 그 허물을 가슴아파하며 하루빨리 씻어주자고 더 정을 쏟아붓는것이 우리 당의 광폭정치요. 그 녀성이 남조선에서 얼마나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왔는가, 공화국의 품속에서 나서자란 그 녀인으로서의 난생보지도 듣지도 못한 고생을 겪었을것이 아닌가, 나는 그게 더 가슴아쁩니다. 제 자식이 집을 나갔다가 인간이하의 모멸과 고생을 겪었다고 보면… 어머니라면…》

그이께서는 리문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었다.

《더 뜨겁게 품어주고 지금까지 누려왔던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해서 치욕의 상처를 깨끗이 가시게 해주고싶소. 흔적도 없이 말이요.》

리문성은 뜨거운것이 가슴에서 울컥 치미는것을 느꼈다.

《다시 돌아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 그 녀인을 믿읍시다. 일시적인 동요와 방황은 있었어도 그는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품에서 때어놓으신적 없는 인민의 한사람이요.》

김정은동지께서는 말씀을 끊으시고 무엇인가 기다리시는듯 눈물이 펴 어리고있는 리문성을 이윽히 지켜보시었다.

리문성은 서둘러 젖어드는 눈굽을 닦으며 말씀드렸다.

《알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가닿도록 이제 곧 조직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이요?》

《그 녀인은 비행기에 태워오게 하고 가족, 친척들을 다 데리고 래일 제가 비행장에 나가겠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시는듯 미소를 지으시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가만, 그런데 내가 부부장동무한테 휴식하라는 지시를 주지 않았던가요?》

리문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음을 지었다.

《그 지시는 취소해주시시오. 인민을 위해서 밤잠을 적게 자는 일군이 되라고 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정은동지께서는 크게 웃으시었다.

《그러다간 내가 동지들을 말로만 아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소?…》

고지식하기 그지없는 문성은 그 말씀에 정색해졌다.

《전사들을 아끼시는 그 마음을…》

김정은동지께서는 손을 내저으시었다.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류철문동무와 만나것은 잊지 마시오.》

리문성은 결연한 어조로 대답했다.

《이 사업을 결속하고 보고드릴 때까지 자리를 뜰수 없습니다. 철문이는… 우리 함께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전선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슴이 뭉클해오시었다.

(고맙소. 동지들, 나의 전우들!)

그이께서는 문성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었다.

《전우들의 상봉은 전선에서 이루어지는것이 더

뜻깊지. 부부장동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알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돌아선 문성을 그이께서는 다시 부르시었다.

《비행장에 나갈 때 물론 꽃송이도 들고나가겠지요?》

리문성은 아연해졌다. 꽃이라는것은 축하의 상징인데 그 여인이 무슨 축하받을 일을 하고 온다고?...

《내 그렇게 생각할줄 알았소. 그러나 꽃도 안겨줍시다. 조국과 고향과 그리고 귀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그런 꽃송이를 말이요. 아마 천백마디 말을 대신할수 있소.》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리문성이 인사를 드리고 나간 다음 김정은동지께서는 점도록 한자리에 서계시었다. 불현듯 전선길에서 보셨던 그 들꽃들이 상기되시었다. 다음순간 그 꽃송이들은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전선의 녀인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모진 시련과 고생속에서도 변함없이 조국을 받들고 병사들의 어머니로 억세계 살아온 그들, 한없이 소중하게 안겨오는 모습들이었다....

들꽃, 이름모를 꽃들... 찬바람에 시달리고 눈비에 젖고 가꾸어주는 사람 따로없어도 엄혹한 계절을 이겨낸 수많은 사연들을 조용히 묻어두고 그곳이 어디든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꽃들, 소박하고 강요한, 그래서 더 유정한 꽃들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화로 총참모부를 찾으시었다.

《류철문동무문제입니다. 125사 사단장으로 그 동무이상 책임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찬성합니다. 훌륭한 군인입니다. 전선군의 사려단장들은 내가 직접 만나주면서 임명하는것이 좋겠지만 류철문동무와는 보다 더 뜻깊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명령을 받으시오. <류철문대좌에게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고 조선인민군 제125사 사단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최고사령관이 전선에서 만나잔다는 약속을 전달하시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에 따라 백화만발한 도시로 나날이 변모되어가는 수도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현대적인 화초연구소에서 정성껏 육종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망울을 터치는 우리의 수도 평양. 그러나 30년 가까운 세월 최전연에서 복무하다가 평양에 올라왔던 한 군인은 저 화려한 거리를 뒤에 두고 최전방고지로

다시 떠나게 된다.

김정은동지의 가슴속에는 남편과 함께 주저없이 떠나가는 그 안해의 모습이 비바람사나운 전호가에 억세계 뿌리박고 피어있는 한송이 들꽃처럼 유정하게 안겨오고있었다.

다음날. 평양비행장에서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여인이 고향의 향기 그윽한 들꽃을 받아들고 흐느끼는 때 전선동부로 달리는 군용차안에서는 류철문과 그의 안해가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간절히 축원하며 멀어져가는 평양하늘을 우러르고있었다....

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으로 대학교단에 서있는 아들과 함께 평양에서 살게 된 그 녀성은 국내외기자들앞에 나섰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책임, 참된 인권에 대한 정의를 온 세계가 뜨겁게 새겨보는 순간이었다.

리문성과 함께 그 기자회견 록화물을 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불신과 리간, 간계와 모략으로 이 체도를 무너뜨리려는 적들을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겼소.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그렇게 정을 쏟아부어주신 인민인데 달리야 살수 없지, 달리야...》

그이의 안팎에 사무친 그리움이 실리는것을 우러르며 문성은 눈굽이 뜨거워났다.

《뜻을 심어 화분을 가꾸는 부부장동무니까 시들었다 다시 피는 꽃일수록 더 손이 가고 더 품을 들여야 한다는걸 잘 알겠지요.》

문성은 평 눈물이 어리어 고개를 수그렸다. 과연 다 알고 새겼던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 높으신 뜻을!...

김정은동지께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오늘 행복을 다시 찾은 녀성의 얼굴을 보니 류철문동무네 부부 생각이 더 나는구만. 난 믿고 기다리겠소, 전우들의 그 상봉도.》

...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침노을이 비낀 험준한 고지의 사단장전방지휘소에서 류철문은 옷자락이 새벽이슬에 흠뻑 젖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영접하였다. 그이께서는 제125사 사단장의 결심지를 검토해주시었다. 우리 군대의 투철한 공격정신, 《단숨에!》의 기상이 시작부터 마감까지 철저히 구현된 결심지도였다. 그것을 간간히 검토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결심지도의 맨 우에 활달한 필체로 《김정은》하고 비준해주시었다.

류철문의 앞가슴이 벅찬 흥분으로 하여 풀떡거

리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차렷 자세로 서있는 군관, 장령들을 둘러보시였다.

《만점짜리 결심이요. 동무들, 축하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허리를 꼴끗이 펴며 목청껏 웨쳤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그이께서는 류철문을 정갈게 여겨보시였다.

《보고싶었소, 사단장동무.》

파묵하게 다물려있던 그의 입귀가 실룩거렸다.

《동무에게 이 중요한 작전지대를 맡기면서 난 믿었소. 인민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줄 아는 훌륭한 아들을 키운 군인을 믿었던 말이요.》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김정은동지께서는 뒤에 서있던 리문성을 부르시였다.

《전우들의 상봉을 축하합니다. 부부장동무는 이번에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녀성과의 사업을 아주 잘했소. 한 동무는 인민들에게 어머니당의 사랑을 부어주는 초소에서, 다른 한 동무는 인민의 원썬들을 무자비하게 쳐부시는 초소에서. 그러나 동무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전선에 서있는 전우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이께서 박수를 쳐주시자 수행원들모두가 열렬한 박수로 호응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축복속에 손을 굳게 잡은 두 전우는 뜨거운 눈길로 그이를 우러렸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류철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였다.

《며칠전에 조국에 다시 돌아온 한 녀성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원래 지방에서 살던 녀인이였지만 이번에 평양에 올라와 살도록 했소. 동무들이 떠나온 그 평양에…》

류철문은 두눈을 습벅거리고있었다.

그이께서 계속하시였다.

《한 군인가정이 수도에 내여준 자리에 그 녀인이 들어온셈이지. 인민을 위해 아들을 바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차렷했던 수도 평양의 한 자리까지도 내여주었다는걸 그 녀인은 모를거요.》

벽찬 걱정으로 하여 류철문의 불편이 푸들거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릴… 그렇게

키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 누가 몰라준대도… 좋습니다. 우린 다만 최고사령관동지와 함께라면… 우린 그 어떤 고생도…》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헉! 하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초물처럼 진한 눈물이 어린 류철문을 정겹게 보시다가 와락 그러안으시였다.

《사단장!》

《최고사령관동지!—》

옆에 서있던 군관, 장령들도 모두 눈굽을 적시였다.

《가족들을 부르시오. 우리 다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

전선시찰을 마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야전차는 저녁노을이 불타는 산악도로를 달리고있었다. 쇠물빛으로 타오르는 그 노을을 바라보시며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선사단장의 눈물어린 목소리를 다시 상기하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와 함께라면… 우린 그 어떤 고생도…》

이윽고 그이께서는 산자드락에 점점이 피여있는 전선길의 이름모를 들꽃들에 다시 눈길을 주시였다. 그 들꽃들이 안고있는 만단사연이 향긋한 향기로 가슴에 흘러드는듯…

그이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그리시였다.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그 녀인도 이 땅에 뿌리내린 한떨기 꽃으로 다시 피우고싶으신 마음이였다. 그 녀인도 장군님 맡기고가신 우리 인민의 한사람이 아닌가!…

《…내 고생으로 인민들이 잘살수만 있다면!…》

한생을 불같이 사신 아버지장군님의 해빛같은 영상을 그리며 그이께서는 조용히 록음기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를 듣고계시였다.

바라노라 나의 조국아

그대의 넓은 대지에

그 언제나 꽃들이 피고

황금이삭 설레이기를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언어는 알기 쉬워야 한다. 문학작품은 각이한 문화수준을 가진 광범한 인민대중이 누구나 다 보고 알수 있게 쉬운 말로 씌여져야 한다.》

《작품의 언어는 표현이 정확하여야 한다. 한 문학작품에서 어느 한 대상을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다. 수많은 비슷한 표현가운데서 그 대상에 가장 적중한 하나의 표현을 찾아내는데 작가의 재능이 있다. 대상의 본질을 명증하는 적중한 어휘를 찾아내는 작가의 노력에 대하여 산더미같은 금광의 버럭속에서 한알의 금싸래기를 얻어내는 일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문장을 다듬는데 뼈심을 넣는 작가만이 보석처럼 빛을 내는 정확한 단어와 표현을 찾아낼수 있다.》

혁명일화

새해의 환희

주체100(2011)년 1월 1일이였다.

김일성조선의 위대한 100년사를 빛나게 장식하게 될 뜻깊은 새해를 맞는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새해를 맞으며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삼가 올리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더우신 눈길로 일군들을 한사람한사람 바라보시며 새해를 축하한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축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새해에도 그이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벽찬 투쟁을 앞장에서 밀고나갈 만만한 투지와 열정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믿음어린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시다가 오늘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보니 감회가 깊어진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실 때에는 수령님을 믿고 혁명을 하였지만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다음에는 인민군대를 믿고 혁명을 하였다. 나는 수령님을 잃은 그해 마지막날 밤을 뜬눈으로 새우며 새해를 맞는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한마음한 뜻으로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는 서한을 보내고 결연히 선군장정의 길에 올랐다....

새해의 첫아침 깊은 추억의 세계에 잠기신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녀리에는 피눈물의 언덕에서 오늘에 이르는 시련에 찬 나날들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뜻밖에 대국상을 당하고 비분에 몸부림치는 군대와 인민, 때를 만난듯이 우리 공화국의

《붕괴설》까지 내돌리며 고립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제국주의련합세력,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와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

세계가 조선의 선택에 대하여 초점을 모으고있을 때 눈덮인 다박술초소를 찾으신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노도치며 밀려오는 추억의 파도를 헤치시는듯 잠시 말쑤이 없으시다가 우리가 헤쳐온 선군장정의 길우에는 시련과 난관도 많았고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고 하시면서 회억 깊으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헤쳐온 준엄한 선군장정의 길을 돌이켜보느라면 초도로 들어갈 때의 일이 제일먼저 떠오르군 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날 일이 나는줄 알았다. 파도가 얼마나 세차게 쳤던지 우리가 탄 고속정이 금방 뒤집힐것만 같았다. 우리는 그때 세찬 파도에 배가 너무 뒤흔들려 사진 한장 남기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은 초도의 풍랑길과 같은 사선의 고비들의 련속이었다고, 높고 험한 철령과 오성산의 칼벼랑길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단행한 선군장정의 력사가 력력히 어리여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선군장정의 길에 깃들어있는 만단사연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뜻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생각했다.

이 땅에 년년이 새해가 찾아오지만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회주의붉은기를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일것이라고.

≡ 새해결의 ≡

약동하며 솟구치는 내 조국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자

보다 아름답고 휘황찬란할 김정은시대의 또 한 해가 밝아왔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오르고 래일에 대한 신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 그들떡해진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의 높은 연단에서 울리시던 김정은원수님의 차분하나 힘있는 음성이 지금도 가슴을 광광 울려주고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앞에 엄숙히 다지신 이 맹세, 인민과의 불같은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가기를 우리는 2012년 그해에 눈으로 보고 심장으로 느꼈으며 지난해에는 분출하는 환희속에, 솟구치는 눈물속에 더 절절히 체험하였다.

하늘에서 똑 떨어진듯이 얼마 안되는 사이에 불쑥 솟아오른 희한한 과학자거리며 교육자들의 살림집들,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원수님께서 수십차례 찾고 또 찾으시고 그이의 세심하고 다심한 지도속에 완전무결한 세계적건축물로 솟아오른 인민의 봉사기지들을 보면서 우리의 심장을 친 충격은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아— 아— 우리의 김정은동지는 이런분이시였구나....

막강한 정치실력과 뜨거운 정으로 인민의 마음을 단숨에 그려잡으신분, 세계를 굽어보시는 출중한 담력과 실력으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도 도약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그 무엇인들 못 이루어내랴!

지난해에 나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가서 우리 인민이 어떤분을 령도자로 모셨는가에 대해 다시금 뜨거이 절감하게 되었다.

원수님께서 직접 오르신 해발 1360여메터의 대화봉정점까지의 굽이굽이 령길을 밟으며 나는 그이의 심중을 다시한번 더듬어보았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들고 불과 몇달사이에 여기 깊은 산중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의 피와 땀을 바쳐 번듯한 스키주로들을 닦아놓은 인민군전사들의 애국심을 헤아려보시는 그이의 심중은 애틋하고 뜨거우셨으리라.

이런 인민군전사들과 인민의 애국심을 더욱 분출시킨다면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도 어렵지 않게 이룰것이라고 생각하시며 그이께서는 몸소 《마식령속도》창조어로 부르는 호소문을 한자한자 쓰셨으리라....

이런 생각은 대규모축산기지로 건설되는 세포동관을 밟으면서 또한 더 굳어지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의 목격자, 체험자이며 참전자이다.

이 시대의 변혁이 어떻게 마련되고있는가를, 우리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일하였는가를 후세에 남길 사명이 바로 우리 작가들에게 지워져있다.

더없이 뜨겁고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201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약동하는 젊음으로 솟구치는 조국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시대의 전진에 발걸음을 맞추려는 결의를 더 굳게 다지게 된다.

4.15문학창작단 작가 김 영 희

당의 의도에 맞는 작품을

지금 시간은 2013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이다.

이제 얼마후면 2014년 새해가 시작된다.

나는 이밤 잠들수 없어 책상과 마주앉았다.

깊어가는 밤처럼 생각도 깊어진다.

지난해에도 나는 이렇게 책상앞에 앉아 새해의 창작계획을 설계하였다.

전망은 방대하게, 목표는 더 높게, 실천은 대담

하게!

그러나 이 시각 나의 마음은 한해의 농사를 결속한 농민의 심정이랄가, 한학년의 성적증을 받아친 학생의 마음이랄가.

자책으로 깊어지는 밤이다.

말하자면 한해의 농사를 잘 지은 농민의 흐뭇한 마음과 학생시절 최우등의 성적증을 받아안았을 때

≡ 새해결의 ≡

의 그 기쁨이 아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언제 어디서나 당의 사상과 의도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2013년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로 조국청사에 세인을 경탄시킨 경이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조선의 군력을 온 세상에 떨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그리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모습을 보여준 공화국창건 65돐 경축광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찾으신 서해섬초소들과 오성산초소.

그리고 세계최상급의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건설장.

이 감동적인 화폭들은 그대로 옮겨놓아도 후손만대에 전해질 명시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 벅찬 현실을 격조높이 노래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시대의 복판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시대와 현실의 관망자로 되였기때문이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2014년, 그러만 보아도 가슴벅차다.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질 조국의 현실,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희망찬 해.

《조국찬가》를 높이 부르며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가는 천만군민의 모습이 눈앞에 환히 펼쳐진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령제》 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다.

나는 년초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동봉협동농장에 려장을 풀고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땅냄새, 난알향기가 풍기는 작품을 창작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펼쳐나선 농민들을 고무추동하는 작품을 쓰겠다.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위원회 위원장 주명옥

신들메를 든듯히 조이고

새해를 맞고보니 지나온 한해가 돌이켜져 마음이 무겁다. 아니, 죄스럽다.

얼마나 격동적인 한해였던가.

얼마나 들끓는 한해였던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해 온 나라가 달려온 지난해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그 모든 세계적인 창조물들을 1년도 아니고 몇달 사이에 건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퍼주신 《마식령속도》의 불길높이 그야말로 빛속도로 달려온 그 한해에 작가인 나는 무엇을 하였던가. 기적과 변혁의 창조자들, 그들과 함께.

나는 조용한 창작실에만 불박혀있었다는것을 자인한다.

그러나 시대를 호흡하지 못한 심장에서 어떤 글이 나왔겠는가는 명백하다.

새해 2014년에는 잡도리부터 든듯히 하겠다.

새해에 조국은 더 빨리 달릴것이다.

더 높이 비약할것이다.

뒤떨어지지 말자. 신들메를 든듯히 조이고 전진하는 대오의 기발이 되자...

새해에는 무엇보다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정신을 반영한 짧고 기동적인 글을 많이 써서 잡지와 신문에 발표할 결심이다.

이와 함께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보여준 애젊은 청년영웅, 공화국영웅을 원형으로 하는 중편소설창작을 상반기안으로 끝내겠다는것을 결의한다.

이 새해를 마감하는 그날에는 마음이 무겁지 않고,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게 한해의 하루하루를 헛되지 보내지 않으리라.

아마 이것은 나 하나만이 아닌 우리 소설가들모두의 의지이고 결심일것이다.

인민이 온 심혼을 바쳐 사랑하고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은 실력과 실적으로 받들어갈 충정의 마음일것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가 리준호

높은 실력으로 문학운동을 선도하겠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기적과 위훈을 새겨온 승리와 영광의 한해였던 2013년이 흐르고 새해가 밝아왔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볼수록 이 땅에 이룩된 자랑찬 변혁이 꿈만 같고 걸어갈 새해의 자욱자욱에 수놓아질 세기의 기적이 참으로 눈부시다.

새해의 이 아침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천만군민의 활화산같은 격정의 웨침은 우리의 붓에 뜨거운 열정으로 굽이치고 그이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령도로 또다시 세계를 놀래울 자랑찬 창조물들의 눈부신 기적이 붓대를 틀어쥔 우리의 심장을 뉘뉘게 하고있다.

걸어온 자욱자욱 빛나는 자욱들이 우리 작가들에게 새겨주는 불멸의 진리는 무엇인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따라 힘차게, 끝까지 걸으라!

그이의 사상과 신념과 의지를 형상으로 구현하며 그 위대한 심장에 박동을 맞추고 숨결을 따라 세우라!

새해 첫 진군길에 나선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호소하고있다.

작가들의 창작을 힘껏 떠밀어주고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글을 쓰자는것이 새해에 다지는 나의 결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가장 현명한 평론가이다. 인민대중이 평가하지 않는 작품은 좋은 작품으로 될수 없다. 평론에서는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인민의 목소리가 울려나와야 한다.》

작가들의 창작에서 나타난 참신한 시도와 발기를 민감하게 찾아내는 예리한 통찰력, 생활과 작품을 형상으로 파악하는 예술적감각과 형상적환상력, 창작심리와 작품생리에 정통하고 대안까지 찾아주는 높은 실력, 이것이 평론가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꿈은 크고 능력은 모자란다.

관록있는 평론가들의 바통을 이어잡고 무게있는 평론을 써낼수 있도록 자신의 준비가 원숙한가를 세심스럽게 돌이켜보게 된다.

창작년조가 어리다고 자신을 위안하던 때는 지났

고 어린 짝이라고 평론의 미약함을 응당하게 감수하던 타성도 털어버려야 한다.

다시금 자기 사명을 생각하니 어깨가 좁아 근심이고 거목이라고 자처하자니 아지가 초라해 부끄럽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신진평론가들에겐 젊음이라는 활력소가 무진막강한 힘의 원천으로 태동하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대의 명작으로 높이 평가해주신 가요 《조국찬가》의 웅심깊은 형상에서 원수님의 위대하고 숭고한 조국애뿐아니라 가장 심원하고 폭넓은 철학세계, 미학세계를 받아안았다.

우리 평론가들은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 21세기 문명개화기건설에서 당의 문예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하고 적극 선전하며 철저히 관철하는것으로써 우리 식 평론의 기본특징을 살리며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형상방도를 탐구하여 그 선도적역할을 비상히 강화하는것으로써 우리 식 평론의 특성을 살려나가겠다.

작가와 작품을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는 립장에서 높은 정치적식견과 예리한 안목으로 편향을 바로잡는 키잡이역할을 다하며 확고한 주견과 배심으로 미학적주장이 뚜렷한 글을 써내는 대담성을 살려나가겠다.

하나부터 열, 백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남들처럼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월등하게 창조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미학사상과 창조방식을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며 평론의 형식과 문체를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데로 깊은 사색과 탐구를 지향시켜나가겠다.

평론이 작가들과 인민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자면 정확하고 예리한 안목으로 알기 쉽게, 친근하게 써야 하며 생활과 형상, 현실과 작품을 자연스럽게 밀착시켜야 한다.

뜨거운 심장과 높은 실력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명작창작을 선도해나갈 불같은 일념으로 새해의 첫 진군길을 힘차게 내짚는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명작들에 나의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가 권선철

우리는 백두산혈통밖에 모른다

류 동 호

피가 끓어 용솨는 심장을 움켜쥐고
우리는 왜
백두산혈통!
이 말을 다시 새겨보는가

새겨보면
이것은 한갓 말이 아니다
피흘려 찾은 조국앞에서
오늘의 준엄한 혁명앞에서
이 나라 인민이
목숨처럼 안고사는 이 말은
단 하나뿐인 조선의 운명!

그것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조국도 없음을
가슴 사무치도록 절감한 이 나라 인민
오늘 다시금 이 진리를
피속에 새겨안는다

저 하늘의 못별들을 다 합쳐도
태양을 대신할수 없듯
사상도 정도도
덕망도 담력도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우리 원수님만이 이으실수 있는
백두산혈통!

고난의 눈보라가 아무리 사나웠어도
해빛은 가리우지 못했고
시련의 폭풍이 아무리 몰아쳤어도
백두의 혈통은 흐리우지 못했거니

백두산의 풀뿌리맛을 알고
백두산의 생 눈을 씹어본 사람
이 산을 등진적 없다
백두산혈통의 덕에 사는 인민
백두산의 피줄기를 잃고서는 못산다

말해보라
민심의 기반에 뿌리내린

이 혈통을 누가 감히 다칠수 있다더냐
천심의 하늘가에 떠받들린
태양의 빛발을 누가 가리울수 있다더냐

김정은동지는
단결의 유일중심 평도의 유일중심
한줌도 못되는 좀벌레들이
아무리 쏘라닥거리려도
천만군민의 억척의 신념은
절대로 흔들수 없나니

오늘의 백두산은
우리의 김정은장군
태양의 그 품을 떠나면
인민이 죽고
조선의 명줄이 끊어진다

보라 억척불변의 그 진리로
서리발치는 결사옹위의 총대를 보라
천겹만겹 성새로 더 높이 치솟는
일심단결의 애גע성을 보라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피줄기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생명선
백두산혈통 오, 태양의 혈통
이 혈통을 따라 혁명은 승승장구하고
이 혈통을 지켜 이 땅에 천만복이 꽃피나거니

오, 두팔벌려 안아보는
삼천리강토여
둘러둘러 그 한끝까지 내어뻗친
이 나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기세찬 뿌리여

이 땅에 높이 솟은 백두산앞에서
이 나라 인민은
만대에 이어갈 선군조선의 의지를 웨친다
우리는 백두산혈통밖에 모른다!
오직 한분 김정은장군밖에 모른다!

신념의 노래

박 경 심

나의 마음속에 심장속에
언제나 그이가 계시여라
우리의 삶과 미래
운명의 전부를 다 맡기고사는
우리 원수님

그처럼 듣고싶던 수령님 음성
이 가슴에 다시 들려주신분
그처럼 그리웁던 장군님 모습
눈부신 햇빛처럼 안고오신분

품어주시는 사랑 펼치시는 그 뜻
그처럼 따뜻하고 위대해
아, 한순간에 우리를 다 밝히는 태양처럼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으신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이가 아니시면 그 누가
머나먼 외진 섬 한끝까지
세상에 없는 정의 바다길
병사들앞에 열어주시랴

그이가 아니시면 그 누가
현신의 낮과 밤 바치고 또 바쳐
인민이 락을 누릴 희한한 창조물들로
행복의 무릉도원 펼쳐주시랴

그이의 심장속엔 오직 인민이 있고
인민의 마음속엔 언제나 그이만 계시거니
인민의 기쁨중에도 가장 큰 기쁨은
원수님 베푸는 기쁨
그 영광의 한순간에 두고 살지 않던가
한생의 행운도 눈부신 성공도...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를

여직 한번도 믿은적 없건만
하늘이 낸 대원수님들과 더불어
우리 원수님을 태양이라 부른다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라 부른다

이 심장의 부름은
이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으리니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인민의 부름
오직 우리 원수님께서 지니시였다

그이가 이끄시여
나라의 모든 일 잘되고
그이가 돌보시여
인민의 집집엔 사랑과 정 넘치거니
그이께 매혹된 천만의 심장
이것이 원수들이 체일 무서워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여라

오직 한분 원수님만 믿고 따르는
인민의 한마음 인민의 신념
수천길 지하막장 암벽속에서도
가슴속 가득히 안고사는 빛이여라
광란하는 날바다파도우에서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조차
목메여 전사가 남기고가는 부름이여라

아, 이 나라 아들딸들이
목숨은 버려도 결코 버릴수 없는
제1의 생명 전사의 신념
나는 이 하나의 신념으로
혁명앞에 숨쉬며 살련다
이 신념의 한생을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고이 엮고 살련다!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리라

장 명 길

이 가슴에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는다
감히 우리 당에 도전해나선
한줌도 못되는 종파놈들에게

혁명은 준엄한 철추를 내렸다
더더욱 순결해지고
천백배로 억세어진 일심단결의 대오

오직 한분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천만심장의 웨침
—그이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리라!

위대한 김정은동지!
그이는 인민의 심장이
대번에 매혹되어 온녘으로 따르는분
그이 마음속 무한대한 사랑의 바다에
인민은 안기였노라

더 말해 무엇하랴
혁명을 떠메고나서신 걸음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사려깊이 보살피시니
우리 수령님 다시 오신것만 같아
우리 장군님 다시 뵈온것만 같아
목이 메여 이 나라 아들딸 천만이 안긴 품

따르노라
초소의 병사들과
굳게 어깨걸고 팔을 끼고
전우의 정을 나누시는 강철의 령장을
이 나라 천만대오를 이끄시는 손길을

우리 따르노라
당을 따라 만난시련 이겨낸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시려
생ন길을 헤쳐가시는 그이의 발걸음을
인민의 모든 꿈 꽃피워주시는 우리 아버이를

아, 우리 혁명의 유일중심
위대한 인간의 심장에 끌려
천만이 피줄잇고 따르는 이 믿음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억척불변의 철갑이 되었다

어느 누가 감히 빼앗을수 있더냐
피어린 백두에 한줄 흠이 될지언정
령도자를 따르는 길 끝까지 걸어온
혁명선렬들의 그 빛나는 영생이 비낀
인민의 마음을

변함없이 가리라
시련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하늘땅이 열백번 바뀔대도
우리 삶의 따사론 태양
오직 한분 김정은동지만을
그이와 맺은 정 변함없이 안고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리라

바다! 사랑의 바다

권 오 준

백사장의 웃음소리
바다가의 일만경치
여기에 모두 펼쳐졌다
문수물놀이장이여
여기선 희한하다는 말도 무색해지는구나

여기서 바다는
산넘어 들넘어 머나먼 곳에 있건만
바다물이 출렁이는 물놀이장
바다물이 쏟아지는 물미끄럼대
바다가 평양으로 옮겨온듯

파도수조에 몸을 맡기니
바다가 해수욕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 타니
나이를 잊고 아이가 된듯

동서해가 눈아래구나

몸은 웃음바다를 헤쳐도
마음속엔 뜨거운 사랑의 바다
밀려오는 파도에 어려오누나
해가 지지 않는 바다를 주시려
무더운 낮에 건설장을 찾으시고
해돋이 바다를 주시려
이른 새벽에 찾아주신 원수님의 그 모습

채광창우엔 흰눈이 쌓였어도
채광창아래엔 사철 푸른 바다
아버이수령님의 념원
아버이장군님의 리상을
행복의 바다로 펼친 문수물놀이장은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사랑의 바다여라

원수별의 서정으로 충만된 불패의 《전함》에 대한 시형상

—시초 《원수별 빛나는 섬에서》에 대하여—

김 순 립

최근 우리 시인들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 군대와 인민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하여 시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적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시가문학일반이 그러하듯이 시초 역시 우리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을 뚜렷이 하는 직관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보다는 시적대상과 노래의 다양성이 우리 현실속에 너무도 팽배하게 굵아치고있는 사정파도 관련된다.

시는 오늘의 시대정신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미감에 맞는 노래로 되어 우리 당의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의 기치로 높이 울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시인의 위치와 사명, 본분에 대한 명제에 기초하여 우리 시문학은 시대의 선도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더욱 활기있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 혁신적인 면모의 일단을 시초 《원수별 빛나는 섬에서》를 통하여 되새겨보려고 한다.

원수별의 서정, 사랑의 철학

시초《원수별 빛나는 섬에서》에 고페치는 원수별의 서정은 사랑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시초에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은 통일적인 시적정서와 주장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정서적주장과 사상적핵에 의하여 서정이 종합일반화되어야 하며 매개 시편들은 여기에 복종되면서 자기가 발견한 시적종자를 꽃피우며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시 《우리의 원수별》(류동호 작)은 시초의 첫 시이다. 대체로 시초에서 첫 시는 시초전반의 정서와 시적분위기, 그 지향점을 일반화하여 서정을 펼치며 시초의 총적지향을 예감하게 한다.

그 해빛 종일토록 품에 안고
낮이나 밤이나 그이만을 그리며 사는 섬
불타는 정의 바다 사랑의 세계에
쫓는 해는 있어도 지는 해는 없어라
해님떠나 흐르는 세월은 여기 없어라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조국수호의 최전방인 여기 서해의 외진 섬에서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르며 병사들의 가슴속에 쫓는 해는 파도소리만이 들려오는 이 섬에서 실로 생각깊이 쫓는 해였던 것이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은 목선에 오르시여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오셨을 때 병사들의 마음속에 높이도 솟아 영원히 질줄 모르는 우리의 해님이였다.

첫시에서 제시된 이러한 정서는 시 《사랑의 힘》(차영도 작)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띠고 철학적인 형상으로 심화되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정과 사랑을 다해 기슭이 닳도록 품안고 계시는 섬, 그토록 험한 배길을 오시여 섬의 병사들을 불같이 뜨거운 손으로 껴안아주신 그이의 품, 그 품을 숨이 붙어선 놓을수 없어 단 하나뿐인 심장을 그이께 내어맡긴 병사들이다.

시는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의 상봉을 선명한 회화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그 무엇으로써도 가를수 없고 떼어낼수 없는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의 혼연일체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적으로 깊이있게 파고들면서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것을 여운있게 노래하고있다.

자나깨나 그이만을 우러르며
스스로가 말없이
월미도영웅들의 그 불사신의 모습결에
자기를 세워보는 병사들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단 하나뿐인 심장을 맡긴 우리 병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못 견딜 그리움 사무칠 때면
더더욱 젖어드는 가슴 움켜쥐고

싸우는 월미도의 불타는 모래불을
열백번도 더 밝아보는 병사들이다

지도우의 망망대해에 하나의 점으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이 섬에서 어떻게 세인을 놀래우고 인류전쟁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런 불사조의 형상이 태어날수 있으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시는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며 그것은 다만 한마디 《원수님의 사랑의 힘이라고 말하고싶다/이 말을 삼가 비에 새겨 생각깊은 이 섬에 세우고싶다》고 주정을 터치고있다.

그렇다, 시인은 자기의 시적탐구와 사색, 발견적인 계기의 주정화로 서정의 비를 세워놓았다. 그것은 사랑의 철학이다.

시적대상에 대한 사색깊은 탐구, 현실을 그려내고 자기의 주정으로 노래하려는 지향에 대한 깊이 있는 몸부림, 하면서도 회화성을 띤 시적묘사의 재기, 강한 여운을 주는 절구 등은 이 시가 사랑의 철학을 더 새롭고 의미있게 밝힌 사색깊은 시로 되게 하였다.

이렇게 시초 《원수별 빛나는 섬에서》는 사랑의 철학이 뿜어져나오는 서정으로 채색되기 시작하였다.

운명적인 체험속에서 발견한 시적계기

운명적인 체험, 그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와 관련되는 느낌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하여 절박하게 느끼는 체험의 가장 심각하고 심오한 경지를 의미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운명선상에서 운명적으로 체험한다는것은 오직 경애하는 그이만이 김일성민족,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부강번영하게 할수 있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삶을 지키고 빛내여주실수 있으며 그이의 품을 떠나 우리 인민은 결코 인간답게, 보람차게, 행복하게 살수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통감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사상과 령도력, 인덕의 위대함에 대한 시인의 체험이 이처럼 운명적인 경지로 이룰 때 그것은 충정의 열정을 끝없이 불태워주는 거대한 동력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정체험을 운명적으로 심화시키지 않고서는 그이를 따르는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억척같은 신념으로,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 심장을 터칠수 없다. 시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성을 인민의 운명을 대변한 자신의 운명선상에서 절절하게 체험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만이 기발한 시적발견도, 극적인 시적세부도 찾아낼수 있고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뜨겁게 노래할수 있다.

같은 대상도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을 일으키며 그에 대한 체험정도도 서로 다르다. 현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감정의 성질과 체험정도는 시인의 미학적서적준비정도에 달려있다.

시초에 들어있는 시 《밤파도소리》(장명길 작)와 《차렷!》(김남호 작)은 시대의 지향과념원을 반영하는 시창작에서 합법칙성을 띠고있는 이러한 요구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시인은 섬초소에서 언제나 들려오는 밤파도소리에서 시적계기를 잡았다.

달빛도 고요히 비껴내리는 섬초소의 정적 깊은 밤
유정히 들려오는 밤파도소리에 우리 병사들은
어찌하여 잠 못이루는것인가.

다시는 오시지 말아달라고
눈물을 뿌리며 아뢰였건만
왜서인지 이밤의 파도소리
사무치는 그리움만 더해주네
밤파도소리 밤파도소리...

이밤도 그 어느 험한 령 넘으시는지
머나먼 그 길에 안녕하신지
병사들의 그 마음 알아서인가
무심한 파도마저 생각깊이 잠 못드네
밤파도소리 밤파도소리...

시는 시적체험의 산물이며 체험은 시를 탄생시키는 근본바탕이다.

시인은 운명선에서의 깊은 체험속에서 운명적인 시적계기를 포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온 병사들이 잠 못드는 그 사연깊은 밤을 시적계기로 잡고 원수님을 그리는 병사들의 간절한 마음을 파도소리에 실어 뜨거우면서도 정서깊게 노래하였다. 이 시의 특징은 밤파도소리에 비껴 다시는 오시지 말아달라고 아뢰인 병사들의 심정과 꿈에서도 뵈고싶어 하루에도 열백번 마음 건너지는 저 바다, 원수님께 달려가는 병사들의 그리움을 강한 극적대조속에서 서정을 펼치고있는것이다. 적들이 코앞에 있는 이 위험한 섬에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뜨겁게 아뢰는 병사의 심정과 하면서도 원수님을 못 건디게 그리워 열백번 저 바다를 마음속으로 건너보는 그리움의 정을 강하게 대조시킴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창창한 미래로 억척같이 간직하고있는 우리 군대의 사상감정을 강렬하면서도 극성이 있게 서정화한것이다.

이러한 형상은 시인이 운명적인 체험을 깊이하고 탐구적사색을 거듭한 끝에 발견한 기발한 시적계기에서 펼쳐진 회화적인 화폭인것이다.

이 시에서 밤파도소리를 서정을 운반하는 기본형상수단으로 하고 파도와와 교감체계속에서 때 런마다 밤파도소리를 유정하게 실어 시의 운물성을 살

리고 우리 병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개방한것은 우리 시인들에게 많은 창작적시사를 주는 좋은 실례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는 시인의 주관적욕망이나 생경한 논리의 주입이 없이 가장 평범하고 일반화된 문체로 시의 구성을 정연하게 조직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줄수 있게 형상된것이 더욱 좋다고 본다.

시 《차렷!》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순간도 떨어지기 아쉬워 원수님께서 타신 목선이 바다우를 떠날 때 차디찬 물속에 뛰어들어 배를 따르는 병사들을 생각하시어 부대장에게 차렷구령을 내릴것을 명령하신다.

크나큰 격정이 부대장의 가슴을 찼다
원수님 타신 배를 두어개로 떠밀며
천리만리 웅위해가고싶은 저 가슴들에
아, 그이와 떨어저선 순간도 살수 없는
저 병사들에게 차렷구령을 내려야 하는가

부대장의 심중에는 강한 정서적파동이 일어난다. ... 뜨거운 눈물 삼키며 또다시 차디찬 바다물속에 뛰어들가봐 원수님께서 차렷구령을 내리라고 명령하신다. 군기앞에 선서다진 그날부터 목숨걸고 지켜온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었다. 눈물을 머금으며 대렬은 정돈하고 원수님 타신 배가 기슭을 떠날 때 구령을 내린 부대장도 병사들도 목이 메어 원수님을 부르며 차디찬 바다물속에 뛰어들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의 명령앞에 병사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심장, 원수님과 피줄로 이어진 혈육의 심장을 내댄것이다. ...

얼마나 극성이 강한 정서적화폭인가.

다음으로 시 《섬초소의 새 동네》(박경심 작)는 섬초소에서만이 있을수 있는 새로운 정서와 생신한 시적느낌을 잘 보여주었다. 시인은 매우 평범한것 같으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현실을 생동한 시적체험과 미학적탐구로 승리를 확신하는 강철의 령장만이 최대의 열점지역인 최전방 섬초소에 바다의 무릉도원을 펼쳐줄수 있었다고 확신하였다.

우리의 항명이네들이 고운 꿈 꽃피우며
총대처럼 굳세게 자라는 집
서남전선 끝점에 장재도는 있어도
끝도 기슭도 없는 사랑의 품 첫자리
아,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
섬초소의 새 동네는 솟아있구나!

이처럼 시는 독자들의 마음의 금선을 강하게 울려준다.

이러한 시형상 역시 운명적인 체험의 산이라고 강조하고싶다.

시적환상은 나래친다

시 《화선의 기념사진》(문용철 작)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겨주신 기념사진이 가지는 의미를 시인의 고유한 느낌으로 예리하게 탐구분석하여 통일삼천리를 안아보는 병사들의 사상감정을 높은 시적환상으로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작품은 시인의 높은 환상과 시적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서정적분석으로 정서적주장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여기에 시적발견이 있다.

이 시에서 력사적사실의 이야기는 1련과 2련밖에 없다. 그 다음련부터는 극성이 총만된 시적환상으로 펼쳐지는 서정세계로 일관되고 시인의 주정만이 굽어치고있다. 시에서 시인의 주관적호소나 독자들에게 주입시키려는 개념적인 구호는 찾아볼수 없다. 흔히 사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는 시들에서 사적의 의의를 털거하고는 그에 대한 해설과 시인이 노리는 주관적의도를 로출시키는것이 하나의 도식처럼 되어있었는데 시 《화선의 기념사진》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매우 교훈적인 창작적시사를 준다고 본다.

여기에서 시인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력사적사실을 충분한 시적환상으로 펼쳐 강한 주정토로와 함께 사상정서적지향을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오, 화선의 기념사진
서남전선용사들의 가슴속에
백두의 령장 새겨주신
삼천리강토였다
통일된 조국이였다

작가의 시적환상에 의하여 도출된 시의 마지막련에 이 시가 지향하고 바라는 사상정서적주장이 응축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만일 이 시에서 이러한 결구를 산생시키기 위한 정서적단계가 없었더라면 이것은 시인의 서툰 주관의 로출로밖에 달리될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시는 위인의 심중의 세계에 시인의 사색이 접근했으며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받아안은 불타는 전투적정신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충분한 시적표현과 극적인 환상으로 정서적전제를 주었기때문에 결구의 주장에 무리가 없이 공감이가는것이다.

시인의 시적환상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적진을 가리키실 때 연평도를 꿰질러 남해로 뻗어가고있으며 조국통일대전의 첫 과녁인 연평도를 남녘해방의 첫 징검돌로, 내 조국의 최남단 제주도기슭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을 최후의 승리의 그날 병사들의 가슴에 통일된 조국으로 새겨지리라는 시적발견을 도출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에 새긴 병사들의 내면세계에 파도치는 정서의 물결을 채치

있게 포착하고 시적환상을 펼쳐 랑만적형상을 창조한 여기에 시인의 탐구적노력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시적환상을 대담하게 내려치게 하여 시대의 서정을 창조하자. 이것은 시 《화선의 기념사진》을 보고 새삼스럽게 호소하고싶은 필자의 소견이다.

시적환상은 시 《영웅포는 불을 안았다》(백의선 작)에서 더욱 풍만하게 내려쳐 《전쟁후 반세기가 더 흘러/연평도를 짓밟개버린 정의의 불/원수들 휘몰아오는 불구름앞에/어찌 복수의 불이 식을 수 있으랴》고 절절히 웨치며 그날의 포병들이 너무도 장해 먼길을 오시여 무도의 포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장의 열을 담아 금별을 달아주셨다는 발견적인 시적세부를 환상의 연원으로 하고있다.

그 열이 끓는다 쉬임없이 끓는다
원수들 우리 바다의 물 한방울이라도 튕기면
통일성전의 신호포성 울리려
포탄도 사상도 만장약한 영웅포
그 불이, 그 불이 용암마냥 끓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장의 열을 담아 금별을 달아주셨기에 영웅포는 식지 않았다는 이 귀중한 시적환상이 이 시의 핵이라고 말할수 있으리라.

그렇다, 우리의 영웅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피끓는 심장의 열도로 끓어번져 조국통일대전의 승리의 그날까지 영원히 식지 않으리라라는것이 시적환상이 풍기는 여운이며 신념이고 의지이다.

시초 《원수별 빛나는 섬에서》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의 빛발아래 사랑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의 철학이 섬초소와 사람들의 심장에 공기처럼, 피줄처럼 흘러들어 이제는 사상과 신념과 의지로 만장약된 불패의 위력을 지녔거니, 그러면 시초의 맺음시 《불침의 〈전함〉 이어 앞으로》(김만영 작)를 놓고 다시금 되새겨보자.

우리 원수님 불과 불이 맞부딪쳐
대기마저 달아오른 이곳으로
작은 목선을 타고오시여

세상에서 제일 큰 무적의 함선을
이 나라의 서해전선에 띄우셨나니

걱정에 울고 우는
병사들의 심장에 안겨주신
그 사랑과 신념을 만장약한 《전함》
병사들의 가슴에 날개를 달아주신
그 용맹과 투지로 철갑을 두르고
최후승리결전장에 나신 《전함》

그 어떤 원수가 감히 이 불침의 《전함》, 이 섬에서 한조각의 바위라도 뜯어낼수 있으랴, 시인은 분렬된 이 나라의 바다우에 비록 작은 섬으로 솟아있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셨기에 세상이 다 아는 섬으로 빛을 뿌리게 된 것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우리는 시 《불침의 〈전함〉 이어 앞으로》의 매시련들을 다시금 새겨안으며 가슴벅찬 걱정과 신념과 휘황한 미래를 뜨겁게 새겨안는다. 이것이 바로 시초가 뿜어주는 사상정서적, 미학적주장이다.

×

시초 《원수별 빛나는 섬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뚜렷이 새겨진 불멸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간직하며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모습은 우리 시인들의 노래와 함께 시대의 기치로 세차게 나뭇길짓이라는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모범적인 작품이다.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

이 말은 리상숙의 시인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현실속의 우리 시인들에 대한 호칭으로 되어야 한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며 그 위력을 떨치기 위한 오늘의 격동적인 투쟁속에서 신념과 의지와 랑만으로 충만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체험하고 심장으로 노래할 때 시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다운 전우, 시대의 가수로 될것이다.





하모니카

림 봉 철

1

섬에는 《하모니카》가 두채 있었다.

기와장들을 벌각벌각 날려버리며 저돌스럽게 불어치는 바람때문에 늘 옥을 보다가 어느 하루 세대 주들끼리 합의를 보고 롱마루들을 활 벗겨버린 다음부터는 평판을 쳐놓은 집모양새가 걸보기에도 정말 하모니카를 방불케 했다.

섬허리의 약간 옷쪽에 자리잡은것이 1동 4세대짜리 선동이고 그보다 좀 아래쪽에 있는것이 1동 3세대짜리 후동이였다.

병사들은 여기에 좀더 재미나는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선동의 첫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가면서 《도레미화솔라씨》하고 음계를 붙여준것이였다.

그에 따르면 리은옥의 집은 《화》집에 해당되였다.

망망대해로부터 끝없이, 섬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등지고 뚝뚝하게 흘러내린 섬의 동쪽기슭에 자리잡은 이 두채의 집들은 이제나저제나 찾아올 그 누구를 기다리는듯 멀리 보이지 않는 넓은 땅을 향하여 하염없이 서있었다.

처녀시절 재봉공으로 일하던 리은옥이 남편을 처음 만난것은 벌써 두해전의 일이였다. 갓 피복공급을 받은듯 털이 보르르한 모직외투를 꺼꾸이 차려입고, 분명 쇠덩이처럼 단단한 근육이 자리잡고있을 어깨우에 소성 두알이 꼭꼭 박힌 넙적견장을 올려놓은 젊은 군관이 앞에 나타났을 때 벌써 그의 운명은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와 이어진듯 했다.

섬?! 그게 도대체 두렵지 않았다.

등대도 있겠고 분교도 있겠고... 갈매기들이 알을 낳은 풀덩굴우를 빙빙 선회하며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새하얀 기선들이 이에 화답하듯 봉

봉— 고동소리를 울리며 떠가는 풍경이 눈앞에 선히 흘러갔다. 그것은 그가 소설책과 영화, 확보 등에서 보고들은 섬에 대한 표상의 아름다운 총체였다.

그들은 따뜻한 봄계절에 결혼을 하였다.

집을 떠나기 앞서 은옥은 남편 정수학과 함께 읍 거리를 돌아보러 나갔다. 읍이라야 군도서관앞에 세거리가 하나 지나갔을뿐인 자그마한 촌거리였다. 그러나 꿈속에서라도 그려낼수 있는 태어나 스물여섯해를 밟아온 정든 고향길이었다.

《저 참대를 새겨넣은 5층짜리 살림집뒤에 내가 다닌 유치원이 있어요. 그리구 저—어 빨간 2층벽돌집이 보이지요? 그건 내가 다닌 소학교인데 운동장 한켠에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전쟁때 술한 사람들을 폭격속에서 살려낸 영웅 나무라나요.

저 고개를 넘어가면 자그마한 저수지가 있는데 겨울이면 우린 거기에서 스케트경기를 하군 했어요.》

이날 은옥은 별스레 말이 많았다.

참대무늬를 새겨넣은 살림집, 큰 은행나무가 서있는 학교, 스케트경기가 벌어지는 저수지가 오직 자기 고향에만 있는듯...

그날 책방에 들러 자그마한 지도책도 하나 샀다.

그리고 군문화회관앞 소공원에 앉아 남편에게 물었다.

《그 재도가 어디 있나요? 난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요.》

《섬이 작아서 지도에는 이름이 표기되지 않았을거요.》

정수학의 뚱투룩한 손이 까불까불한 해안선을 따라 쪽 내려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멈춰섰다.

거기에는 깨알보다도 작은 점이 꼭 찍혀있었다.
《아유, 깜찍해라. 이렇게 작아요? 이옆의 섬은
요?》

《대도라고 우리 이웃이요.》

《그럼 이 큰 섬은요?》

《거기? 거긴 적들이 있소.》

책장우에 박혀있던 은옥의 손이 저도 모르게 가
무러졌다.

(적?! 이렇게 가까이에 있단 말이야? 하긴 지도
라는건 몇만배씩 축척해서 만드니까 실지는 보이지
도 않을거야.)

이틀후 조출한 살림도구들을 바다가양식사업소
의 목선에 싣고 섬으로 들어올 때 정수학은 이렇
게 말하였다.

《섬생활이 고독하다는건 다 거짓말이요. 섬은
말이요, 에...》

말귀가 잘 이어지지 않는듯 공공거리던 그는 마
침내 주먹으로 손바닥을 꼭 내리찍으며 《그건 격
동이요!》라고 하였다.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운달산아래 어느 독립초소
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섬으로 조동된 그는
은옥이 제일 싫어하던 《부》자가 달린 직무를 가
지고있었다. 재도방어중대 부중대장...

늦은봄과 초여름에 이곳 수역에서 흔히 볼수 있
다는 평흐름안개가 걷히자 물론우에 가물거리는 섬
의 형체들이 나타났다.

적들이 등지를 틀고있다는 연평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와보이는 반면에 작은 새등지를 얻어놓은
듯 한 재도의 룬팍은 멀리 파도에 실려 자꾸만 흔
들거렸다.

《이보게, 여기 물길이 그리 너그럽지 못하다
네.》

선장아바이가 조타실피창너머로 걱정해주는 말
이었다.

《예, 알겠습니다.》하고 흔쾌하게 대답한 정수
학은 선미쪽에 쌓아놓은 바줄통구리우에 걸터앉을
십산으로 돌아서다가 피창안을 기웃하였다.

《참, 아들이가 군대에 나간다더니요?》

《갔지, 보름 됐네.》

《그래요? 빨간걸 달았습니까?》

《응, 한테 그것만 보구서야 어디 알겠나. 자네
들도 빨간령장을 달았지만 배사람들처럼 늘 물우
에 떠서 사는걸.》

그러자 정수학은 인사치레로 지나가려던 조타실
문앞에 아주 멎어서고말았다. 군데군데 고기비늘이
말라붙어있는 조타실의 크기는 기껏해서 화물자동
차의 운전칸만 해보였다.

《물과 친하는게 언제세요? 바다야 더 좋지
요.》

《아무튼 바다라는건 땅의 끝에 있는거야.》

《땅의 끝이라...》하고 되받으며 선미쪽으로 돌
아온 정수학은 엇가로 멘 전투가방속에서 반짝거리
는 하모니카를 꺼내들었다.

불집을 듬뿍 늘구어 음계를 쭉 내리훑었다.

그가 하모니카를 부는것을 처음 보았을 때 은옥
은 《바다와 하모니카는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했었다.

얼핏 보면 그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소학교 국어학습장의 네모배기줄칸처럼
단조로와보이는 수십쌍의 바람구멍들이 의중계 어
울려 조화로운 선율을 뽑아내는것이 정수학에게는
자못 신비롭게 느껴지는것이였다.

더우기 그 하모니카로 말하면 그의 직계상관인
사단장이 상봉기념으로 준것이였다. 몇해전 섬방어
중대 부중대장으로 임명된 정수학은 사단장이 섬초
소들을 시찰하러 가는 배편으로 재도에 들어오게
되였는데 그때 젊은 장령이 배전에 걸터앉아 하모
니카를 부는것을 참 신기하게 보았었다.

《동문 무슨 악질 다룰줄 아오?》 하고 사단장
이 물었었다.

군사지휘관의 입에서 《무슨 체육을 좋아하오?》
하는 말보다 먼저 악기소리가 튀어나오자 정수학은
《학교때 송구선수로는 뛰여보았는데 악기는 특별
히...》하고 뒤더수기를 굵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배우시오. 난 말이요, 군인
은 조국을 감정으로 지킨다고 생각하오. 뜨겁게 사
랑하라, 무섭게 증오하라!...》

어떻소? 그게 다 병사의 감정과 관련되는 격언
이 아니요?

고향집, 부모형제... 병사는 그것을 옆에 끼고 앉
아있는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채워두고있소. 바로
감정이거던.》

사단장의 말에 몹시 감동된 정수학은 용기를 내
여 그렇다면 이왕 사단장동지가 쓰던 하모니카를
기념으로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사단장은 그 요구는 들어줄수 없
다고 딱 잘라냈다. 한달후에 그는 다른 하모니카를
섬에 보내주었다...

《섬에 다 왔네.》

선장아바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쳐든 정수학은 어
느덧 바다쪽으로 빠져져나온 방파제가 손에 닿을듯
가까와진 섬을 향해 긴 휘파람소리를 휘익 냈다.
그리고는 조척을 세우듯 엄지손가락을 펴들고 섬의
주봉을 겨냥해보이며 은옥에게 설명하였다.

《저 봉우리가 보이오? 잘 보오, 이래봐도 저
기에 우리 섬의 하나밖에 없는 전설이 깃들어있
소.》

기슭에서 매생이를 뒤집어놓고 수리를 하고있던
두명의 군인이 웬 배가 오는가 해서 이쪽을 멎하니
바라보고있었다.

《우리 부업조동무들이구만. 동무들! 박동무!》

그러자 저쪽에서도 남편을 알아본듯 야! 하고 환
성을 지르더니 두손을 저어대며 점병점병 물속으
로 걸어들어왔다.

《어마나! 저러다가...》

은옥이 놀라며 입가에 손을 가져갔지만 정수학은

사뭇 즐거운듯 웃음을 짓고 《우린 손님을 저렇게 맞소.》 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배가 기슭에 닿기도 전에 저 역시 풍덩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이 거의 허리를 쳤지만 그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죽다살아온 사람을 만난것처럼 기뻐서 돌아갔다.

《허허, 색시생각은 벌써 까맣게 잊었군.》

선장아바이가 긴소리를 쳐서야 군인들이 서둘러 풀덤불속에서 사다리를 찾아들고 다가왔다. 서로 다른 나무를 꺾질채 잇대여 만든 사다리에서는 거밋거밋하게 버섯같은것이 돌아나고있었다.

미타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닐세라 세번째인가 네번째 칸살을 내려질는 순간 우지직 하고 사다리가 부러져나갔다.

마침 정수학이 곁에서 받아주었기에 사고는 면했지만 은옥은 첫 상면부터 병사들앞에서 아주 인사 불성이 되고말았다.

(이제 웃겠지? 아이구, 어떻게 머리를 든담.)

간신히 고개를 쳐들었던 은옥은 저보다도 얼굴이 더 붉어져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군인들을 보자 속이 뜨거워왔다.

《이거 하필이면 오늘 딱...》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된것이다보니...》

그런데 이때 정수학은 전혀 다른 걱정을 하고있었다.

그는 동강난 사다리를 이리저리 훑어보며 《이것 참 랑페로군. 섬에 하나밖에 없는 사다리였는데...》 하고 중얼거렸다.

은옥은 물참봉이 된 옷주제를 내려다보며 호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종당엔 어차피 옷을 다 적서야 하는것이 이 섬의 고유한 풍속인지도 몰랐다.

《박동무, 이거 갈아덜만 한 나무가 없지?》

《뭇잡니까, 별로 오는 사람도 없는데...》

돌중 구대원으로 보이는 군인이 데면스럽게 대답하였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올 사람이 있고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요. 이 사다리에는 섬의 마음이 있소. 알겠소? 자재는 내가 구해보겠으니 오늘중으로 수리를 해놓지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몇발자국 걸어가던 정수학이 다시 병사들을 향해 《아참, 이제 수일내로 올 사람이 있소.》 라고 하였다.

남편의 뒤를 따라 파도가 깎아먹은 비탈길에 구두뒤축을 푹푹 묻으며 걸어가던 은옥은 문득 멈춰서서 재봉기머리를 싸안은 보자기에 불을 대이며 섬을 둘러보았다.

직각자의 빗변마냥 밋밋하게 뻗어올라간 비탈면에서는 이름모를 잡풀들만이 엉기여 자라고... 기슭에는 바위와 갈대, 또 그다음 바위... 그뿐이었다. 새하얀 등대도, 학교도 없었다.

늘 턱언저리를 매만지며 철학적사색에 잠겨있는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군의가 이 섬의 《병원》이었

고 물에서 대도로, 대도에서 다시 채도로 오가는 발동선이 《상점》이자 《체신소》였다.

학교가 없는것도 기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군관들이 모두 젊은 중대급지휘관들이여서 아이들이 학령에 이를 때쯤이면 어디로든 조동되어 가기가 통례였던것이다.

다시 몇걸음 걸어가던 은옥이 물었다.

《참, 아까 수일내로 온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 지금 중대장이 결원ियो. 그러니 인차...》

《한데 나한텐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야... 군사비밀이니까.》

하지만 은옥은 섭섭한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었다.

각오한바이지만 군인가족생활이란 의례 그런것 일테니까.

《저게 바로 우리 집ियो. 선동 우측으로부터 첫번째 집... 난 중대부에 들러 도착보고를 하고 오겠으니 당신은 먼저 가있소. 가만, 우리 집에서 연기가 난다?!》

정수학은 머리를 기웃거리면서도 그냥 중대쪽으로 가버렸다.

은옥이 집앞에 이르니 문은 활짝 열려져있고 안에서는 망치질소리가 들려왔다. 짐들을 토방우에 내려놓고 들여다보니 타울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인 사람이 푹푹푹푹 망치질을 하고있었다.

아마 부엌당반을 매는 모양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냐고 묻기도 별나고...

그렇다 한들 낯선 사내가 수고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집안에 혼자 들어가 앉아있기도 별나고... 이래저래 바재이는데 안에서 《거 누구요? 누가 온게 아니요?》 하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하더니 곧 타울수건이 머리를 내밀었다.

참참한 목소리며 췌췌한 눈매며... 첫눈에 보건 대도 어떤 깐깐한 재간을 가지고있을만 하게 생긴 형이었다.

《혹시 우리 부중대장동무의?!...》

《예,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하기에...》

《이런! 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췌췌한 눈이 새물새물 웃었다.

《저야 뭐, 오히려 목수동지가 수고 많았겠는데...》

《목수요?!》

이때 쿵덩쿵덩 발구르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정수학이 나타났다. 은옥이 방금 《목수동지》라고 부른 그 사람의 앞에 서자 그는 익숙된 손동작으로 목단추며 혁띠고리머를 쭉 내리훑더니 발뒤꿈치를 딱 모으며 보고하는것이였다.

《중대장동지, 부중대장 중위 정수학...》

다음순간 그의 눈이 화동잔만 해졌다.

《이게 누구야? <122미리>! 한기동이 아닌가, 응?》

망들썩만난듯 돌아가던 정수학이 은옥을 돌아보았다.

《참, 당신도 인사를 하오. 전사때 122미리방사포에서 나랑 같이 팔매질을 익히던 친구요. 제 팔뚝직경이 포구경과 같다고 허풍을 쳐서 더 유명해졌었지, 하하.》

똑똑한 남편에 비해 펍 재미나는 사람같았다.
(성격은 거꿀맞춤이라는데 서로 손을 맞잡고 일을 해나가면 모든게 잘될거야.) 하고 은옥은 생각하였다.

《가만,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 중대장으로 왔단 말이지?》

《그렇게 됐네. 결에서 많이 도와달라구. 대신…》 하며 한기동중대장은 은옥이쪽을 흘끔 건네다보았다. 《이 집에서 제기되는 일체 묵수일은 내가 다 맡을테니, 어쩐가?》

그 말에 은옥은 그만 얼굴이 고추빛이 되었다.
때마침 여기저기서 달려나온 군인가족들이 은옥을 에워싸는 바람에 따분한 분위기를 다소 모면할 수 있었다. 은옥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옷공장에서 일하였다는것을 알고는 모두가 섬에 하나밖에 없는 재봉공이 왔노라고 기뻐들 하였다.

(참, 하나밖에 없는것이 많기도 하네.) 하고 은옥은 생각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배길, 하나밖에 없는 사다리, 하나밖에 없는 매생이, 하나밖에 없는 우물, 하나밖에 없는 전설…

뭐나 다 귀하고 바른것이 섬생활인가 생각되었다.

그날 밤 은옥은 습관되지 않은 파도소리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은옥이 그러니 결에서 남편까지도 괜히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렸다.

《왜, 무섭소?》

《아니요, 그저 좀…》

공 하고 돌아누웠던 정수학이 다시 상반신을 일으켰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땐 연한 식초물을 타먹으면 좋다던데…》

《그런데 식초가 어데 있어요? 사올데도 없구…》

《사오다니? 여기선 다 나누어먹소. 내 제격 갖다올가?》

《호호… 남들이 알면 웃겠어요.》

그러자 정수학도 베개우에 머리를 툭 뺄구며 곁곁 웃어댔다.

은옥은 살며시 이불깃을 들추고 남편의 몸가까이로 더 깊이 파고들며 조용히 속삭이었다.

《차라리 옛말 하나 해줘요.》

《뭐, 옛말?! 내게 옛말이 있나?》

《거 있잖아요, 우리 섬에 있다는 전설…》

《오참, 그게 있지.》

정수학은 베개우에 또 팔베개를 해서 자세를 높인 다음 동굴속을 흐르는 물소리처럼 웅글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섬의 정수리를 〈선돌꽃〉 이라고 부르는 데…》

선돌꽃이란 말그대로 돌이 서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그곳에 아흔아홉 장정이 드러누울수 있는 큰 너럭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진년의 란이 터지던 그해 칼을 문 왜선들이 바다를 까맣게 덮으며 출범하자 이 너럭바위가 으호웅, 으호웅 태질을 하더니 갑자기 용을 쓰며 일어서기 시작했다는것이다.

온섬을 뿌리채 뽑아올리는듯 한 소리에 날아가던 새들이 죽어떨어지고 이글이글 타번지는 그 돌의 열화에 바다가 끓고 백리 물이 맑았다고 한다.

지금도 배길을 따라 북으로 얼핏 상거하면 본영이라는 지명을 가진 고장이 있는데 거기 바로 리순신장군이 거느린 3도수군의 북쪽경계군영이었다고 한다. 폐전후 제 소굴로 도망치던 왜놈들은 이제 조선을 다시 삼키려면 땅의 선봉이라고 할수 있는 섬기운들부터 말살해버려야 한다면 서 수백군이나 되는 화약을 터쳐 선바위를 무너뜨렸다고 한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그놈들은 기껏해서 바위 하나를 깨버렸지만 오늘은 이 바다에 그런 〈선돌〉 이 몇인가? 수백, 수천이 넘거던. 당신도 한번 올라가보오. 지금은 그 주변에 우리 감시소가 자리잡고있는데… 여보, 자오?》

이따금 은옥은 섬생활에 대하여 《그건 격동이요!》 라고 했던 남편의 말을 생각하였다. 하지만 격동하는것은 오직 바다뿐인가싶었다. 면적이 0.1평방키로메터밖에 되지 않는 섬은 다만 바다의 손바닥우에 놓여진 놀림가마리처럼 느껴졌다. 잔뜩 휘부리기도 하고 좁안에 걸어쥘기도 하는 계집애들의 공기들같은…

아무렇지 않게 밟고다니던 땅, 흙… 그 모든것의 존재와 가치가 여기 섬에서는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되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땅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글쎄 땅에 발을 붙여야만 살아갈수 있으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사도 언제까지나 허공에 떠서 살수는 없다.

바다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해병들도 어쨌든 종당에는 물에 발을 올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는 날개나 지느러미가 아니라 땅을 든든히 딛고살라고 두다리가 생겨났을것이다.

한달후 갓 돌이 지났다는 딸애를 업고 한기동중대장의 안해가 섬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은옥이네 옆집, 다시말해서 《미》 집에서 살게 되었다. 화성학의 법칙과는 달리 이 《미》, 《화》 두 집사이에는 언제나 화애한 분위기만이 흘렀다.

그것이 또한 이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사실이 그러했다.

그때 섬에서는 우물파기와 부업발조성, 집집승기

르기가 동시에 벌어졌다. 다 그 한기동중대장이 착안한 일이었다.

그런데 정수학은 사소한 일로 하여 가끔 중대장과 의견상이를 일으키곤 하였다. 매생이문제만 놓고 봐도 그랬다.

원래 무인도였던 여기 섬에 첫 거주자들이 생긴것은 한창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피차 배낭뒤에 말아치고온 한장의 군용모포우에 가정을 세우게 된 군관들이 석회와 진흙을 이겨 《하모니카》를 짓던 그때에는 이곳에 매생이조차 없었다.

그러던것을 적들과 총부리를 마주대고, 또 횡포한 자연과 생활을 마주대고 사는 이들의 물질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저 사단에서 특별히 매생이를 마련해준것이였다.

부업조를 직접 책임진것은 정수학이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매생이를 자못 무기 및 전투기 술기재의 일종처럼 정색하여 다루었고 자기 살붙이처럼 아꼈다.

어느날 중대장 한기동이 배를 기슭에 끌어올리고 노대는 중대부에 걸어들이라고 지시하였다. 야싸해난 정수학이 중대부를 찾아가자 한기동은 사유를 설명했다.

그의 말이 매생이 한척을 꼬박 붙잡고 살아온 생활관습이 하도 집요해서 이대로는 발농사떼를 창조하기 힘들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일시 배출입을 막고 《만약 그게 없다면?...》 하는 문제점을 대중중스스로가 세워보게 하자는것이였다.

《난 모르겠소. 아무려면 섬에서 바다농사를 짓는게 낫지 저 조금더미같은 흙우에서 무슨 곡식이 되려니 해서야...》

《웁소, 동무도 그렇게 말하는군, 허허... 난 바다농사 그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그에만 치우쳐서 가능한 살림살이를 더 잘 꾸리려고 애쓰지 않고있는 사상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오. 그 래 앞으로도 이 섬의 전체 생명이 그 매생이 한척에 기대여 살테요? 매생이, 그저 매생이거던. 그게 있어야 살고 없으면 안된다? 이게 도대체 뭐요?》

정수학은 손가락마디를 툭툭 꺾으며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더구나 여긴 최전연이요.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배를 띄우다가 무슨 도발에라도 걸려들면 어찌겠소? 동무는 이것을 일종의 비겁성이 아닌가고도 생각할수 있겠지만 그런게 아니요.

우리에게는 전시와 같은 규률이 있어야 하오.》

《중소. 그럼 아예 눈에도 띄지 않게 대도에 주고말던가.》

매생이문제로 두 세대주가 부딪치고 들어온 저녁에 기다렸다는듯 대줄기같은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천정에서는 비가 새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아도 미라해서 초저녁 매지구름이 밀려

올 때 은옥이 지붕에 올라가 비반이박막을 펼쳐놓고 내려왔는데 바람에 뒤집혔는지, 날려갔는지 천반은 점점 더 젖어들기만 했다.

정수학이 비옷을 걸치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는 입었던 비옷마저 지붕에 씌워놓고 내려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내려오자 비가 더 새어들었다.

《에그머니, 당신 어떻게나 하고 내려왔길래...》

정수학은 대답대신 물바끼즈를 하나 더 가져다가 비푹에 맞춰놓으며 《순이 엄마(한기동의 안해)가 둘째를 가졌는지? 그래 비옷과 박막을 그쪽에 씌워놓고 내려왔소.》 라고 하였다.

이게 바로 《이상하다》는것이다.

생활이란 밖에서 물어온 감정이 집안에도 떨어지기 마련이건만 여기 《하모니카》집들에는 그런것이 전혀 없었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생각만 해도 가슴섬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른새벽 식당근무에 나갔던 군인이 그물을 거두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만 란류에 휘말려 적들쪽으로 떠밀려가기 시작했던것이다. 비상정보를 받은 군인들이 그곳에 달려갔을 때는 사태가 이미 걷잡을수 없게 번져지고있었다.

이제 몇순간만 지나면?!...

은옥은 그때 한기동과 남편의 눈길이 허공에서 평곳 마주쳐지는것을 보았다. 정수학의 눈빛은 마치 보오, 이런 때 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하고 한기동을 질타하는것 같았다.

한기동의 눈빛은 어쨌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 순간이 지나자 침병! 하고 누군가 물에 뛰어드는 소리와 함께 《부중대장동무!》 하는 웨침소리가 은옥의 심장을 흔들었다.

정수학이 바다에 뛰어들것이었다.

가까스로 군인을 따라잡기는 했으나 정수학은 첫돌아치는 란류에 휘말려 점점 더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설상가상으로 주위에서 마구 떠돌던 바다나물들이 두사람에게 콕 덮쳐워졌다.

미구에 타는듯 비껴있던 아침하늘에서 붉은해가 불쑥 솟아올랐다. 바다는 피가 물린듯 검붉게 물들여졌다.

그들은 적들쪽으로 떠내려가고있었다.

그때 갈가리 찢기운듯 한 웨침소리가 들려왔다.

《썩라—아! 썩—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였다.

다음순간, 마침내 정수학의 목소리가 툭툭히 들려왔다.

《쏘라! 썩!》

그는 자기를 쏘라고 하고있었다!

병사들은 주춤하며 중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살아서는 결코 포로가 될수 없다는 군인의 신성한 의무앞에 충실하게 해달라고 절절히 호소하는듯한 전우의 피타는 웨침소리를 듣고있던 한기동의 눈가에서는 붉은물이 끓어올랐다.

《부중대장동무!》

그다음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행히도 물흐름이 바뀌면서 남서방향으로 떠내려가던 그들이 섬쪽으로 밀려들어왔다. 한기동은 물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맞이하였다.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기슭에 와닿은 그들은 밀동잘린 나무들처럼 주저앉아서 서로꿈 가슴노리들을 툭툭 쥐여박으며 시름놓고 웃어댔다.

그때 은옥은 멀리 바위에 가리워진 곳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있는 한기동의 안해를 보았다.

섬은 이런 곳이었다.

은옥은 최전연섬초소라는 말의 의미를 이때처럼 심장에 와닿게 체현한적이 없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영원한 고요를 누리고있는듯한 한그러나 때로는 병사의 의무를 지켜 죽음앞에도 서슴없이 나서야 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어디 물러설 곳도, 피해갈 곳도 없는 싸움터에서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결사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 섬의 《하모니카》였다.

그날 저녁 은옥은 요긴할 때 쓰려고 건사해두었던 목이 긴 술병을 꺼내어 남편의 밥상우에 놓아주었다. 그것을 보자 정수학은 다짜고짜 두리소반을 통채로 들고일어났다.

그리고 건너간 곳이 한기동의 집이었다.

군용늪식기가 술잔을 대신했던 그 저녁이 참 좋았다.

정수학의 하모니카반주에 맞춰 노래들도 몇곡씩 불렀다.

이튿날부터 정수학은 막돌들을 주어다가 집앞에 한아름이나 되는 돌화분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채워넣고 염기를 뽑는다며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주었다.

이듬해 봄 랭상모판처럼 박막을 씌운 돌화분에서 해바라기씨앗이 새파랗게 돋아났을 때 정수학은 어깨에 별 한알을 더 얻었다.

그해 콩농사도 시작하였는데 첫해농사에서는 종자값도 거들지말지 하더니 차츰 경험도 터득하고 해서 지난해부터는 제법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명년부터는 돼지방목도 해볼 생각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은옥의 집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달 스무사흘쯤에 어머니가 온다는것이였다.

마침 그적에 물에 나갈 일도 생겼고 해서 정수학이 가시어머니를 마중해오기로 하였다. 하지만 그는 섬을 뜰수가 없었다.

새벽녘 불의에 비상소집구령이 울리고 섬전체가 주야전투경계근무에 진입하게 되었던것이다.

벽오동나무집 채복이 할머니 하면 아근은 물론 한개울 건너 동네에까지도 손에 집짐승이 물어나기로 소문나있었다.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 아무튼 채복이 할머니의 손이 가닿기만 하면 어느 가끔이나 밀이 메여지게 줄줄이 알을 낳고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궁둥이 삐죽해서 왔던 새끼돼지들도 한밥 퍼먹자 곧 찰떡같은 살이 오르는것이였다.

채복이란 데리고있는 친손자의 이름이고 외동딸은옥이는 시집을 보낸지 몇해가 지나도록 까딱 발길이 없어 걱정이였다.

삼수갑산 멀어도 섬만이야 했다더니 옛말 그르데 없노라고 밤낮 장타령인령감님께 하면 섬총각에게 딸을 주기는 왜 주었소 티태각질을 하기도 새가 나서 이즘은 그저 랑주가 돌미룩처럼 덤덤히 마주앉아 속만 썩이고있던터였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좋은 돼지종자를 구해보내주십사 하고 부탁해온 편지를 받자 채복이 할머니 장씨는 그에 뼈물이 더 내리기 전에 딸네 집에 다녀온다고 허리끈을 동이고 나셨다.

령감님은 구팡돌우에 걸터앉아 그냥 잔소리만 하였다.

《글쎄 먹이단위니, 증체물이니 가탈스럽게 굴지 말고 어차피 극악스레 살아가야 할 놈이겠으니 숨길진것으로 고르라니까.》

그래 얼룩종을 한마리 짚어놓으니 이번에는 가져가는것이 문제였다. 산 짐승을 털차에 태울수도 없었다.

《에그, 돼지도 알을 낳아 깨운다면 좋았을걸...》

한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더니 마침 배합먹이공장에서 어분을 실러 가는 차가 생겨 운전칸에 한자리를 얻게 되었다.

수백리도로행군끝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밤늦게려관점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장씨는 새끼돼지때문에 어지간히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아무렴 짐승과 사람을 한호실에 넣을수는 없는것이고, 차라리 꺼안고 어느 모퉁이에서 밤을 새울가부다 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려관책임자가 달려왔다.

그 사람이 뭘 좀 불줄 알았다.

그는 주둥이가 뭉투룩하고 허리발이 뒤뚱 잘 나가는 새끼돼지를 보자 대뜸 탐을 내면서 자기네 려관에서 집짐승우리를 크게 확장하고 부업발서건 고리형순환식생산체계를 세워볼가 한다면서 엄지돼지와 맞바꾸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중떠보는것이였다.

장씨가 찬성할리는 만무했다.

그런대로 새끼호동을 배정받아 하루밤을 보낸 장씨는 오매불망된 딸네 집이 불과 고대라는 생각에 새벽부터 잠을 깨어 설레발을 치게 되었다. 그런데 밥술가락을 놓자 곧 부두로 떠난다 했던것이 짐수

원처녀를 만나 뒤집혀지게 될줄이야...

《어머님은 섬에 건너간다고 하셨지요? 안됐지만 오늘은 사정이 생겨서 일체 배들이 뜨지 않는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오늘 방송을 듣지 못하셨나요?》

똥판지같은 방송소리에 장씨의 눈은 더 둥그레졌다.

《배가 뜨지 못한다구 방송에서 그러던가?》

《그런게 아니라 오늘 해상분계선일대에서 놈들이 포사격연습을 벌려놓는대요. 그래서 우리 군대는 놈들의 도발책동에 무자비한 타격으로 대답하겠다고 성명을 했구요.》

처녀는 쌍까풀진 고운 눈에 자못 의미심장한 빛을 띠우며 《이건 빈말이 아니거든요.》 하고 끝을 달았다.

《어이구, 그 룩실할 놈들때문에...》 하면서도 장씨는 행여 다른 수가 없겠는지 하는 눈빛으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혹시 떠나보면 무슨 방도가 생기지 않을까?》

《글쎄 배들이 뜨지 않는다는데야...》

주위에서도 도간도간 무슨 포사격이요, 반타격이요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것으로 보아 처녀의 말이 옳은것 같았다.

장씨는 하는수없이 방으로 되돌아왔다.

(에그, 전보는 괜히 보냈지.)

애들이 지금 얼마나 눈이 까매서 기다릴고...)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생각한 장씨는 부랴부랴 집을 찾아들고 다시 러판문을 나섰다. 한데 거리에서는 방금 얻어들었던 어마어마한 말파는 달리 너무도 평온한 광경이 흘러가고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길에 바쁘고 멀리 어느 학교에선가는 수업준비를 알리는 종소리가 땡-땡-들려왔다.

(떠나기를 참 잘했어. 그냥 있었다간 새끼돼지를 찾기였을지도 몰라.) 하고 장씨는 빙글서 입귀를 더쳐놓았다.

등에 진 배낭에서는 난생처음 볼만 한 구경을 한다는듯 새끼돼지가 잔뜩 목을 빼어들고있었다. 하늘은 또 얼마나 맑고!

짜릉짜릉 자전거종소리가 뒤를 쫓는 토사도로를 따라 건들건들 걸어가던 장씨는 방송에서 시간을 맞추는 소리가 들려오자 부지중 멈춰서서 입속으로 뇌어보았다.

(글쎄, 어디라고 감히...)

허나 그 시각 바야흐로 일촉즉발의 위험이 밀려오고있던 서남해상의 적아진지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기고있었다.

정각 8시, 학교들에서는 첫 과목수업이 시작되고 방송을 듣고있던 장씨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한줄기 전화선으로는 만약 적들이 불법무도한 《북방한계선》을 교차하면서 포사격연

습의 미명하에 우리측 명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준다면 즉시적인 타격으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최후경고통지문이 날고있었다.

결전의 시각은 다만 소리없이 다가올뿐이었다.

그런줄 알길 없는 장씨는 초간한 바다가를 바라보고 부포선철길을 따라 허위단심 걸어가고있었다. 도중에 향죽리까지 간다는 트랙포트를 얻어라고 한 습을 하고난 그가 부포역근방에 이르렀을 때 중천에 떴던 해가 시들해졌다.

어데선가 코릿코릿한 비린내가 북풍에 실려왔다.

때는 낮 2시 30분경, 갑자기 바다쪽에서 쿵! 하는 웅글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먼 물면우에서 물기둥이 불쑥 솟구쳐올랐다. 다음번에는 좀더 가까운 곳에서 물기둥이 일어났다.

장씨는 처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어리둥절해있는데 이번에는 등뒤에서 《파다당!》 하는 벽력같은 소리가 울리더니 머리위로 시뵈건 불줄기들이 허공을 찢며 날아가기 시작했다. 주변은 삽시에 불도가니로 화했다.

어데선가 덮쳐든 폭풍이 락엽들을 사방 휩쓸고 강철기계가 돌아가는듯 위웅-위웅- 하는 소리가 하늘을 짹 메웠다.

《우리 군대가 놈들을 족친대요!》

《바다에서 또 싸움이 붙었다고요!》 하는 소리들이 연방 터져오르고 마을과 일터들에서 사람들이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잠간사이에 팔팔이처럼 비죽이 빠져져나온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좌우버딩들은 모여온 사람들로 바글바글 끓어번졌다.

지붕우에까지 사람들이 기여오르고있었다.

그때야 장씨는 수평선우에 아스름하게 불타고있는 섬이 다름아닌 연평도라는것과 방금전에 본 첫 물기둥들이 바로 놈들이 쏘아댄 포탄으로 하여 생겨났던것임을 알았다.

그러니 제가 놓은 불에 타죽는 꼴이었다.

우리 군대의 포탄이 연방 날아갈 때마다 연평도에서는 화광이 충천하고 검붉은 연기가 룡트림을 하며 치솟아올랐다.

《장하다! 놈들을 족쳐라!》

《우리 군대 만세!》

어느 학교에서인지 나팔통을 둘러멘 십수명의 아이들이 달려왔다. 그런데 이미 시루속같이 되어버린 바다가둔덕에는 립추의 여지도 없었다. 사람들을 뚫을수 없게 되자 음악선생인듯 앞장섰던 사나이가 《동무들, 북을 울리시오!》 하고 소리쳤다.

황광 울리는 대고소리에 뒤를 돌아본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요.》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었다.

자기 학생들이 아니라 먼바다쪽을 향하여 지휘봉을 든 사나이는 몹시 흥분에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웨치었다.

《〈해안포병의 노래〉, 백번!》

이때 온통 불바다에 잠긴 연평도에서 제법 대답질을 하듯 몇방의 포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선불질을 하고도 모자라서 감히 우리에게 맞불질을 해온것이였다. 사람들의 흥분은 극도에 달하였다. 어찌 그런 놈들을 용서할손가!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대도쪽에서 격노한 불줄기들이 날아가기 시작했다.

마을어구에는 적십자표식을 한 구급차가 다급한 경적소리를 울리며 나타났다. 그것을 보자 장씨는(혹시 우리 군대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주위가 별로 험렁해진것 같았다.

아뿔싸 하고 돌아보니 벌써 포구마을사람들은 원호물자들을 안고 인민군대를 찾아가고있었다. 먹으려던것, 아껴두었던것을 모조리 꺼내들고 펼쳐나선것 같았다.

사리물처럼 무섭게 치밀어오르는 그들속에 섞여 장씨도 기슭으로 밀려갔다. 선창에 매여진 자그마한 목선주위에는 각종 짐보따리며 합지며 꾸레미들을 이고지고한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있었다. 배고동소리가 길게 뚜- 하고 울리었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 대도쪽에서 또다시 우리 군대의 포소리가 쿵쿵쿵 하고 들려왔다.

《선장이아주머니, 어서 배를 띄우자요.》

《우리도 섬에 달려가 함께 싸웁시다!》

이물에 올라선 선장이 《여러분네들!》 하고 주위를 모았다.

《언감 범무서운줄 모르고 짓어대는 저 가이새끼들한테 우리 부포사람들의 본패를 보여줍시다. 자, 우리 군대를 찾아갑시다!》

그 선장이 다름아닌 딸, 사위를 싣고 섬으로 들어갔던 사람인줄을 이때 장씨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용약 부두를 떠났던 배는 얼마 못 가서 해안경비대의 순찰선에 끌려 되돌아오고말았다. 섬으로 갈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아무튼 인민군대를 찾아가야겠다며 서둘러 배를 내렸다.

이때 등뒤에서 웬 젊은 아낙네의 애개개소리가 들려왔다.

《애개개, 이 어머니 새끼돼지까지 지원하려나뵈?》

아닌게아니라 장씨는 무슨 정신에 배를 탔겠는지 혼자생각에도 먼구스러웠다. 꺼묻어서 나들이를 가려던 사람처럼.

《여러분, 이 어머니의 딸과 사위가 바로 저 영웅섬에 있답니다. 어제 밤에 우리 려관에서 묵으셨는걸요.》

돌아보니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인 려관책임자가 돼지다리에 비끄러맨 끈을 손에 감아쥐고 싱글벙글하며 서있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와 환성을 지르며 장씨를 에워쌌다. 그리고는 너도나도 가지고있던 물자들을 넘겨주며 온갖 격려와 축하의 말들을 해주는것이였다.

장씨는 마치 영웅섬의 그 모든 아들딸들을 대표하는 어머니처럼 떠받들려서 설새없이 인사를 받고 받고 또 받고...

장씨는 생각되는것이 있어 려관책임자를 찾았다.

《책임자, 이제라도 이 새끼돼지를 바꿔주지 않으려우?》

그러자 그의 속내를 제격 간파한 책임자는 《원, 세상에 그럴 법이 어데 있습니까. 이 돼지야 기왕 우리 군대를 원호하자고 끌고온건데 바꾸다니요? 어서 통채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였다.

언제한번 본적도 없는 사람들이 단지 섬에 자식을 두었다는 그 리유만으로 가슴가득 안겨주고간 지성품들을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장씨는 뜨거운것을 흘리었다.

한식술이란 바로 이런것이였구나.

여기엔 내 딸, 내 사위가 따로 없구나.

려관책임자의 말대로 돼지들만은 꼭 섬에 보내줄것을 선장에게 부탁한 장씨는 나머지물자와 딸에게 보내주려고 마련했던 돈까지 몽땅 털어서 주변 인민군부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은옥이 두번세번 부탁하였던 재봉기바늘만은 어떻게나 전해야겠기에 새끼돼지의 목굴레속에 바늘 세개를 꽂아넣었다.

돌아갈 때 장씨는 또 한가지 희한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구급차가 포구마을에 들이닥친것은 무슨 불상사가 생겨서가 아니라 포소리에 놀란 어느녀인이 예정일을 앞당겨 아이를 낳았기때문이라는 것이였다. 부모들이 미처 이름을 짓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 애의 이름을 《포성》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 시각 사단장 위순재도 대도로 가고있었다.

우리 포병들의 무자비한 타격에 불바다가 되었던 연평도에서는 그때까지도 검은 연기가 무섭게 타래쳐오르고있었다.

통쾌한것은 이 특기할 승리를 한시간도 못되는 사이에 그것도 단 몇문의 포로써 안아온것이였다.

최고사령부를 우러러 승리의 보고를 드릴 때 전사된 그의 가슴은 크나큰 영예로 높뛰었다.

개인적으로도 한때 대도방어대장으로 복무한 지휘관으로서 긍지가 컸다. 연평도에 첫 불벼락을 들썩은 방사포대대군인들도 잘 싸웠지만 대도방어대가 세운 위훈도 그에 못지 않았다.

원래 사단에서는 그들에게 사격명령을 내리지 않았었다.

그까짓 섬 하나를 짓밟개는데 손, 발 다 쓰라실어서였다.

그런데 첫 타격을 얻어맞고 열이 나간 놈들이 그만 잡자던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려놓았다. 밤낮 정밀타격이요, 고성능탄지요 하고 떠들어대던 놈들이 어데서 날아오는 포탄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대도에 《대응사격》을 가했던것이다.

그 파편에 발에 매놓았던 소 한마리가 다리를 상해 넘어졌다.

격노한 병사들이 진지를 박차고 달려나갔다.

대구경포도의 강위력한 격과사격에 적들의 지휘소와 포탄창고, 탐지기가 날아나고 그 무슨 정밀추적타격으로 반경 50미터구역을 단방에 날려보내다던 《K-9》곡사포는 다음해 콩심기 좋게 부엽밭을 몇십 켤레 주고는 듅직한 파철더미가 되어버렸다.

오죽 혼났으면 그래도 명색이 《군대》라는것들이 저저마다 대피소를 찾아 줄행랑을 치고 군부것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제발제발 사격을 중지해달라고 목놓아 불러댔겠는가.

얼벌벌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등뼈가 분질러진것이었다.

위순재가 섬에 도착하니 진지보수작업을 끝낸 군인들이 한창 열이 올라 《하모니카 풍짜짜 피리소리를루루...》 하며 승전오락회를 벌여놓고있었다.

커다란 포탄각지를 둘러멘 꼬마병사가 들쭉들쭉 어깨춤을 추며 돌아가는데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닝큼 안아서 목마로 한바퀴 빙 돌려주었다.

사단장이 찾아와 무릎장단까지 절쩍절쩍 두드려주는데 한결 사기가 난 병사들은 꼬마병사의 출연이 끝나기 바쁘게 《사단장동지, 노래 한곡 불러주십시오!》, 《춤도 좋습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들어댔다.

위순재는 하모니카로 《혁명가요런곡》을 불어제겼다.

연주가 끝나자 그는 섬방어대장을 불러놓고 《역시 대도야! 생각갈아서는 동무들모두에게 훈장을 달아주고싶지만 당장은 어찌는수가 없구만. 대신 훈장보다 더 센걸 주겠소.》 하며 품속에서 애용하던 하모니카를 꺼내놓았다.

《어때, 이게 방사포갈지 않소? 그렇지?》 그러고보면 하모니카가 정말 방사포와 비슷하게 생긴것도 사실이었다. 《이게 어떤 하모니카인지 아오? 사실 이건 내 엄통파도 같은것이지만 이번에 저 일간망둥이들한테 우리 노래를 톡톡히 잘 불러준 값으로 눈을 꼭 감고 내놓는거야.》

사단장이 대도에 건너와 오락회도 하고 애용품까지 놓고갔다는 소문은 곧 재도에도 흘러들어 모두의 부러움을 자아냈다.

누가 어찌지도 앓았건만 재도의 병사들은 제깅에 풀이 죽어 다녔고 남편들의 얼굴도 그리 밝지 못하였다.

언제인가 한기동중대장이 《우리 섬의 정서》라고까지 표현했던 정수학의 하모니카소리도 대도의 기세에 눌리운듯 잦아들고말았다. 온 나라가 지켜보는 격전장에서 포탄 한발 쏘보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뒤이어 갈마드는 고독감... 소외감때문이었다.

오직 싸움의 한순간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이날이때껏 초소를 지켜온 그들은 사격명령이 없어서였다는 한마디 말만으로는 자신

들을 달래기 힘들어했다.

은옥은 어머니의 소식을 몰라 더 애가 났다.

어느날 저녁늦게 집에 들어온 정수학이 《오늘 대도에서 사람이 왔댔소.》 하며 채봉기바늘 세개를 은옥의 앞에 꺼내놓았다.

《그럼 어머니는?》

《포구마을까지 왔다가 돌아가셨다오.》

바늘이나마 주인을 찾아오게 된것은 우연중 다행이었다.

그때 물에서 들어오는 원호물자들은 거의나 대도로 들어가곤 하였다. 물론 장씨가 부탁한 돼지들도 폐외가 아니었다.

사단장이 왔다면 다음날 새끼돼지를 받아 목욕을 시키던 군인가족들이 목굴레에서 이상한 채봉바늘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올리올리 보고되어 방어대장한테까지 가게 되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그가 후방부에 전화를 걸어 《어미돼지를 어떻게 했소?》 하고 물으니 《걱정마십시오, 벌써 가마에서 부글부글 끓고있습니다.》 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더우기 더무니없는것은 그들이 보내온 랑해각서였다.

앞으로 빛도 갓을 겸 새끼돼지만은 잘 길러서 첫배에 나는 새끼들중에서 제일 좋은것으로 두마리를 보내주겠다는것이였다.

이듬해 그들은 약속대로 얼룩종새끼 두마리를 재도에 보내어왔다.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듯도 하였다.

허나 연평도포격전의 여운은 결코 가셔진것이 아니었다.

적들은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에 새로운 병력과 무장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한편 각종 도발적인 군사연습들을 벌여놓으면서 정세를 날로 악화시켰다.

싸움준비로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었다.

2012년 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평도 포격전에서 위훈쩔친 서남전선지구에 위치한 포병대대를 시찰하신 소식이 섬에 전해졌다.

그후 풍랑세찬 바다길을 헤쳐 초도를 찾아주신 원수님께서 옷매무시조차 번번히 가다듬지 못하고 달려온 섬초소군인가족들을 한품에 안아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온 나라는 말그대로 격정의 바다가 되어 설레이었다.

그무렵 은옥은 첫아들을 보았다.

며들씩 모여온 《하모니카》집 세대주들은 저마다 아기의 불에 입맞춰보며 《야, 그 녀석! 찼찼한데!》 하고 새 생명의 탄생을 섬사나이들답게 축하해주었다.

은옥은 날마다 《아가야, 어쩌면 래일이라도 문득 원수님께서 우리 섬에도 찾아오실지 모른단다.》 하고 속삭이곤 하였다.

한번은 그의 말을 듣고있던 정수학이 《여보, 소원중에는 말이요, 이루어서는 안될 소원도 있소.》

라고 하였다. 이튿날 은옥은 남편의 배개깃이 축축히 젖어있는것을 보았다.

3

우리 나라 중부해상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열대성 태풍의 영향으로 며칠째 쏟아부는 폭우로 하여 그해의 여름은 일찍 식어버리는것 같았다. 해별에 따갑게 달아오른 모래불에 햇고구마알같이 빨강게 몸을 익혀가며 방학을 즐기던 포구마을아이들의 인적도 뜨음해지고 파도에 밀려나온 바다나물들이 기슭을 뒤덮었다.

채도에서는 갓 파랗게 물알이 잡히기 시작하던 부업발 쿵이 해일피해를 받아서 반나마 못쓰게 되었다.

그래 아침부터 가족들은 부업발에 나가 넘어진 쿵대들을 바로세우고 류실된 토지도 복구하는 등 작업을 하게 되어있었다.

은옥은 새벽 선잠을 깨었다.

도무지 세식구가 사는 집에 남편마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다니니 마음이 텅 빈것 같아 깊은 잠이 오지 않았던것이다.

워낙 한사람만 비여도 자리가 쑥 나는것이 섬생활이었다.

날이 푸름푸름 밝아오자 은옥은 부뚜막우에서 아침밥술을 대수강 뜨고 밖으로 나갔다. 태어난지 여섯달밖에 안된 아기는 새벽녘 칭얼거리며 젖을 실컷 빨더니 세상 모르고 자고있었다.

밤새 직일근무를 선 군의가 섬주위를 돌아보다가 방파제주변에 나와있는 은옥을 보자 《집에 들어가있으십시오. 배가 나타나면 제격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지레짐작으로 말하였다.

《이 날씨에 뜨는 배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도 바다모양이 좋지는 않아보입니다만.》

(하기야 좋은 날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하고 생각하며 은옥은 그만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바로 그 시각...

부포앞바다에서 자그마한 목선 한척이 출항하고 있었다.

평화바다가양식사업소의 27마력목선이였다.

또 한문, 지어 총 한자루도 걸려있지 않는 작은 그 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바다길에 오르게 된 위순재는 짜릿한 전율과 흥분으로 하여 군복단추를 짝 움켜쥐고있었다.

새벽녘 포구에 도착하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서남해상의 섬초소들을 돌아보자고 그를 부르시였을 때 위순재는 너무도 경악하여 인사말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여기는 파편도 채 식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이게 얼마만이요! 보고싶었

소.》 라고 하시며 진땀이 뚫은 위순재의 손을 힘있게 잡아 흔들어주시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후의 첫 상봉이었다.

날은 이미 밝았으나 장마철하늘은 재물을 뿌려놓은듯 흐릿하고 간단없이 불어치는 바람새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배이물에 혼연히 자리를 잡고있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치 어느 고요한 호수가에 배를 띄우신듯 그리도 평온하시였다.

뿌잇하던 하늘빛이 점차 복숭아빛으로 물들어가 는 모양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서해의 풍경이 참 아름답소. 바쁜 길만 아니라면 그림한폭 그리고 가고싶구만.》라고 외우시였다.

허나 극도의 긴장감으로 굳어진 위순재는 풍경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하시는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못 드리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냥 등위로 말을 건네시였다.

《여기서 채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요?》

《예, 약 4마일가량 됩니다.》

《그럼 거기부터 가봅시다.》

위순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채도는 바로 연평도의 코앞에 있었던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 채도에만은 가실수 없습니다. 거긴 위험한데다가... 거긴 특별한것이 없는 그저 작고 조용한 섬입니다.》

《특별한것이 없다? 참, 듣자니 연평도포격전이 있는 날 사단장동무가 제일먼저 대도로 건너갔다면서?...》

《예, 대도가 잘 싸웠습니다.》

《훈장대신 나한테서 가져간 하모니카를 주고...》

하모니카소리가 나오자 위순재는 목덜미까지 벌개져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무엄하다고 해야 할지, 영동하다고 해야 할지...

그런 일이 있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던 그해 예술소조공연을 준비하면서 위순재는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하모니카중주 혁명가요런곡에 참가하게 되었다.

어느날 여가시간에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하모니카를 사랑합니다. 하모니카소리를 듣느라면 저 멀리 눈보라속을 뚫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고 조국으로 진군해가는 항일빨찌산의 모습이 안겨오는가 하면... 조국통일대전으로 부르시는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의 전체 강철포신들이 일제히 포구를 쳐드는듯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모니카에는 전통이 있고 철학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졸업공연이 끝나자 소동이 일어났다.

그이께서 연주하시던 하모니카가 없어졌던것이다.

모두들 큰일났다고 온 회관안을 구석구석 찾아헤

매고다녔지만 그이께서만은 짐작이 가신다는듯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만두시오, 장본인은 벌써 꿈무늬를 뺏을 겁니다.》

위순재는 이렇게 배치지로 떠나왔었다.

연평도포격전이 있는 날 그가 대도에 다녀온 후로 그 하모니카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빛나는 전투위훈과 더불어 대도는 더욱 특별한 섬이 되어가는것 같았다.

그곳에서 울리는 하모니카소리는 오직 그들만이 지닐수 있는 무거운 영예와 전투적책임감을 과시하면서 그리고 영원한 대도의 독주곡으로만 울려갈듯싶었다.

《그래, 독주곡이라...》

김정은동지께서 조용히 뇌이시었다.

바다와 하늘이 굳게 옥물린듯 한 수평선으로 붉게 퍼져가는 아침노을이 그이를 감싸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두세절음안팎의 조라실로 다가가시여 키낮은 지붕우에 손을 얹으시었다.

《선장동무, 항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관소리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듯 그가 상체를 기울이려고 하자 그이께서는 얼른 자세를 바로해주시며 물으시었다.

《연평도포격전때 분위기가 어떠했습니까?》

《그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머리우로 포탄이 뿜뿜 날아가고 연평도가 기름독처럼 활활 불타는 꼴이 정말 볼만 했습니다.

우리 그저 통일이 이렇게 되는가부다 했었습니다.》

《선장동무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저는 섬초소군대동무들을 찾아갈가 해서 배를 띄웠다가 그만 뚝져오고말았습니다. 그때 이 배에 술한 사람들이 올랐었습니다. 저 섬에 나들이를 오던 로인 한분은 돼지서건 로자까지 다 털어서 군대들을 원호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돌아갔습니다.》

잠시 굶췄던 허리를 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위순재와 동행한 장령들을 향해 《보시오.》하고 힘있게 그루를 박으시었다.

《연평도포격전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전략상의 승리이기 전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쳐 이룩한 단결의 승리입니다.

나들이왔던 로인도 그렇고... 이 배의 선장동무도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사지판으로 배를 몰고 나섰었다는데 적들 같으면 이런 일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총참모장이 말쑤드렸다.

《그때 강령군인민들과 섬초소군인가족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데 대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람도 싸움마당을 떠나지 않았습시다. 반면에 연평도에서는 주민들 거의다가 섬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요. 내가 만족하게 생각하는것

은 적들의 몇몇 군사대상물을 격파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조국이 부르는 결전장에서 단 하나의 불협화음도 없었다는 그것입니다.

우리 인민들, 우리 병사들...》

김정은동지의 음성은 뜨거우시었다.

《그런데 사단장동무가 재도에 가보지 않은것은 섭섭합니다.

특별한것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포소리 한번 울리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면 정말 나를 생각해서입니까?》

배전에 갈매기 한마리가 유유히 감돌고있었다.

《정 그렇다면 동무들은 배를 타고 가시오.

나는 여기서부터 해염을 쳐서 가겠소.》

《최고사령관동지!...》

위순재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배가 재도를 가까이한것은 아침 7시 20분경이였다.

직일관완장을 두른 군관이 권총집을 털렁거리며 마주 내려오다가 갑판우에 주련이 서있는 장령들을 보자 놀라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바로 부대직일관을 서고있던 군의였다.

《동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오!》

위순재가 소리쳤다.

그런데 잘 들리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듣고도 무슨 소리가 해서인지 그쪽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이 멍청히 서있기만 했다.

《동무! 못 들었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오!》

그제서야 깜짝 놀란 그는 와닥닥 돌아서서 중대병실이 자리잡은 섬중턱을 향해 뛰라고 막 소리치며 달려올라갔다.

《직일관! 사다리를 가져오오, 사다리!》

위순재가 거퍼 소리를 쳐서야 정신을 차린 그는 다시 기슭으로 되돌아와 풀덤불속에서 사다리를 찾아냈다.

한쪽버팀대를 이어붙인 섬에 하나밖에 없는 사다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사다리를 밟고 모래불에 성큼 내려서시었다. 몽쿨한 감각이 마음속에까지 미쳐오신듯 그이께서는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었다.

그때 섬웃쪽에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셨다!》 하는 웨침소리가 들려오더니 아침일과를 집행하고있던 군인들과 일찍 부업밭에 나가려고 서두르던 군인가족들이 와 하고 달려왔다.

주위는 삽시에 감격과 흥분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원수님! 원수님!...》 하고 껴이껴이 목이 메이는가 하면 만세소리가 확 터져나오지 않아 두팔만 너울거리며 눈물을 찰찰 흘리는 녀인들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팔이 닿는대로 사람들의 손을 넘어넘어 잡아주시며 뜨겁게 인사를 나누시었다.

《잘들 있었습니까?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

습니다.》

그러자 마구 뒤엎켜올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떤 선물에 태워지기라도 한듯 일시에 합쳐지기 시작했다.

《원수님, 어찌자고 이 위험한 곳에 오신단 말입니까!》 하는 소리들이었다.

최전연섬초소에서만 들을수 있는 인사 아닌 인사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중대병실을 돌아보고 나오시었을 때 현관앞마당은 처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집에서 놀던 아이, 자던 아이들을 막 깨워서 등에 들쳐업고 달려온 가족들이 그이께서 계시는 계단앞으로 밀려올라왔다.

《천천히 올라오시오. 그러다 넘어지겠소.》

김정은동지께서 서둘러 앞에 선 가족을 부축하시었다.

그는 바로 리은옥이었다.

어머니품에서 갓 잠을 깬 아기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다바람을 후후 들이키며 또릿또릿한 눈망울을 굴리고있었다.

《허, 그녀석 잘생겼군. 어디 한번 안아볼가.》

그이께서 얼싸안아 등개등개를 하시자 녀석은 뭐가 좋은지 캐득캐득 웃어댔다. 아기의 밝은 웃음소리가 무엇이랴 이름할수 없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주위에 감돌아 울려퍼졌다.

《애아버지가 누구요?》 하고 그이께서 물으시었다.

은옥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다잡으며 말쑤를 뒀다.

《애아버진 부중대장인데 지금 물에 출장나가있 습니다.》

《출장을 갔단 말이지.》

아쉬운 음성으로 되받으시며 김정은동지께서는 아기의 발그레한 엉두볼에 따듯이 뽀뽀를 해주시었다. 그때 은옥은 뭔가 걱정스럽게 짙혀오는것이 있어 아이를 받아내리려고 하였다.

《애가... 기저귀를 채우지 않았는데...》

《오, 오줌을 싸가봐? 일없소. 그것도 다 기념이지.》 라고 하시며 그이께서 젖살이 오른 어린것의 볼기를 툭툭 두드려주시자 주위에서는 청량한 웃음소리가 퍼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귀가를 스치는 아기의 보드라운 머리카락과 옷에서 풍겨오는 비누냄새까지도 달게 말으시는것 같았다.

(여보, 보시나요? 꿈결에도 뵈고싶던 원수님께서 우리 섬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애를 안고 뽀뽀도 해주셨어요!)

은옥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한가슴에 다 안은듯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벗어섰던 생활의 아름다운 선물이 이 시각 다시 울리기 시작하는것 같았다. 원수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게 되었을 때 은옥은 그때라도 아기

를 받아안으려고 했으나 그이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어깨우로 더 높이 얼싸취올리시는것이였다.

《이 애는 내가 안고 찍겠소. 그래야 출장을 간 애아버지의 마음이 다소나마 가벼워질게 아니요. 아마 내가 아들을 안고 사진을 찍는것을 텔레비존으로 보면 너무 기뻐 어쩔줄 모를거야.》

은옥은 끝내 그이품에 와락 얼굴을 묻고야말았다.

촬영이 끝나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로 오르시었다.

엊그제까지 줄곧 퍼부어댄 비로 하여 감시소로 올라가는 길은 온통 진창판이였다. 군데군데 짚놓은 물뚫으로는 아직도 시누런 흙탕물이 바지가랭이를 적시며 흘러내리고있었다.

감시소에 오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중대가 맡고있는 전투임무를 료해하신 다음 포대경으로 연평도를 바라보시었다.

《연평도... 이름난 조기어장이지.》

북쪽으로는 해주만, 동쪽으로는 강화군의 크고작은 섬들과 마주하고있으면서 주위에 소연평도와 당도, 모이도, 구지도 등을 거느린 연평렬도는 면적상 재도에 비해 수십배나 되였다.

문득 그이의 안팡에서 불꽃이 튀기였다.

《연평도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기동이 빠른 목소리로 설명해드렸다.

《가깝구만. 아주 가까워.》

《최고사령관동지, 지난 연평도포격전때 우리는...》 하고 뭔가 말쑤드릴듯 하던 한기동의 목소리가 푹 죽어들어갔다.

딱 조여맨 헝끼가 숨결을 따라 세차게 오르내렸다.

《중대장동무의 심정은 리해가 되오. 하지만 최고사령관이 일단 전투명령을 내렸다면 동무들도 용감히 싸웠을것이며 적들은 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재도만이 아닌 서남전선의 모든 초소들, 우리 병사들이 지켜선 이 땅의 모든 고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장동무!》

《예!》 하고 위순재가 한발 나섰다.

《동무야 나와 함께 하모니카중주도 해본 사람이 아닙니까?》

(하모니카!) 하고 위순재는 입속으로 받아외었다.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심원한 뜻이 안겨오는 순간이였다.

《싸움은 결코 독주가 아닙니다. 아까 오면서도 말했지만 나는 군대와 인민의 대단결, 언제든지 최고사령관의 뜻대로 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있는 수천수만의 초소들을 믿고 조국통일작전을 펼치고있습니다. 결전의 노래는 대합창으로 울릴것입니다.》

낮으나 저력있는 음성에 감시소가 즈렁 울리었다.

금시라도 그이께서 지휘하시는 통일대전의 우렁찬 대합창소리가 전전선을 뒤흔들며 울려 퍼질 것만 같았다.

감시소를 나서자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금빛해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 빛깔은 넓고 넓은 바다와 자그마한 섬들과 그리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조국의 대지를 고루 비치고 있었다.

경사급한 교통호를 따라 포진지로 내려오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평도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수수한 밤빛야전락을 내놓으시고 한기동에게는 쌍안경을, 1소대장에게 자동보총을, 1소대 1분대장에게는 기관총을 수여하시었다.

《서남전선의 최남단에 위치한 재도는 내가 중시하고있는 진지들중의 하나입니다. 재도방어중대동무들! 동무들이 올라가는 포소리도 조국통일진군가의 한소절입니다. 투쟁의 노래, 원쑤격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더 힘차게 울려가시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 만세!》

여기 선바위전설이 전하는 이야기처럼 온 섬을 뿌리채 뽑아올리는듯 한 소리가 바다를 뒤흔들고 백리에 울려갔다. 이 우렁찬 만세소리는 그저 웅함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선물에 실려 아름다우면서도 웅장하고 사색적인 곡조로 들려오는듯싶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은옥은 생각하였다.

(나도 그 선물의 한박자이다.

우리의 삶은 그 노래의 한소절이다.)

은옥은 지심깊이에서 솟구쳐오르는듯 한 무서운 힘에 떠밀리워 기슭으로, 기슭으로 자꾸만 밀려내려갔다. 배가 보였다.

그 배! 남편과 함께 타고왔던...

김정은동지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다시한번 섬을 둘러보시었다. 섬! 조국의 작은 땅... 그 땅을 지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스러운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는 전사들에게 마음을 놓아두고가시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조국을 그리안듯 전사들을 꼭 품어안으시었다.

《중대장! 동무들! 잘있으라구, 우린 가겠소.

나는 재도를 동무들에게 맡기고가요.》

그이께서 배사다리에 오르시었다.

순간 은옥의 가슴속에서도 뜨거운것이, 뚫어넘치는 무엇이 그 사다리를 피줄처럼 붙잡고 배전으로 뿔어져오르는것 같았다.

한기동이 정중히 거수경례를 올리며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바다길에 부디 안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섬을 목숨으로 지키겠으니 이 위험한 재도에만은 절대로... 다시는 오시지 말아주십시오.》

배는 떠났다. 병사들과 가족들이 물속에 뛰어들었다.

수평선너머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도 그들은 허리를 치는 바다물속에서 손을 저으며 《최고사령관동지, 다시 오시면 안됩니다! 오시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웨치고 또 웨쳤다.

뜨거운 태양이 바다를 덮히고있었다.

며칠후 섬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문화오락기재들이 도착하였다.

사단장 위순재가 직접 섬에 건너와 《하모니카》집세대주들에게 하모니카를 한대씩 나누어주었는데 그무렵에야 출장지에서 돌아온 정수학이 어린 아들과 은옥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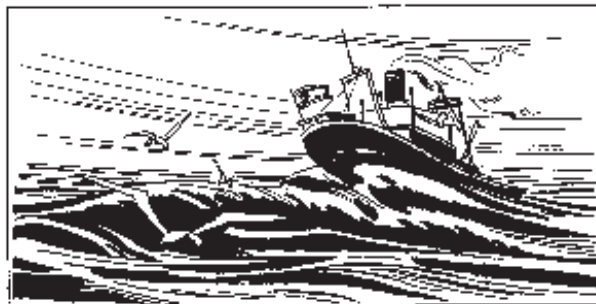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랑으로 우리 섬에 새집들이 건설되게 되오. 부중대장동무, 그때가시어머니도 모셔다가 새집들이를 보란듯이 하기로.》라고 위순재는 말하였다.

재도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섬이 되였다.

어제날의 낡은 《하모니카》집들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번듯하게 터를 닦고 나는듯 한 푸른 추녀를 떠인 새집들이 선경으로 펼쳐졌다.

허나 은옥의 가슴속에서는 변함없이 하모니카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그것은 귀중한 조국의 최후병인양 망망대해에 솟아있는 모든 섬들과 그 섬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답고 열렬한 삶을 소절들로 하여 이루어진 노래였다.



시 초

1 월 이 여

함 영 근

땅의 소원

농민의 소원은
만풍년농사를 잘 짓는 기쁨
하지만 땅이야
무슨 소원이 있으랴

그런 말 말라네
그런 생각 마시라네
앵두불 기술원처녀
땅을 대신해 말을 하는듯

땅의 소원은 한마디로
거름을 배불리 먹는것이라네
그래서 농민의 본분은
땅을 잘 갈구는것이라네

순간 포전엔
박수갈채 터지는데
누군가 한마디
불쑥 던지는 말
그를 보고 땅엄마라네

아, 소원 풀어준 은인
한생 잊지 못하듯
진정을 깡그리 다 바치는데야
땅인들 무심하랴

가는 정에
오는 정이라 했거니
땅의 소원 풀어주면
농민의 소원도 풀리리

빨간 머리수건

땅의 소원 풀어주자고
이른새벽부터
온 별이 들썩거리네
온 나라가 떨쳐나섰네

앞서거니 따르거니
달리는 사람
웨치는 사람
누가 누구인지 가려볼수 없어도
표나는건 빨간 머리수건

예쁜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말 안해도 다 알아

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심장에 피방울로 뛰는 처녀

등에 한짐 무뎌히 지고서도
가슴에 니탄덩이 안았네
어느새 총알처럼 뛰어가고
어느새 새처럼 날아오고

아, 그 모습 어쩔
전투장에 날리는 기발같아
달리는 기발같아
누구나 부르는 우리 선동원!

1 월 인 데 도

거름나르기 짧은 월참
포전오락회 신나는데
짚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총각
《풍년가》를 멋지게 넘기네

별난 총각 다 보겠지

1월인데도
10월인줄 아나봐
겨울인데도
가을인줄 아나봐

글쎄 제대군인 그 성격 어데 갈라구

제 눈엔 거름더미 쌀더미로 보인다나
원수님께 기쁨드릴
풍년가을 생각하면 새힘 솟는게지

아, 그래서 겨울에도

가을노래 부르는 총각
그래서 해짧은 겨울에도
해가 긴 여름에 사는 총각

다들 뛰는데

눈덮인 넓은 들판에
우뚝우뚝 솟아나는 거름더미들
자동차 트랙터들 분주스레 엇갈리고
농장원들 한데 엉키여
전투장은 붉은 쇠물가마 같은데

집에 그냥 있자니 오금이 저려서
담배불 비벼 끈 덕배로인
손달구지 끌고 집을 나섰네

짹짹이 마련한 거름
이거라도 한손달구지 날라야지

원수님의 말씀을 기어이 관철하자고
저렇게 다들 펄펄 뛰는데
작은 힘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야지
그래야 로친이 해주는 밥맛도 날테지
머느리 차려주는 밥상을 마주하기도 몇몇하리

포전에 울리는 노래소리

포전선동방송원의 쟁쟁한 목소리
—날 저무는데 그만들 하랍니다
벌써 이 말 세번째 하는데
전투장은 더 들끓네

전선으로 가시던 우리 원수님
거름더미 보시며 기뻐하실 생각
그 생각이 가슴들에 짝 차서

한삼만 더
한집만 더

이젠 방송원도 할수 없는지
들판으로 퍼져가는 절절한 노래소리
...하늘땅도 소원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1 월 이 여

시작과
첫걸음은
쌍둥이와 같은 말
시작이 절반이라 했거니
새해에 첫걸음 떼는
1월이 우리는 정들었네

1월이여
기쁨이여
새해에도 아름찬 행복이
금시 대문을 열고 들어올것만 같아

1월이여
희망이여
원수님 펼치시는 천만가지 일
인민의 기쁨이고 나라의 경사여서
하고싶은 일 너무나 많아
꿈은 창공에 나래를 폈는데

《마식령속도》의 불바람 안고
조국은
인민은
또 얼마나 비약할것이나

1월이여
맹세여
조국앞에 다진 맹세 구절구절 새기며
1년 열두달을 정초처럼 살자
내 조국의 만복이 약속된
뜻깊은 1월에 살자

아, 기쁨의 명절도 많고
원수님을 길이길이 모시고
내 조국을 쌀로 더욱 빛내여가리라
사람마다 생각도 많은
환희의 1월이 좋아!



변 창 룰

1

송원협동농장 기사가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농산과장으로 소환되어가자 4작업반반장이 기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런채반응으로 4작업반반장이 누가 될것인가 하는 얘기가 요즘 4작업반 사람들의 중요화제거리로 되었다. 오늘도 이른아침 모판에 나온 4반 3분조사람들은 의례히 그 이야기에 초점을 모으고 저저마다 제나름의 주장을 고집하며 떠들썩하고있었다.

《누구누구해야 반장은 1분조장이 될거야. 년한이라는게 있지 않아. 우리 작업반포전을 그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있나? 포전정리 책임지고 나왔던 농업성간부두 1분조장보구 〈숨쉬는 토지대장〉이라고 했더니까. 게다가 탐구심두 강하지 새 기술도 입에 민감하지...》

누가 반대라도 하는듯이 승벽이 나서 목소리를 높이는것은 소판리공 차준호이다. 그는 첫새벽에 소를 끌고 풀판에 나와 배불리 먹인 뒤라 기분이 좋아 마른 나래를 두르르 퍼놓고 그우에 안해가 싸들고 나온 아침밥보자기를 펼쳐놓는 참이었다. 차준호가 1분조장과 누구보다 막역한 사이인줄 다 알면서도 그의 객관적평가가 그만하면 정확한지 론박하는 사람이 없었다.

《탐구심하구 새 기술도입에서야 2분조장 파를 사람이 있어요? 도적인 새 기술전시회에서 두번이나 발명권을 받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이도 젊지. 성격도 사근사근하지. 그 사람이 반장이 되면 우리 4반사람들은 농사짓기가 수태 험해질거예요. 남들이 우렁이겨울나이를 잘못해서 절반나마 죽였을 때도 우리 농장에선 2분조장이 책임지고 한마리도 실수없이 겨울을 냈지요. 그 다음해 논김을 우렁이가 다 잡아서 얼마나 험하게 농사를 지었나요? 그러면

서도 정당소출은 최고였구요.》

마치 허바닥에 베아령이라도 달린것처럼 군소리 한번 내지 않고 말을 쏟아놓는것은 《신방송》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구정심아주머니이다. 원래 작업반이든 농장적이든 모르는 일이 없고 또 정확하기도 하여 《구방송》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신방송》이라고 하자고 제편에서 고쳐 붙인것이였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신정심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거 〈신방송〉 선전바람에 2분조장이 반장되는 건 떼논 당상인가부다.》

누군가가 씨까스르는 바람에 《신방송》이 발근해서 《반박방송》을 시작했다.

《아니, 그럼 내 방송이 거짓보도를 했단 소리야요? 발명권을 두번 받은건 엄연한 사실인거구, 나이가 젊어서 앞날이 창창한건 큰길막구 물어봐두 뻔한거구, 사람됨이 역구 샅샅한거야 타고난 천성인거구. 우렁이겨울나이한거야 우리 분조에서두 그 신셀 톡톡히 지지 않았나요? 난 당초에 거짓보도를 해본적이 없어요. 언덕반이에 세워놓아두 딱 중심을 잡고서서 바른소리만 하지요.》

《됐수다, 됐수다. 한번 터지면 그칠줄 모른다니까. 참, 말도 많아요.》

《어데 말이 많아요? 암만 둘러봐야 내 눈엔 소밖에 안보입네다. 말은 한마리도 안 보이는데 무슨 말이 많다는거예요?》

《하하하...》 《호호호...》

여기저기서 웃음소리들이 울렸다. 3분조장 춘화가 모판에 도착한것은 그때였다. 버짚으로 엮은 방풍나래가 그 무슨 방음벽이라도 되는듯이 내놓고 꺼리낌없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소리는 몇걸음 밖에서도 짹짹하게 잘 들렸다.

생각같아서는 그 쓸데없는 《간부사업》토론을

중지시키고싶었으나 춘화는 저도 모를 호기심에 방풍나래바자밖에 멈칫하니 서있었다. 분조원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겠는지...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대중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심정이었던 것이다.

《4분조사람들은 또 자기네 분조장이 반장이 될 거라고 해요. 군경영위원회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구, 도농촌경리위원회에두 삼촌인가 고모작숙인가 하는 사람이 과장사업을 본다나요. 일하면서 농업대학두 졸업했겠다, 당원에, 제대군인에, 인물잡나구 말잘하구 일잘하구... 전형적인 간부감이라는 거지요.》

남편이 4분조물관리공인 영실아주머니가 차분한 어조로 하는 말이다.

《그럼 거 4분조장두 후보자루 정식 등록합세다.》

차준호가 밥을 한입 문채로 우스개삼아 던지는 소리에 또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졌다.

잠시후 구정심아주머니의 정색한 어조가 또다시 침착하니 흘려나왔다.

《내 맘같아선 작업반통계원이 반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깐깐하구 이악하구 인정이 깊은지... 젊은 색시들 해산예정일을 정확히 알아두었다가 산전휴가를 제때에 받게끔 일일이 마음쓰지, 정미소출미물을 1프로라도 더 올리겠다고 베탄 한알 흘릴세라 뽀뽀 쏘아모아 기계에 넣더라구 정미공아바이두 여간 칭찬하지 않아요. 쌀 분배할 때 저울눈금을 두번세번 확인하구 한줌이라도 적게 갈가봐 본인보다 더 관심하지, 로력일평가공시할 때엔 0.1공수라도 틀릴세라 딱딱 대조해보고... 정말 통계원은 우리 농장원들이 무슨 큰 존재나 되는 것처럼 존중해주고 어렵게 대해준다니까요.》

그의 말을 궁정이라도 하듯 모판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또 그의 말꼬리를 이었다.

《아마 인민군대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할 때에도 그랬을거야. 그러니까 제대되어가는 길에 옛 소대장을 만나보겠다구 수백리길을 에돌면서 전우들이 찾아오지? 참, 쉽지 않은 일이지.》

화제의 중심은 어느덧 통계원 효순에게 옮겨졌다가 일상 다반사어로 번져졌다.

춘화는 마음이 야릇해졌다. 분조원들이 다른 분조장들에 대해서는 다 입에 올리면서도 유독 자기만은 쏙 빼놓고 슬그머니 에돈다. 자신이 마치 썸에 들지 못하는 존재가 된것 같아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춘화의 심증을 냄새맡기라도 한듯 물관리공 박웅태아바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 그런데 우리 분조장은 왜 빼놓고 지나가나?》

왜 그런지 누구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끌개논모내기를 오늘중으로 끝내야 우리 분조가 군적으로 1등을 한다고 분조장이 강조하지 않았나요? 빨리 서두르지요.》

선동원 영애의 쟁쟁한 목소리는 마치 수업종소리처럼 모판안의 분위기를 대번에 뒤바꾸어놓았다. 모두가 미구에 나타날 분조장의 존재를 몸가까이 느낀듯 서두르는 소리들이 분주하게 울렸다.

《3분조장동무!》

뒤전에서 부르는 소리에 춘화는 머리를 돌렸다. 영예군인으로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어 고향에 돌아와 작업반 통계원사업을 하고있는 춘화의 동창생 효순이가 동쪽에서 그를 부르고있었다.

춘화는 바빠 그리로 반달음을 놓았다. 모판안에 들어서기도 딱하고 밖에 그냥 서있기도 뭇하던 찰나에 효순이가 자기를 불러준것이 다행스럽기까지 했던것이다.

방금전 분조원들이 효순을 반장후보로 추천하던 소리를 귀땀해줄가 하는 장난קות은 생각을 하며 춘화는 효순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효순의 얼굴은 어찌서인지 좀 심각한 표정이었다.

《오늘 고급중학교 예술소조원들이 공연을 나옴대. 장소는 여기 송원천동쪽에서 하겠다니까 잊지 말고 조직해줘.》

춘화는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끌개논포전에서 이곳까지 왔다갔다하느라고 허비될 시간과 로력을 타산하고있었다.

《그리구...》하고 효순은 춘화를 똑바로 건너다 보았다.

무언가 질책의 빛이 어린 눈길이었다. 춘화는 공연히 긴장해져서 그의 눈길을 받았다.

《오늘 아침 5시반까지 안 나오면 0.5공수씩 빼겠다구 말했니?》

효순의 물음에 춘화는 스스럼없이 대답했다.

《응, 그랬어.》

오늘 마지막모내기에 분조의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기 위해 어제 작업총화뒤끝에 그런 말을 했던것이다.

효순은 미간을 약간 찡그리고 춘화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춘화! 내 생각엔 일이 잘된것 같지 않아. 로력공수가 분조장의 호주머니속에서 절렁거리는 동전뽀뽀라고 그렇게 척척 마음대로 내두를수 있어? 아까 3분조아주머니들이 모판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마치 0.5공수에 목이 매여서 일찍 나가는것 같은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구나.》

효순은 보탬도 꾸밈도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춘화는 예리한 비판을 받는것처럼 얼굴이 순간에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편으로는 효순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던 분조원들의 말소리가 귀전에 다시 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반장후보자 추천장면이 눈앞에 떠올랐다.

효순에 대해서는 춘화의 애인인 명식이기도 일전에 매혹된 심정을 감추지 않았었다.

《…역시 우리하곤 달라. 생각하는 각도두 그래, 사물을 보고 대하는 사고수준을 봐도 그래.… 확실히 우리하곤 다르거던.》

그때 춘화는 왜선지 《우리하곤 다르다.》라는 명식의 말이 《춘화, 너하고는 다르다.》는 말로 감수되면서 은근히 자존심이 상했었다.

명식의 얼굴에 비낀 표정이 더구나 춘화의 깊은 속을 건드렸다. 명식이와 처음 알게 되던 나날들과 불같은 사랑의 언약이 오고가던 잊지 못할 그 저녁이 그의 표정속에 그림으로 그린듯이 어려있었던것이다. 이즈음에 와서 별로 까다로와지고 엄해진 명식의 태도에 춘화는 불안과 위구를 느껴오던터였다. 그것이 효순과 자기의 인간적높이에 대해서 새로이 받은 느낌때문일것이라는 감각이 춘화의 심리를 예민하게 자극했다. 명식의 인간됨을 굳게 믿고있는 춘화였지만 그 심리는 속에 다롱다롱 매달려있다.

춘화는 명식이 역시 자기처럼 그 나날들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있으며 순결하고 뜨거웠던 그 감정들이 식어지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런던의 룩감으로 느끼고있었다. 하지만 어쩌서인지 요즘에 와서 자기들의 감정이 이전같지 않다고 자꾸만 마음이 씩여졌다.

《춘화, 너무 근심말어. 저녁총화시간에 농장원들앞에서 그 0.5공수문제를 사죄하는게 어때? 일만 일이라고 외뽕으로 생각하다보니 농장원들의 자각성과 열성을 모욕했다고 말이야. 진심으로 사죄하는데 통하지 않을리가 있니?》

춘화의 그늘진 얼굴과 침묵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효순이 이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웃었다.

《응, 그렇게 하겠어. 난 사실 사람들이 그 0.5공수를 모욕으로 받아들일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춘화가 선선히 응해나서자 효순은 마음이 가벼워진듯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물관리공 박웅태아바이 말이야. 어제 로력일공시를 하는데 그 아바이가 로력일공시판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구나. 그래서 〈아바이, 왜 로력일공시판을 보시지 않나요?〉 했더니

〈나야 뭐 보나마나 9가동에 12.6일텐데 뭐.〉 하지 않겠니. 그래서 들여다보았더니 아닌게아니라 9가동에 12.6공수더구나. 그 아바이는 물관리하는 짬짬에도 포전도로를 정리하고 후민산비료를 만드는 기술원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느 쉬는 날엔 비육분 조돼지우리도 손질해주는것을 보았는데 무턱대고 1.4공수씩만 주면 될가? 난 그 아바이가 로력일공시판을 쓴외보듯 하는게 마음에 걸려. 마치 내가 거기에 쓴것이 모두 그렇게 평가되는것만 같아서… 월재정공시도 그래, 년말분배결산공시도 그래, 웬태아바이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보나마나 뻔한걸〉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니?》

춘화는 효순이 면바로 급소타격을 한다는것을 깨닫자 저도 모르게 반작용하는 힘이 마음속에 뻗쳐오르며 온몸지 않은 대답을 하고말았다.

《물관리공로력일은 다섯개분조가 다 갈을거야. 그리고 몇년동안 문건을 들춰보아도 마찬가지구. 로력공시판이나 재정공시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데 있겠니?》

춘화의 말에서는 완력까지 풍기였다. 네가 농장원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는가? 나는 그들의 내장까지 다 꿰들고있는 년한있는 분조장이다 하는 속대사를 설명없이도 들을수 있었다. 효순은 아연해하는 눈빛으로 춘화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통탕거리는 프락포르소리와 함께 《춘화동무!》하는 부름소리가 동쪽밀에서 울렸다. 명식이가 차를 씻으려는 모양이다. 개울가에 들어선 프락포르운전칸에서 명식이가 춘화를 부르고있었다. 그의 손에는 꽃보자기에 싼것이 흔들거렸다. 어제 밤 자정이 지나 춘화가 밤참으로 가져다주었던 빈그릇들과 수저들이 서로 부딪치며 잘그락소리를 냈다.

춘화는 효순이앞에서 그만 당황해졌다.

영예군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그앞에서 자기가 너무 행복해보였고 명식이와 자기사이에 오가는 사소한 애정의 표현도 죄스러운감이 들었던것이다.

춘화는 장화신은 발로 물보라를 튀기며 프락포르결으로 달려가 꽃보자기를 나꿔챘다.

《동문 정말… 효순이랑 있는데서 큰소리로 찾으면서…》

《영?》

명식은 그제서야 작업반쪽으로 걸어가는 효순을 알아보고 머리를 썩썩 굽었다.

《뭐라나 뭐? 효순동무한테도 애인이 있는데 뭐.》

춘화는 뜻밖의 새 소식에 눈이 커졌다.

《그래요? 어데 있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 농장에 있어요?》

《허허…》

명식은 춘화의 쏟아지는 물음에 어이없이 웃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호순동무에게 애인이 없을수가 있소? 저런 처녀에게 애인이 없다면 거야 남자들의 수치지...》

《어마나! 이 동문 정말...》

춘화는 기가 막혀 명식을 밋지 않게 흘려보았다.

《춘화, 골개논 씨레질은 장관방처럼 매끈하게 만들어놔소. 아마 모내기능률이 최고로 오를거요. 어떻소? 오늘중으로 끝낼 자신이 있겠지?》

《예, 끝내긴 끝내야 할텐데 뜻대로 되겠는지.》

춘화의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따라 명식의 기분도 가라앉았다. 애인의 사소한 감정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명식이였다.

《왜, 무엇이 걸리오?》

춘화는 아무 대답도 않고 눈을 내리깔았다.

오늘 이른아침부터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이 커다란 불안의 덩어리가 되어 그의 마음에 무겁게 매달리는 것이었으나 그것을 명식에게 설명할수는 없었다. 춘화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아니예요. 애로되는건 없어요. 어서 들어가 눈을 좀 붙이세요. 일이 다 잘될거예요.》

춘화는 고무바깥에 물을 가득가득 퍼서 트랙트르동체에 시원스레 끼었다.

잠시후 멀끔해진 트랙트르는 통통거리며 개울가를 떠났다.

《참, 알고있소? 학생들이 공연하러 나온다고 했소.》

명식이가 운전칸밖으로 웃음을 내밀고 춘화를 향해 소리쳤다.

춘화는 알았다는듯 손을 높이 들며 머리를 끄덕였다.

싱싱한 모단을 가득 실은 차준호의 달구지가 개울을 건너 큰길에 들어서고 붉은 기발과 표어판, 이동속보판을 둘러멘 분조원들이 법석 웃으며 떠들며 동쪽길에 올라섰다.

작업반 비육분조에서 놓아준 오리와 계사나무리들이 개울을 향해 급속도로 질주해온다. 오리보다 걸음이 뜬 계사니들은 커다란 날개를 펼쳐치고 물을 향해 훨훨 날아갈 자세를 취했으나 마음과 기세뿐이지 풍기적거리리는 두다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 모양이 우습다고 처녀들이 깔깔대며 웃는다.

이 봄에 태어난 새끼염소들이 어미의 뒤다리짚에 대가리를 박고 열심히 젖을 빨다. 양증스런 꼬리가 바람에 나뭇기는것처럼 파들거린다. 아마 한창 단

젖이 뿜어나오는 모양이다.

생기와 활력이 넘쳐흐르는 봄날의 명랑한 대기와는 달리 춘화의 마음은 비구름을 머금은듯 무겁고 어두웠다. 왜서인지 명식이와 자기의 마음이 다른것 같았고 그로 해서 충돌이 있을것만 같은 예감이 그를 불안케 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명식이와 처음 낯을 익혔던 행수봉기슭의 그 여름날이 어제런듯 눈앞에 밟혀왔다.

2

그때 춘화는 샘터 《보초》를 서고있었다. 눈이 내린듯 하얗게 꽃을 뒤집어쓴 찰레덩굴이 서늘한 그늘을 드리우고 무성한 단풍나무잎새속에서 매미가 목청껏 울어대고있었다.

그밑 샘터에서는 분조아낙네들이 미역을 감고있었다.

원래는 볼품도 없고 물량도 씨원치 않은 자그마한 샘터였었는데 춘화가 품을 들여 커다랗게 넓히고 자갈을 날라다 깔았다. 주변에는 찰레덩굴과 구기자나무, 인동덩굴을 심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렇게 해놓으니 여러모로 좋았다.

파릇파릇 새움이 트는 봄철이면 거기에다 소형양수기를 설치하여 영양단지 찍을 물을 퍼올렸고 가을때에는 강우기로 밭에 물을 주었다. 인적이 없을때면 노루들이 내려와 목을 추기며 금은화의 질은 향기가 풍기는 인동덩굴에 코를 대고 흠흠 냄새를 맡다가는 제풀에 놀라 살진 엉덩이를 내두르며 숲으로 줄행랑을 놓기도 했다. 노루가 사라진 숲속에서 장끼가 푸드득거리며 날아오르고 메새들이 하늘 가득 풍겨오른다.

아기엄마들이 탁아소보육원이 데리고나온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고 애뜻한 정에 취해보는 주변의 잔디밭도 좋고 휴식시간이면 춘화가 구해오는 찰물과일들을 나누어먹으며 드문히 출판이 벌어지기도 하는 평퍼짐한 둔덕에도 그네들만이 맛보는 고유한 농촌정서가 깃들어있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진미가 삼복철의 미역감기였다. 땀에 뜬 몸들을 시원히 담그고 룡말과 우스개들을 주고받으며 목욕을 하는것도 좋지만 자기네들의 소박한 기쁨을 위해 진정을 바치고 땀을 아끼지 않는 기특한 처녀 분조장이 보초를 서준다는것이 고마웠다. 사실 자랑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작고 별로 특별한데가 없는 일이었지만 분조원들은 마치도 춘화가 그 누구도 해낼수 없는 큰일이나 해낸것처럼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

여기에다 매혹적인 이름까지도 달아놓자며 들썩거렸다. 그리고는 칭찬소나기를 들붓기까지 했다.

머느리를 얻으려면 서춘화같은 처녀를 얻으라고, 간부를 내려면 서춘화분조장같은 처녀를 후비로 키우라고...

군사복무 말기에 표창휴가를 받고 명식이 고향에 왔을 때 춘화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래서 명식은 그 처녀분조장을 만나보고싶은 누를수 없는 충동에 떠밀려 샘터가 있는 행수봉포전까지 오게 되었다.

전이 넓은 채양모자를 쓰고앉아서 새로 나온 농업기술잡지를 읽고있던 춘화는 난데없는 군인복장의 청년이 오솔길로 거침없이 올라오는 바람에 놀라서 일어섰다.

《저... 어데로 가십니까? 이쪽으로 오면 안됩니다.》

춘화는 서둘러 소리치며 그를 맞받아나갔다. 샘터에서 물끼였던 소리며 웃음소리, 말소리들이 푹 끊어졌다.

《여기로 왜 못 갑니까? 위수구역이라도 되는가요?》

명식은 군사대상물이라도 찾는듯 일부러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춘화는 겨우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위수구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됩니다.》

《그렇다면 말 좀 물읍시다. 서춘화라는 처녀분조장을 어데 가야 만납니까?》

《?!》

춘화는 어마지무 놀라서 명식을 마주보았다. 초면의 이 군인이 무슨 일로 자기를 찾는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그 처녀는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아는 사이인가요?》

춘화의 물음에 명식은 그를 유심히 마주보았다.

《아니, 한번도 만나본적은 없는데 꼭 만나보고싶어서...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지 우리 어머니는 벌써부터 그 처녀를 머느리감으로 점찍고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찔레덩굴밑에서 《와야-》하는 환성이 터졌다. 숨을 죽이고 그들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듣고있던 아낙네들이 터친 웨침이었다. 이어 목청을 돋군 말소리들이 튀어나왔다.

《그 체네가 우리 분조장이야요.》

《아저씨 대상안돼요. 뒤로돌아 하라요.》

《뽕짝말구 거기 있으라요.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인물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자요.》

명식은 녀자들이 당장 뛰쳐나오는것만 같아서 기겁을 하여 그 자리를 떴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명식은 춘화를 알게 되었다. 그때 표창휴가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명식은 춘화의 인간적매력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수 있었다.

남들이 극구찬양하는 그 모든것에 대해서 춘화는 모르고있는듯 아예 무관심했고 오직 분조와 분조원들을 위해 뛰어다녔다.

날이 흘러 휴가기간도 끝나 고향마을을 떠나던 날이었다.

명식은 역으로 나가다가 참외구력을 이고오는 춘화와 마주쳤다.

등넘어 남새반에 가서 참외를 구해가지고 분조가 일하는 일터로 가는 걸음이었다.

명식은 박두해오는 차시간도 아랑곳없이 참외구력을 빼앗아메고 일터로 향했다. 분조원들앞에서 자기 소개를 하겠다는것이였다. 집체적인 인물심사를 받겠다는 바람에 딱하고 당황해진 춘화는 명식의 배낭을 가슴에 불안고 오도가도 못한채 길가에 서있었다. 온통 팜투성이가 되어 달려온 명식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큰숨을 후- 내쉬었다.

《이젠 암만 날구뛰여두 5월차는 못 타겠으니 차라리 잘되었소. 그 유명한 목욕터구경도 하고 춘화동무의 바램도 받고... 분조원들한테는 내가 이야기했으니 가가요.》

명식은 이러며 싱글싱글 웃었다. 그 웃음을 머금은 눈빛이 춘화를 지그시 바라보고있다.

후리후리한 키, 쪽 빠진 허리, 완강한 의지와 깊은 리해가 어려있는 눈빛은 춘화를 향해 불꽃을 튀기고있었다. 춘화는 그 불꽃이 어느새 자기의 뱃까지 태우고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역을 향해 나란히 걸었다.

40리길이 왜 그리도 가까운지. 다음월차를 기다리는 5시간이 왜 그리도 짧은지. 침묵속에 눈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왜 그리도 심장에 남는것인지. 춘화는 그때 다 몰랐다.

그후 한해가 지나 명식은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사이 춘화는 적지 않게 변한듯 했다. 그에게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벌판풍경을 자유자재로 창조해내는 실농군으로서의 면모와 함께 리는 물론 군과 도에서까지 인정하는 경험있고 능력있는 초급일군의 체취가 강하게 풍겼다.

분조원들은 나이가 아예든 우이든, 오랜 지기이든 햇내기이든 분조장의 의사를 존중했으며 춘화의 분조에서 일하는것을 더없는 자랑으로까지 여기고있었다.

춘화는 자기의 성장한 모습을 명식에게 보여주게 된것이 기뻐다.

명식이 역시 자기의 불찰로 춘화의 명예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도 생길가보아 걸음걸음 마음을 쓰고 원심을 기울였다.

춘화는 자기의 힘과 능력이 한계를 모르고 높아

지는듯 한 희열을 종종 느끼곤 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무와 격려, 믿음과 기대가 자기에게 나래를 달아주고 신심과 배짱을 안겨주고있음을 춘화는 숨가쁜 행복감속에 가슴가득히 느끼고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것이 왜 지나간 추억으로만 생각되는것일까? 누군가는 사랑이란 꽃과 같아서 부단히 가꿔주고 물을 주고 보살피지 않으면 시들어버린다고 했다.

서로가 서로의 기대에 보답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는 사랑일 때 그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는 무엇을 놓치고있는것일까? 마음속에 어쩔수 없이 비끼는 그늘을 어찌서 기탄없이 터놓을수 없는것일까?

3

풀개논포전은 법석 끓었다. 포전방송이 불어대는 혁명가요런곡이 분조원들의 사기를 부쩍 돋구는 가운데 모내는기계들이 순식간에 푸른 주단을 이끌고 규격포전을 누벼간다.

아까 점심시간에 푸짐한 식사를 차려놓았던 정자나무그늘아래에 지금은 늙은이들이 결두리를 이고 나와 벌려놓고있다. 빨간무우조각이 섞인 봄통매추김치에 풋마늘, 먹음직한 고추장에 완두콩밥이다.

《은순이 할머니, 래일은 모내기 마지막날인데 한번 솜씨를 보이지 않겠어요?》

전날에 춘화가 한마디 비쳤을뿐인데 분조가족 늙은이들이 총동원되었다. 자칭 책임자격인 은순이 할머니가 어떻게 선동을 했는지 점심때에는 밤의에도 쭉떡과 콩국까지 곁들여내왔다. 춘화는 점심시간을 포전에서 보내는 가정부인들을 생각해서 늙은이들이 두어집씩 말아가지고 집일들을 보살피게 했다.

그렇게 바삭 다그친 보람이 있어 이제는 마지막 배미에 들어섰다.

《군적으로 제일 앞장에 선 4작업반 3분조의 모내기가 바야흐로 끝나가고있습니다. 분조관리체의 생활력을 파시하며 영농공정의 매 단계마다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해온 분조장 서춘화동무, 돌격전의 선두에서 기수가 되어 분조원들을 이끌어온 선동원 최영애동무, 지금 모내기현장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구정심아주머니와 강영실아주머니, 분조원들에게 힘을 주고 열기를 보태주는 심정으로 푸짐한 식사를 보장하고있는 어머니들…》

포전현장방송원은 어느새 분조원들의 이름을 죄다 외워가지고 현지방송을 멋들어지게 하고있었다.

《…래일 중앙텔레비죤방송야회가 군 고급중학

교운동장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군적으로 제일 앞선 4작업반 3분조전투원여러분들의 혁신적성과가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와》하는 환성소리가 들판에 울려퍼졌다. 드디어 마지막배미를 끝낸것이였다.

늙은이들이 두팔을 펴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농장원들은 논머리에 꽂아놓았던 붉은 기발들을 뽑아들고 기운차게 흔들고 모내는기계운전공과 공급수처녀들은 두팔을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른다.

농장기동선동대원들이 화려한 꽃목걸이들을 농장원들에게 걸어주는데 한쪽에선 사진기의 섬광이 연방 편뜯거린다.

춘화는 가슴후련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오늘의 이 성과가 현실로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긴장한 나날이 흘러왔던가. 나래와 후리채를 비롯한 모판영농자재를 마련하던 겨울밤들, 질 좋은 부식토와 퇴비를 한톤이라도 더 실어내려고 뛰여다니던 나날들, 류달리 늦추위가 심했던 봄날씨에 모들이 얼가봐 이불이며 모포까지 덮어주던 그날 밤에는 눈바람이 모질게도 불었었다. 영농과정에 필요한 자재며 어려운 식량문제도 분조원들모두가 너나 따로없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풀어나갔고 해결하곤 했다. 자기 집주변의 포전은 자기가 책임지자고 하면서 이른새벽, 깊은 밤 잠시간마다 영양단지를 빙고 씨를 묻었다. 모내는 시기에 긴장하던 로력문제도 분조원들의 자각적열성에 의해 수월하게 풀려나갔다.

모내기라는 하나의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환히 트인 앞날을 내다보는 춘화의 뇌리에 문득 번개처가는 생각이 있었다.

오늘 송원천동독에서 학생들의 예술공연이 있다고 알려주던 효순의 목소리였다. 명식이기도 굳이 자기에게 그 사실을 대주었는데… 마지막모내기라는 다급한 심정에 그 생각을 가망게 잊고있었으니… 춘화는 황황한 마음으로 분조원들을 둘러보았다. 분조원들은 모내기를 끝낸 희열에 떠있을뿐 다른 표정이 없었다. 분조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있는 것이 다행이였다.

만약 알고있었다면 얼마나 서운하랴. 학생들중에는 분조원들의 자식도 여러명 되었던것이다. 애당초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뜨아하게 여겼던 자기였다. 시간과 로력이 낭비될것이 걱정스러웠던것이다. 누군가가 일부러 풀개논포전까지 연락이라도 다시 올수 있었겠지만 분조장인 자기에게 직접 포치한 일이라 다시 사람을 보내지 않은것 같았다. 분조원들한테 죄스럽긴 했지만 그대신 군적으로 모

내기를 제일먼저 끝내지 않았는가! 춘화는 그것으로 자기를 위안했다.

저녁노을이 비낀 송원천은 일을 끝낸 농장원들로 흥성거렸다.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냈다는 자부심에 3분조사람들은 류달리 목소리가 높고 웃음소리 또한 탁 터진 듯 시원했다. 시샘이 난듯 1분조녀인 하나가 3분조에 대고 비양조의 말을 던졌다.

《아니, 거 3분조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 훌륭한 공연을 보지 못했소? 전국적으로 1등을 한 애들인데 만사제쳐놓고 봐야지.》

그 소리에 춘화는 속이 띠꺼웠다. 게다가 멀지 않은 곳에 서있는 명식의 프락포르까지 눈에 띄었다.

《아유—못 보다니요? 무슨 소릴 해요? 우리 3분조가 뭐 거기하고 같은줄 알아요? 우릴 위해 골개논포전까지 찾아와서 단독공연을 했던 말이에요. 단독공연! 아무렴 혁신자들을 찾아서 다니는 애들인데 골개논포전이 떨어져 못 올가?》

구정심아주머니가 야멸차게 맞받아치는 소리에 1분조에서는 말소리가 쑥 들어가버리고말았다.

《모를 소리다, 여기서 공연을 끝내고 8반쪽으로 떠나는걸 보았는데?》

4분조장이 머리를 기웃거리며 정말이냐고 묻는 눈길로 춘화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3분조선동원 영애의 쩡쩡한 목소리가 4분조장을 향해 날아왔다.

《트럼베트독주와 취주악 〈선군닐리리〉, 독주에 1학년 2반 문철룡, 〈닐리리 선군닐리리 닐리리 선군닐리리 총대를 앞세우고 걸으신 길 얼마라...〉 쿵쾅 쿵쾅 쿵쾅자자.》

그러자 약속이나 한듯이 3분조사람들이 합창으로 다음노래를 불렀다.

《〈산을 넘어도 단숨에 강을 건너도 단숨에 번개같이 불이 번쩍 단숨에 단숨에 단숨에 단숨에...〉 손풍금합주 〈단숨에〉!》

3분조사람들의 집단적인 반발에 개울가에서는 노래소리, 웃음소리, 물소리들이 어울려흐르며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으나 춘화는 복잡한 심정에 싸여 있었다. 그러니 우리 분조사람들도 이미 공연소식을 알고있었구나. 그런데도 저렇게 분조의 명예를 지켜나서는데 분조장인 나는 왜 한마디의 말도 못하는가? 문득 자기를 지켜보는 눈길을 등뒤에 느낀 춘화는 얼핏 뒤를 돌아보다가 명식이의 찌를듯한 눈초리와 마주쳤다. 이제까지 본적없는 실망과 환멸, 배신감마저 그 눈길에는 비껴있었다.

그 눈길앞에서는 그 무엇도 속일수 없을것 같았다. 누구도 모르는 속타산도 오직 자기 혼자의 비

밀로 지키려던 은밀한 그 무엇도 살살이 파헤쳐지고 드러날것만 같았다.

《분조장동무들은 관리위원회에서 초급일군회의가 있습니다. 15분후에 출발하겠답니다.》

동독에 나타난 비육분조 농장원이 개울가에 대고 소리쳤다.

오리, 계사나무리들이 제나름의 대형을 짓고 비육분조의 가금관리공을 따라섰다.

익살군총각이 그뒤를 따라가며 엉치를 잔뜩 내밀고 두손바닥을 잔뜩거리며 오리흥내를 내었다.

《박박박박, 우리 집은 어델가? 우리 집은 어델가? 오리오리 박박.》

그다음에는 두팔을 뒤로 뻗치고 길게 뽑은 목을 주억거리며 똥기적똥기적 걷는 모양을 하는데 꼭 계사나를 방불케 했다.

《꺅꺅—집두 모르네야, 집두 모르네야?》

아주머니들과 처녀들이 허리를 그러쥐고 돌아갔다. 다들 기분들이 붕—뿔었다. 춘화에게 그것이 다행한 일이었다. 잠시나마 명식의 눈길을 피할수 있었고 분조사람들과 마주서야 하는 웅색스런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었던것이다.

이때 폭발적으로 터지는 프락포르발동소리에 춘화는 흠칫 굳어졌다.

명식의 프락포르가 물보라를 건어차며 춘화의 앞을 지나 썩하니 달려갔다. 탕탕탕—명식의 불만이 시커먼 연기로 터져나오는듯 했다.

동독에는 벌써 분조장들과 반초급일군들이 여러 명 모여섰다.

춘화는 애써 마음을 진정하고 머리칼을 비다듬은 다음 옷매무시를 살피고 동독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농장초급일군회의에서 모내기를 다그쳐 빨리 끝낼데 대한 문제가 토의될것이며 자기네 분조의 성과가 만장의 갈채속에 소개되리라는것을 춘화는 벌써 예감하고있었다. 그러나 분조원들의 가슴속에 숨겨진 목소리들, 아직 자기귀에 와닿지는 않았으나 의혹과 비난이 어린 대중의 목소리가 춘화에게 모내기 1등이라는 환희를 기쁘게만 감수할수 없게 했다.

리초급일군회의는 밤이 이슬해서야 끝났다. 9개의 농산반은 물론 남새, 파수, 축산, 양잠, 기계화, 편의봉사해서 60여명의 분조장들과 반장, 부락당비서, 기술지도원예다가 관리일군들까지 100여명을 헤아리는 초급일군들앞에서 춘화는 본보기분조장으로 높이 평가받았다. 회의지도 나왔던 군경영위원회의 일군은 춘화를 가리켜 《관리위원장감》이라고까지 파분한 칭찬을 하였다. 군 고급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텔레비존방송야회자랑무대에 춘

화가 나서게 된것은 너무나 응당한 일이었다.

춘화는 돌아오는 길로 효순의 집에 들렀다. 그앞에서 자기의 고민을 씩원히 털어놓고 충고를 받고 싶었던것이다.

그런데 효순은 집에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까 저녁녘에 8반에 간다고 하면서 떠났다는것이였다. 8반이면 10리가 거의 되는 길인데 불편한 몸으로 거기는 무슨 일로 갔는지 의문이 들었다.

춘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식이네 집으로 향했다. 아무래도 오늘일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을것은 뻔한데 명식이한테 먼저 용서를 청하고싶었던것이다. 골목길에서 서성거리다가 마침 명식의 이웃집 처녀애가 지나가는것을 붙잡아세우고 명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잠시후에 명식의 집에 들어갔던 처녀애의 말이 《명식오빠는 집에 없어요.》한다. 8반에 올라갔다고 한다. 명식은 또 왜 8반으로 갔을까?

춘화는 저도 모르게 8반으로 향한 길을 따라 몇 발자욱 걸다가 스르시 멈추어섰다. 왜서인지 마음이 움츠러진것이다. 초생달이 웃고있는 밤하늘에 무수히 널린 별들이 그대로 내려앉아 반짝이는 논밭에서 개구리들이 태고적부터 불러오는 한가지 곡조의 노래를 오늘도 꾸준히 읊조리고있었다.

인적없이 고요한 그 길 어느 굽인돌이에서 문득 명식이를 만난다면 자신은 무슨 말을 할수 있을것인가? 아니, 명식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할것인가? 어떤 운명적인것이 자기앞에 다달은것만 같아 춘화는 추위를 타듯 몸을 웅송그렸다.

4

선동원 영애에게 분조일을 부탁한 춘화는 개울가에서 흙물 툴 작업복웃옷을 빨아 깨끗한 자갈판에 널고나서 머리를 감았다.

이제 오후빠스를 타고 읍에 들어갔다가 래일 돌아오게끔 일정이 조직되어있었다.

텔레비존방송야회에 출연하는 혁신자들을 위해 새로 개업한 국수집에서 특별봉사를 준비하고있는데 그에 뒤질세라 상점과 편의봉사망들에서도 자기들의 성의를 받아줄것을 제기했다 한다.

춘화는 방송야회무대에서 발언할 내용을 머리속에 정리해보며 개울가를 떠났다. 집에 들어와 다리미질을 하는데 밖에서 찾는 소리가 나더니 효순이가 들어섰다. 춘화는 먼저 어제 밤 8반에 갔던 이유를 묻고싶었으나 애써 참고 웃는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10일로력공시날자가 되어서 로력일평가계산서

를 받으러 왔어. 닷새동안 바치지 않은것 같애.》

춘화는 선뜻 일어나 작업복웃옷을 찾다가 그것이 창밖의 빨래줄에 널린것을 보자 흠칫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할 때 평가계산서를 꺼내어 돌밑에 지질러놓았었는데 그만 잊고 그냥 들어온것이였다. 그러나 사실그대로 말하고싶지 않아서 얼른 판전을 부렸다.

《이 정신 좀 봐. 영애에게 준 선동자료잡새기에 끼워넣었었는데… 내 이제 곧 갔다올테니 기다려.》

춘화는 서둘러 일어나 신발을 찾아신었다.

《그럼 내가 래일 영애한테 달라고 하지뭐. 갈차비가 바쁘겠는데 언제 일터에 갔다오겠니? 그만뒤.》

효순이가 만류하는 소리를 등뒤에 남기고 춘화는 바빠 개울가로 뛰어갔다. 하지만 로력일평가계산서를 놓았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혹시 바람에 날려 물에 떨어지지 않았나 하여 여기저기 기웃거리보았으나 허사였다. 돌로 지질러놓은것이 바람에 날릴리 만무였다. 조무래기들의 손에 들어갔다면 야단이다. 종이만 보면 비행기나 딱지를 만드는 조카애와 같은 아이의 손에 걸려들어 벌써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형체없이 짓이겨졌을는지 어이 알랴. 이럴줄 알았으면 차라리 효순에게 사실대로 말했을걸. 하루이를 지체되더라도 농장원들의 개별수첩들을 보고 다시 기록하면 될일을 거짓말을 해버렸으니 피차 면구한 처지에 놓이게 된것이였다.

거짓말이란 약한자의 방어수단이란 말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어쩌서 약한자의 명에를 만들어쓰는걸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다.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날 로력일평가서문제로 효순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게 된것이 마음에 언짢았다.

이제는 하는수없이 사실그대로를 터놓을수밖에 없을것 같았다.

춘화는 호-하고 한숨을 쉬고나서 집으로 향했다. 다행으로 효순은 집에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명식이가 왔었는데 효순이와 몇마디 나누더니 인차 나갔다는것이였다.

한쪽으로 안도의 숨이 나가는것과 함께 의혹이 갈마들었다.

어제 저녁부터 그들은 어떤 일을 남모르게 벌려놓은걸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효순이가 반듯하게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놓은 옷을 벗겨입고 거울앞에서 화장을 하면서도 춘화는 머리속에서 지못게 땀도는 생각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명식이와 효순의 행동이 모름지기 자기와 련관된 일일것이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드는것이였다. 무엇인지는 알수 없

으나 자기의 처지를 난처한 골목에 몰아넣을것만 같았다.

손가방속에 세면도구와 화장품을 넣어 말코지에 걸고나서 춘화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라도 효순을 찾아가 평가제산서문제를 더놓을것인가 아니면 기억을 더듬어 닻새동안의 로력일을 새로 기입하여 가져다줄것인가? 닻새동안의 가동정형은 머리속에 환했다. 산전산후휴가 2명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 한명을 내놓고는 100프로 가동되었던것이다. 매 사람의 로력일이 아리까리한데 그것도 도토리 키재보기였다. 모판관리공과 물관리공, 모내기기계작업조의 로력일은 거의 고정되어있는것이고 특별히 실적을 많이 낸 사람과 중간정도, 실적이 좀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놓으면 비교적 정확한 평가서를 작성할수 있었다. 춘화는 평가서용지 몇장을 꺼내놓고 날자들을 쓴 다음 농장원들의 이름을 적어넣었다. 작업명과 실적은 마지막에 기입할 작성으로 먼저 로력일부터 올리기 시작하였다. 3일분을 정리하였는데 밖에서 《춘화동무!》하고 부르는 명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서인지 며칠동안 만나지 못했던것처럼 새삼스런 반가움을 느꼈다.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명식을 맞아들이더니 러발에 심은 풋절이를 슈으러 나간다면서 뒤결으로 돌아갔다.

춘화는 앉은책상우에 쓰던것들을 그대로 놓아둔채 명식을 맞이하였다.

《뭘 쓰던 길이요? 토론원고요? 내가 좀 보아줄가?》

명식은 우선우선하면서 책상우의 종이장들을 훑어보았다.

《5일분의 평가서를 그만 잃어버려서 새로 정리하했어요.》

춘화는 이러며 종이장들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명식은 미간을 찌프리더니 말없이 춘화를 지켜보았다. 그 눈길은 몹시 착잡하게 느껴졌고 어찌 보면 반신반의하는듯도 했다.

《동문 왜 점점...》 하고 명식은 입을 다물었다. 점점 어떻단 말인가? 춘화도 명식을 끝추 바라보았다.

《어제일은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요?》

명식은 나직하나 엄하게 물었다. 춘화는 의아한 얼굴로 생각을 더듬었다. 어제일이란 무엇을 넘두에 둔것인가?

《그러니 아예 생각도 않고있었소?》

《뭘 말하자는거예요?》

춘화는 불쑥 나무람이 들어서 마뜩지 않게 되물었다.

《학생들 예술공연 말이요. 분조장이라는 사람

의 량심이 그게 다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8반에 찾아가 음악소조선생과 공연조직문제를 토론했어야지. 8반이 그래 여기서 백리요, 천리요? 었다면 코당을텐데...》

《?!...》

춘화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니 명식이와 효순은 바로 자기가 저질러놓은 그 일을 바로잡자고 8반에 갔었구나.

나는 이미 지나간 일로, 끝난 작업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꼭 해야 할 일로, 마무리 못한 작업으로 받아들인것이였다.

《어제 개울가에서 3분조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떠드는것을 보고 난 동무가 그걸 그 어떤 비판이나 충고보다 더 아프게— 받아들였을줄 알았소.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8반으로 찾아갈것이라고 믿었소... 그런데... 오지 않더구만. 회의에 참가했던 8반분조장들한테서 동무에 대한 칭찬을 듣기가 몹시 거북했소. 그런데 효순동무가 왔더라 말이요. 군적으로 1등한 3분조농장원들이 학생들의 공연을 보지 못했는데 다시한번 공연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이요. 여기서 8반이 어디요? 10리가 넘는데... 그 불편한 몸으로 그 먼델 찾아왔더라 말이요.》

《...》

춘화는 할말이 없었다. 자기보고는 여기서 8반이 었다면 코당을테라고 하더니 효순이는 그 먼곳까지 찾아왔더라고 하는 명식이의 대비가 가슴을 쿡 찢었지만 대꾸 한마디 할수 없었다.

이렇게 찾아와 기탄없이 마음속 끓은 곳을 터쳐주고 밤길을 걸어다니며 애인의 실책을 씻어주려 애쓰는 명식이가 더없이 미덥고 고마웠다.

《명식동무, 제 잘못이 많았어요. 저때문에 공연히 동무까지 마음을 쓰게 해서 미안해요.》

춘화가 진심에 넘쳐 사죄했으나 명식의 태도는 풀리지 않았다.

《나한테는 용서를 받았다 치기요. 하지만 농장원들한테는 어떻게 사죄하겠소? 로력일평가서도 그렇지. 언제는 마치 0.5공수가 큰 혜택이나 되는것처럼 내흔들면서 사람들을 모욕하더니 또 지금은 그까짓 한두공수쯤 차이나는게 무슨 큰일이냐 하는 식으로 어림짐작 평가서를 꾸며대고있으니...》

춘화는 눈길을 떨구었다. 그제서야 명식이 무엇때문에 성이 났는가를 깨달은것이였다.

《난 동무가 그런 거짓말쟁이인줄은 여태 몰랐소. 대중을 속이고 자기 량심을 속이고...》

(애인까지 속이고...) 하고 춘화는 입속으로 뇌이였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있던 명식은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춘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

명식의 목소리는 피로움에 갈려있었다.

놀란 심장이 쿵! 하고 울리더니 와르르 무엇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전에 분명히 들리는듯 했다. 저도 모르게 왈칵 설음이 솟구치며 춘화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춘화는 명식이가 언제 나갔는지 도 몰랐다.

행복의 동산으로 건너가는 마지막징검다리가 큰 물에 휩싸여 종적없이 사라지고 물가에 홀로 남은 어린애처럼 춘화는 겁에 질렸다. 명식은 아마도 평가서를 찾지 못해 강가를 오르내리며 애를 태우는 나를 기대했을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예술 공연문제때문에 자책감으로 모태기고있으리라 믿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중 어느 한가지도 그의 뜻에 따르지 못하였을뿐더러 그 어떤 가책도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있었다.

명식이와 효순이가 것처럼 원심을 기울인 공연문제를 나는 이미 막을 내린 무대를 바라보듯 무심히 대하지 않았던가!

사랑이란 두사람의 심장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했다.

그 불꽃들이 합쳐져 더 큰 불길을 이루고 인생을 눈부시게 밝힌다고 했다. 분명 그러한 불꽃은 우리 두사람의 심장속에서도 타올랐었다. 춘화는 그 불꽃이 이미 합쳐져 불길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것은 허상이었던가? 착각이었던가?

《...대중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춘화는 명식이 처음 자기와 사귀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그때 우리들사이에 어떤 개별적인 인연이 따로 맺어진적이 있었던가? 명식은 춘화의 분조에 대한 사랑, 농장원들에 대한 헌신에서 그의 뜨거운 심장을 보았고 사랑앞에서도 것처럼 열렬하고 진실하리라 굳게 믿어지더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러니 오늘날 명식이 춘화의 위선적인 행동에서 사랑마저 의심하게 된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사회적집단을 떠난 순수 개인의 사랑, 대중의 운명을 외면한 개인의 사랑이란 있을수도 없고 또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는 말마디들이 명식의 입을 통해 춘화의 심장을 막 두드려댔다.

춘화는 눈물을 씻고 머리를 쳐들었다. 마주한 거울속에서 엄숙한 표정을 지은 자기의 얼굴이 의미심장하게 마주보고있었다.

손님들을 다 태운 뺨스는 더 탈 사람이 없는지를 이윽히 기다리다가 부르릉 자리를 뗐다.

춘화는 멀어지는 뺨스를 눈으로 바래우며 한자리에 서있었다.

텔레비존방송야회에 참가하러 떠난 걸음이었으나 자신에 대한 불만감과 농장원들에 대한 죄스러움, 명식에게서 받은 충격때문에 끝내 단념해버리고만것이었다.

춘화는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분조포전을 한바퀴 돌아보려는것이였다.

모살이가 끝난 논벼들이 아지치는 소리가 금방 들리는듯 했다. 방동사니며 돌피가 성하던 논배미에도 풀 한대 없이 깨끗하다. 우렁이들이 김을 잡기 시작한것이였다.

식물성살충제를 분무기로 뿌리며 시약공이 논판을 누벼간다.

작을 내밀기 시작한 논두렁콩이 땅깍데기를 조심히 들치고 봄날의 대기를 호흡하고있었다.

춘화는 신발을 벗고 논물에 들어서서 아지를 세여보고 물꼬끼리벌레가 끼지 않았는가 유심히 살펴보았다. 논머리의 나비등들이며 촌촌한 논고바자며 맞춤형 물높이... 물관리공 웅태아바이의 세심하고 주인다운 일본새가 구석구석에서 알린다.

춘화는 다시 큰길로 올라와 길건너편언덕의 강녕이밭에 눈길을 부었다.

후치질명수 차준호의 솜씨가 어떤가를 보려 오라는듯 강녕이이파리들이 팔을 짓는다. 바랭이, 닭개비, 능쟁이같은 잡초들이 뿌리가 굳어지기 전에 후치밥속에 파묻혀버렸다. 저 끝까지 일매지게 푸른줄을 그은 강녕이밭은 깨끗하고 싱싱했다.

이렇듯 성실하고 꾸준한 로동의 자취가 이랑이랑 새겨져있고 그 어떤 명에도 직위도 탐내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 포기마다 비껴있는 이 땅, 그들이 과연 몇공수의 로력일때문에 날마다 해마다 변심없이 이 벌에서 사는것일까?

그 어떤 보수에 대한 약속이나 앞날에 대한 유혹에 끌려 곡식을 자래우고 땅을 살찌우는것일까, 아니면 분조장인 자기의 강한 요구성과 빈틈없는 로력조직이 그들을 포전으로 불러내는것일까. 바람과 불벌에 타고 눈비를 맞으면서도 일터에 나와야 땀땀해하는 사람들, 버리고는 살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 그들은 사시절을 벌에서 사는것일까? 춘화는 비로소 오늘에야 이런 물음을 자신에게 던져보았다.

농민의 본분을 지켜, 사회적인간의 도리를 지켜, 조국의 번영을 위해 그들은 운명을 걸고 농장벌에

서 자기의 인생을 가꾸어간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었던가. 마치 스위치를 넣으면 돌아가는 기계같이 나의 말 한마디에 따라 멎기도 움직이기도 한다고 여기지 않았던가.

농장적인 1등의 영예, 군적인 1등의 월계관이 바로 나의 능력과 조직력이 낳은 결실이라고 언제부터 자부하기 시작했던가. 농장원들에 대한 실무적인 태도, 자기파신에 도취된 그때부터 명식은 나의 심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을 사랑하는 진실한 심장이 없을 때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리치이다.

(명식동무! 구태여 찾아가 반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동문 나를 잘못 보지 않았어요. 꼭 기다려주세요.)

춘화는 송원천다리란간에 기대어서서 간단없이 울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손가방에서 아가 정리하던 로력일 평가서를 꺼낸 춘화는 그것을 꼬깃꼬깃 구겨서 흐르는 물속에 던져 버렸다.

춘화는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꺾어들었다. 읍으로 곧추 트인 큰길로 달려가는 뺨스가 아스라하니 바라다보였다. 분조원들이 일하는 솟돌모루강냉이밭으로 가서 로력일평가서를 정확히 작성할 심산이었다.

모든것에 대해서 그들앞에 털어놓고 용서를 받고싶었다.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이때 작업반쪽에서 트랙토르가 달려오더니 명식이 내려섰다. 명식은 아무 일도 없었던듯 춘화를 보고 물었다.

《아니, 왜 뺨스를 타지 않았소? 분조원들이 동물 배래워주겠다고 쌍바위고개길옆에서 기다리겠는데...》

춘화는 눈길을 들어 읍으로 통한 길을 바라보았다. 쌍바위앞에 서있던 몇사람이 이쪽을 향해 내려오는것이 보였다.

《자, 어서 올라타요. 마침 자재공급소에 미량원 소비료를 실으러 가라고 해서 떠난 길이요. 방송야회에 늦겠소.》

명식이 재촉했으나 춘화는 선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어서 가세요. 전... 안 가요.》

《안 가다니? 무슨 소릴 하는거요? 동문 분조장이란 말이요. 분조원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그들의 이름을 대변해서 나설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저 혼자 생각만 하는거요?》

춘화는 원망어린 눈길로 명식을 바라보았다. 명식은 씩 웃었다. 춘화는 못 본척 외면하고 언덕길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분조장동무!-》

영애의 쟁쟁한 목소리가 울려온다. 푸른색머리수건이 춤추듯이 나뭇기고 앞으로 내민 들꽃뭉음이 사람보다 먼저 달려온다. 이어 춘화를 에워싼 분조원들의 얼굴에는 자랑과 긍지, 기쁨의 미소가 한껏 어려있었다.

《이제 가게 되면 큰소리를 땡땡 치라요.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것처럼 우리 분조에서도 팡! 하고 통장훈을 부르겠다고 말이에요.》

《신방송》아주머니의 자신만만한 목소리다.

《그렇지 않구. 별거 있나? 가꿀타인걸, 벌써 작황이 좋아 마음놓고 큰소리를 쳐도 돼.》

웅태아바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하는 소리다.

《분조장덕분에 오늘 우린 단독공연을 보았다우. 우리 철룡이 나팔부는걸 보구 모두 내가 낳은 아들이 맞느냐고 하겠지.》

철룡이 어머니가 하는 소리에 춘화는 붉어진 얼굴을 숙이며 간신히 대답했다.

《철룡이 어머니, 용서하세요. 사실은 그날 제가 공연이 있다는걸 알면서도...》

《별걸 다 가지고 용서고말고 해요. 그러게 오늘 단독공연을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으쓱해지던지.》

구정심아주머니가 춘화의 말을 막으며 더 다른 말을 못하게 했다.

《아니, 아니예요. 단독공연도 제가 조직한게 아니예요. 통계원이랑 밤중에 8반까지 올라가서...》

《3분조장동무야 그때 관리위원회에 회의참가하러 갔됐으니까 명식동무랑 나랑 갔됐지요 뭐.》

등뒤에서 울리는 효순의 목소리에 춘화는 그쪽으로 돌아섰다.

《3분조장동무, 개울가에 놓았던 평가서를 찾았어요. 걱정말고 어서 떠나세요.》

효순이 작은 소리로 말하며 손에 권것을 내밀었다.

《비육분조 가금관리공이 오리방목하러 나갔다가 얻었다고 하더군요. 난 3분조장동무가 어쩐지 이 평가서때문에 떠나지 못하고있을것 같아서 급히 오는 길이에요.》

《!...》

춘화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야말았다.

《통계원동무! 난 사실 아까 대강집작으로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냈어요. 그런데...》

《원, 그것때문에 속을 태우면서 뺨스까지 놓쳤나?... 하긴 분조장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서야 안되지.》

응태아바이의 생각깊은 목소리였다.

그는 담배 한대를 말아 몇모금 빨고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사람이 일을 하느라하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수도 있지. 요즘 분조장이 오죽 바쁜 때인가?... 중요한건 잘못을 솔직하게 터놓고 주위사람들의 충고를 허심하게 받아들이는 그 진실한 마음이지. 우리 분조사람들은 분조장의 많은 장점가운데서 그걸 제일로 여기고있네.》

춘화는 응태아바이의 뜻밖의 칭찬에 더욱 얼굴이 붉어졌다.

구정심이 춘화의 곁에 다가섰다.

《오늘 오전에 관리위원장동지가 우리하고 공연을 함께 보았어요. 공연이 끝난 다음 우리들은 관리위원장동지에게 4반반장감은 우리 3분조장이라고 한결같이 제기했어요.》

《?!...》

놀라움과 의문에 굳어진 춘화에게 응태아바이가 무게있게 말했다.

《분조장처럼 일잘하고 진실한 사람을 반장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우리 늙은이들도 한사람같이 말했다네.》

사람들속에 섞여 춘화의 얼굴만 바라보던 차준호

도 한마디 했다.

《우리 분조장을 내놓기 아깝지만 누구든 또 못지 않은 사람이 분조장이 되리라고 믿네. 아무렴 호랑이가 시라소닐 달고다니겠나?》

《우리 분조장이 반장이 되면 올해엔 우리 분조가 군적으로 1등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작업반이 1등을 할거야.》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도적으로 1등작업반이 될수도 있어.》

분조원들은 마치 춘화가 정식으로 반장이 되기라도 한것처럼 이구동성으로 떠들었다.

춘화는 그들앞에서 몸둘바를 몰라하며 진정으로 말했다.

《전 반장은 고사하고 분조장자격도 없는 사람이예요.》

《자격이 있고없고 한건 이제 며칠 있으면 알일이고 오늘은 어서 떠나세요. 방송야회에 늦겠어요.》

《신방송》 구정심이 춘화를 프락포르쪽으로 떠밀고가며 하는 소리였다. 분조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떠받들리어 춘화는 프락포르에 올랐다.

풍요한 결실을 예고하는 푸르른 논밭이 가벼운 바람에 설레이는 들길로 프락포르는 경쾌하게 달려갔다.

탄부의 행복

박 상 민

탄부의 행복은 무엇

내 막장에 들어설 때면

번쩍이는 탄벽이 묻는듯

그러면 나의 심장은 대답한다

태어난 고향은 여기서 멀고

어릴적 나의 꿈은 창공에 날았어도

나는 지금 깊은 막장에서 탄을 캔다

여기서 나의 꿈을 꽃피운다

인민경제선행부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선 석탄전선

그 전선의 앞장에 나의 좌지가 있다는것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며 영광이나

강철도 전기도 비료도 천도...

그 기적의 뿌리 막장 여기에 내려있거니

나는 지금 채탄기를 틀어쥐고

온 나라 전선의 돌파구를 열고있다

보아라 진주보석에 비기지 못할

번쩍이는 검은금

나를 반겨주는

이 탄을 내 어찌 사랑하지 않으랴

탄은 나의 위훈과 창조의 길동무

탄은 또한 내 조국을 빛내이는 열과 빛!

그것으로 행복은 더해져라

탄차의 흐름이 탄부의 기쁨이고

석탄의 무게가 탄부 총정의 무게다

새해의 이 아침에도 탄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 가슴에 안고

나의 행복 조국의 기쁨인 탄을 캔다



리 룡 운
그림 김 광 석

무성한 숲의 울창함과 웅건함은 그 하나하나의 아름답디 거목들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자기의 소박한 멋을 그 자태에 간직하고 그 머리에 띄우고 서있는 나무들. 묵묵히, 그러나 역세게 자라는 나무들!

그 나무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품고 설레인다. 숲을 이룬다, 밀림을 이룬다.

그 숲의 바다를 이룬 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홍광철은 사무실밖을 나서 갱건물들을 한바퀴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푸릿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배경으로 갱뒤에 솟은 로두봉이 별로 거악스레 안겨왔다.

여섯시가 가까와오는 새벽의 한겨울의 뿡뿡한 공기가 별로 건강치 않은 그의 폐장을 찌르르 훑어내리며 흘러들었다.

갱입구에 있는 권양기실이며 마광장, 영양제식당을 거쳐 저편에 널찍하게 뒹아놓은 운동장과 그뒤에 2층으로 크게 올려지은 집집승우리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돌아보았다.

××광산 3갱의 갱장으로 사업하는 근 15년간 이것은 광철의 몸에 땀수없이 붙은 습관이다. 산비탈을 따라 광산사택마을 뒤에까지 내려지는 선광장에서는 간밤에도 쉬임없이 일한 자랑을 알리려는 듯 기대 돌아가는 소리가 쿵쿵 들려왔다. 모든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느닷없는 한숨이 후- 하

고 흘러나왔다.

어제 낮에 광철은 광산초급당위원회에 찾아가 당장 받기로 되었던 2중3대혁명붉은기판정을 보류시켜줄것을 제기했던것이다. 정작 그런 일이 있는 뒤 이렇게 흠할나위없이 꾸러진 갱을 돌아보자니 마음 속에 돌덩이라도 들어앉은듯 하였다.

갱설비수리소앞을 지나던 광철은 멈칫했다.

이 새벽에 그안에서 불빛이 환하게 쏟아져나오는 것이다. 다가가 넌지시 창너머로 들여다보니 누군가가 작은 수리용의자에 앉아 앞에 놓인 권양기용 전동기를 불안고 잠들어있었다.

(누굴까?!)

수리소문을 소리없이 열고 들어선 광철이 조용히 다가가보니 그는 뜻밖에도 갱보전공청년이였다. 크지 않은 수리소안은 한켠 구석에 놓인 철심전조용로가 있어 제법 훈훈한데 굳잠이 든 그의 등에서 흘러내린 땀이 바닥에 떨어져있었다. 광철이 땀을 집어들고 다시 조심히 썩워주는 서슬에 그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갱장을 알아보고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신새벽에 여기 있소?》

무뚝뚝한 갱장의 물음에 그는 엉거주춤 일어서며 아직 잠기가 채 가는지지 않은 목소리로 얼떨떨히 대답했다.

《거 뭐, 엇저녁에 보자니... 전동기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어서 집에 내려가고, 다문 얼마라도 다릴 퍼구 자야지!》

광철은 이렇게 말하고서 수리소를 나섰다. 다시 창문앞을 지나며 얼핏 들여다보니 그는 본래의 그

자세로 전동기를 부여안고 잠을 청하며 뭐라고 중얼거리는듯 했다. 혹시 새벽단잠에서 자기를 깨운 갱장을 나무라는지도 모른다. 그것을 보는 광철의 마음은 어쩐지 새벽의 추위속에도 따뜻해났다. 한때 무분별한 자유주의와 못된 술버릇으로 온 광산에 소문났던 사람, 재간은 있으나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 어디서도 함께 일하겠다는 곳이 없던 그였다. 그러다보니 광철이 그를 데려오자고 할 때 뒤말이 분분하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철이 한 말은 길지 않았다.

《잡초라는 말에 어떤 뜻도 있는지 아오? 아직 그 리용가치를 찾지 못한 풀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요.》

그런 그가 이제는 저렇듯 갱의 모든 설비들을 돌봐야 하는 말은 일에서 책임성이 높고 보람도 찾을 줄 아는 갱의 보배덩이로 되었다. 누구나 와서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는 갱의 고속화, 원격화, 현대화도 그의 천부적인 재간에 안받침된 자각된 정열의 산물인 것이었다. 불현듯 광철은 시창기를 느꼈다. 어제 밤늦어 안해가 올러온 밤이 보온밥통 안에서 아직 식지 않았을 것이다.

(저녁석때문에 아침밥은 또 설쳤군.)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즐거웠다.

광철은 선광장우에 멋스레 올려지은 정각의 합각지붕 꼭대기에서 아직까지 깜빡이는 장식등을 끄고 돌아서다 또다시 긴숨을 내쉬었다.

요즘 잠시도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있는 4편도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이다.

광철이 2중3대혁명붉은기칭호쟁취운동판정을 보류해달라고 제기한 것도 사실은 이 4편도문제 때문이었다.

갱개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곳 3갱의 여러개 편도중에서 그중 채광전망이 좋다고 하던 것이 바로 4편도였다.

그러던 것이 돌연 광맥이 푹 끊기었다.

굴진에 거의 모든 역량을 돌려 근 보름간이나 조려됐는데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언제 여기서 광석을 캐냈더냐싶게 광맥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며칠전에는 광산적인 기술실무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었다. 치고 받기로 수많은 론의 끝에 회의분위기는 립시 4편도를 폐쇄하고 당면한 생산 계획이나 끝내고 보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아니, 안됩니다. 우리 갱에서는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도 4편도를 꼭 다시 살려내자고 토의되었습시다. 노동자동무들이 욱욕합니다. 또 굴진을 앞세워 채광장을 예견성있게 마련하라는 것은 수령님의 교시가 아닙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토하듯 하는 광철의 말에 기사장이 안타깝다는듯 대꾸하였다.

《갱장동무, 그걸 몰라서가 아니요. 하지만 현실이 보여주지 않는가. 갱의 굴진역량을 총동원하대 싶이 했는데 그래 보름이라는 시간이 작소? 고집이 문제해결의 열쇠로 되는거야 아니지 않소. 그러구 광산전반적인 생산형편두 고려해줘야지.》

량해를 구하듯 하는 기사장의 말에 광철은 여전히 두주먹으로 책상을 꼭 눌러짚고 웨치듯 하였다.

《생산으로 말하면 그건 앞으로 계속 바쁠 겁니다. 계획이나 끝내고 한숨 들이며 보자는 건데 그러다 여차하면 4편도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어제 전 갱기능공동무들과 함께 광산개발 당시에 작성한 탐사자료들을 썩 뒤져보았습니다.》

《그래 그 동무들은 뭐라고 합데?》

푹기치듯 묻는 기사장의 말에 광철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모두가 하자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보오. 역시 가능성이요. 확고한 담보가 아니란 말이요. 탐사자료라는 것도 시추를 비롯한 모든 선행공정에 기초한 예상이 아니겠는가. 수백미터 땅속을 누가 그렇게 다 안다오. 그러니 지금처럼 광산전반의 생산이 절정에 오른 때에 그 가능성을 믿고 역량을 분산시켜야 하겠소? 어쨌소, 갱장동무? 그 갱본위주의 소고집이 또 살아나는게 아니요?》

기사장은 이야기끝을 롱비듯이 마무리며 빙긋이 웃었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갱장들이며 기술일군들이 광산개발때부터 함께 일한 사람들이라 그 말을 타할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한껏 긴장되었던 장내분위기를 느슨히 풀어주었다. 또 광철이 갱이나 생산을 위해서라면 본위주의자라는 뒤말을 들을만큼 욱심스런 일군이라는 것도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광철은 자기 주장을 철회하려 하지 않았다.

《기사장동지, 갱의 주인은 바로 우립니다. 그래서 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지요. 이렇게 말해서 안됐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구 안해를 버릴 수야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광철이 말한 경우가 생산문제를 론하는 회의 성격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그 비유가 그럴듯해서 장내에서는 가버운 웃음이 일었다. 광철은 자기의 말이 흥분으로 지나쳤음을 깨닫고 자리에 앉으며 건기침만 툴아올렸다. 결국 회의는 이렇다할 결과가 없이 끝나고말았다.

회의가 있는 뒤로 광철은 마치 무엇엔가 다쫓기는 심정으로 조금증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그래서 어제 밤에도 굴이 만류하는 안해를 뿌리치다싶

이 하고 갱으로 올라왔던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심정에는 아랑곳없이 4편도는 간밤에도 한본 새였다.

불시로 물려드는 피곤과 함께 광철은 그 어떤 이름못할 불안감을 느끼며 사무실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내짚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여느때없이 일찌기 집에 들어섰다.

사실 광철은 요즘 몸이 건디기 힘들게 불편하였다.

채광소대장으로 일하던 젊은 시절 막장에서 심하게 다친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후과를 드러내더니 최근에 와서는 때로 호흡장애까지 겹치면서 막다른 지경으로 몰아넣곤 하는것이였다.

오늘만 해도 한낮부터 몸안에서 일던 동통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는 앓아있지도 못할 지경으로 그를 괴롭혔다. 온 갱이 4편도 재생전투로 긴장한 이때 자기의 쓰러진 모습이 전투원들의 눈에 띄워 그들의 사기를 저락시킬것이 두려워 광철은 어슬렁에 갱직일성원에게만 조용히 말하고 남몰래 집으로 내려왔던것이다.

사색이 되어 달려나온 안해 영월이와 중학교에 다니는 딸에게 의지하여 가까스로 집안에 들어선 광철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버렸다. 영월이 급히 진정제를 먹이고 더운물수건으로 몸을 문지르며 주물려서야 약간 동통이 멎는듯 하였다. 건강이 남같지 않은 남편과 결혼하여 이마직에 이르러서는 반의사가 되어버린 안해이다.

광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그렇게 한시간가량 누워있는데 지배인이 그를 찾아왔다. 요전에 있던 협의 회때도 아무말없이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심중히 듣기만 하던 지배인이였다.

진동렬지배인은 이곳에 부임되어온 한해남짓한 기간 광산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실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 광산의 오랜 중진인 홍광철에게서 많은 조언과 방조를 받았다. 나이로 봐도 지배인이 광철이 보다 몇년 아래인데다 지내보니 원칙이나 전개력에서도 둘의 성격이 비슷한것으로 하여 마음속으로 형님처럼 믿고 의지하여온지라 그들은 사업상으로서나 인간적으로 무척 자별한 사이였다.

지배인은 침대에서 일어나앉으려 모지름쓰는 광철을 진정시키며 근심스런 안색으로 말했다.

《갱장동지, 내 지금 당비서동지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한데 인츰 판정받기로 되었던 2중3대혁명붉은기칭호쟁취사업을 미루게 해달라고 제기했다는게 사실입니까?》

광철은 말없이 누워 눈만 꿈쩍이는것으로 대답했다.

《아니 그게 얼마나 품들여 준비한 일이라고 그런 제기를 한단 말입니까. 판정준비로 짬짬이 예술

공연을 준비하고 꾸리기사업을 해온 갱의 로동자동무들이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광철은 입가에 느슨한 웃음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다.

《로동자동무들과는 오늘 아침 집체적으로 토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의 기본임무인 생산에 공백이 생겼는데 어떻게 판정을 받겠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당장 생산이 떨어진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4편도의 광맥이 끊어졌을뿐인데 얼마 남지 않은 판정을 그렇게 미루다니요. 이제라도 당위원회에 다시 제기하는게 아닙니까? 판정을 예정대로 받도록 말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건의하는 지배인의 목소리는 사뭇 안타깝게 울렸다.

비록 그가 광산에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오늘의 이 판정을 받기 위해 홍광철이 얼마나 값비싸고 고심참담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알고있었다.

처음 광산에 지배인으로 임명받아왔을 때 진동렬은 웅근 하루품을 내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있는 산하 단위들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았다.

공무와 운수직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갱단위들을 돌아보던 동렬은 3갱에 이르러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광산적으로 제일먼저 3대혁명붉은기칭호를 수여받은 단위라는 일군들의 말은 들었지만 눈앞에 그렇듯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질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다. 갱사무실로부터 시작하여 탁구장과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 그 아래 자그마한 마당을 건너 가파로운 지형을 리용하여 기묘하게 지은 특색있는 영양제식당, 그 건물들의 맨뒤에 덩실하게 솟아있는 종합집집승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시 날아갈듯 한 조선식 합각지붕을 띄우고 서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척 봐선 그것이 어느 광산의 산하건물들이라고 믿기 어려울것이였다. 가까이 가보니 건물들의 사이사이 공지마다 여러종의 과일나무들까지 심어져있어 마치 하나의 휴양소를 방불케 했다. 건물들을 이루고있는 어느 부분, 어느 요소 하나도 나무랄데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있었다. 갱옆을 끼고 급하게 흘러내린 깊은 로두봉골짜기는 허리부위를 똑 잘라 메워 넓다란 운동장으로 만들었는데 얼핏 보기에든 천연평방은 잘돼보였다. 우리가 비좁다하게 우글거리는 집집승들과 산비탈을 따라 펼쳐진 부업밭에서 싱싱히 자라는 갖가지 남새들을 보며 동렬은 입을 딱 벌렸다.

막장입구에는 나무탁자우에 커다란 비닐통이 있었는데 그 뚜껑을 여니 아직도 따끈한 우유가 뽀얀

김을 피워올리고있었다.

대학시절에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이 모든것을 기록하는데 어느만한 노력과 정열, 창조적 두뇌가 필요한가를 료판적으로나마 짐작할수 있었다.

3갱이 광산적으로 제일 앞선 단위로 지금껏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 요인을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수 있게 하는 풍경이었다. 세상에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란 없는것이다. 아무리 질 좋은 고성능 화약도 불꽃이 닿아야만 거대한 폭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사업을 맨앞장에서 조직지휘하고 술선 어깨를 들이밀며 투신해온 사람이 갯장 홍광철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의 놀라움은 갑절로 커졌다.

그는 갯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홍광철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었다.

...이 광산이 처음으로 세워지던 그때 광철은 드센 손타과 완강한 전개력,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소유한 유일한 총각소대장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언제나 소대원들의 앞장에 서있은 그는 새로 개발된 광산이어서 모든 조건이 어설픈 속에서도 소대원들의 생활을 깊이 관심하였으며 소대원들은 그를 한가정의 맏형처럼 믿고 따랐다. 소대원들이 그를 따르는 가장 기초적인 감정은 자기들을 위하는 소대장의 사심없는 헌신성이었다. 헌신성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미덕중에서 제일 큰 미덕이 아니겠는가.

어느해 초겨울, 막장에서 소대원들과 함께 일하던 광철은 뜻밖에 건인바줄에서 벗어나 미친 말처럼 사경을 따라 달려내려오는 광차를 막고 쓰러졌다. 밑에서 일하던 소대원들전원이 무사히 구원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광철이 입은 부상은 그야말로 참혹하였다. 심한 척추타박, 여러곳이 골절된 특골에 의한 폐장의 파열...

은 광산의 지극한 성의로 며칠만에야 의식을 차린 그가 제일먼저 찾은것도 바로 소대원들이라고 한다.

이런 지휘관을 소대원들이 맏형처럼 믿고 따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동렬 지배인이 알고있는 광철에 대한 여러가지 일화중에는 《3갱담배》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은 광철이 새로 개발한 3갱의 갯장으로 임명되어가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때로 말하면 겹쳐드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해부르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이었다. 한낮에도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떨기나무와 잡초만이 무성한 깊은 골짜기에 그래도 갯이라고 부를수 있는것은 낡은 펠트지를 씌운 산전막같이 찌그러진 압축기장과 눈비에 녹슨 권양기 한대, 아구리에서 몇십미터밖

에 뚫지 못한 채광장도 없는 막장뿐이었다. 갯인원이라야 고작 스무명되나마나한데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고 한다.

광철은 이때 갯사무실과 함께 동시에 휴게실과 식당 같은 후생시설부터 먼저 건설하기로 결심하였다.

낮에는 전투원들과 함께 갯안에서 착암기를 휘둘렀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건설장에서 땀을 흘렸다. 그 나날 자재와 설계때문에 밤새워 달린 길은 얼마였던가. 또 식량난으로 허리띠를 조이는 전투원들을 위해서는 갯 살림을 편 안해를 설복하여 얼마 안되는 식량을 갈라내왔고 그로 하여 젖이 마른 가슴에 어린 딸애를 안고 눈물흘리는 안해의 아픈 정상도 봐야 했다.

때로 힘에 부쳐 주저앉았던 전투원들은 불편한 몸으로 항상 앞장에서 뛰는 지휘관을 대오의 기발처럼 바라보며 힘을 내어 따라서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광철은 몇명의 노동자들이 작업의 휴식참에 가둬나무일과 같은 마른 잎사귀들을 따고있는것을 보게 되었다.

《그건 해서 뭘하자구 그러오?》

그의 물음에 노동자들은 계면쩍게 웃기만 했다.

하지만 광철에게는 대뜸 짚이는것이 있었다.

(담배가 떨어진 모양이구나.)

여기에 생각이 닿는 순간 그는 자책과 회오의 감정이 짜릿이 전신을 휩싸는것을 느꼈다. 동무들이 얼마나 담배가 그리웠으면... 땀을 흠뻑 흘리며 일하다 휴식참에 맡아무는 담배의 맛이 얼마나 감미로운지는 자기도 잘 알지 않는가. 그렇다고 갑자기 어디 가서 담배 한줌을 얻어올데도 없었다. 아직 광산설립 초기이니지라 이 깊은 산중에서 인가까지 가져와 해도 너무 멀었던것이다.

그날 점심시간을 리용하여 산에 오른 광철은 라이러로 그럴사하게 보이는 풀잎들은 모조리 태워가며 냄새를 맡아보았다.

점심밥 먹는것까지 잊어가며 그렇게 찾아낸것이 바로 싱아잎에다 익모초를 섞고 여기에 마른 찌리일까지 적당히 배합한것이였다. 자기가 직접 맡아 피워까지 본 그것을 오후작업의 설참에 내놓았을 때 노동자들이 달게 피우던것을 광철은 지금도 잊을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비록 갯을 오늘처럼 일떠세우는데 바쳐진 노동자들의 수고를 보여주는 일단이기도 했지만 또한 홍광철의 됴됨이를 알게 하는 지극히 작은 세부의 하나이기도 했다.

언젠가 광산을 취재왔던 한 기자가 갯건물들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감탄을 연발했다고 한다. 마치 한쪽의 그림같다고, 이런 깊은 산중에 이렇듯 휴양소같이 훌륭한 풍경이 있을줄은 몰랐다고...

그때 걸으로 지나가던 갱의 한 익살꾼이 빠기듯 말했다고 한다.

《감탄하는데는 일분이면 되지만 그것을 이룩하는데는 수십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지요. 기자선생은 산삼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삼꽃이야 사람의 발길이 잘 미치지 않는 산중에나 피지 않습니까. 우리 갱을 그런 산삼꽃에 비유한다면 갱장동지야말로 산삼뿌리라고 할수 있답니다.》

어딘가 희뽀기까지 한 그 말에는 자기들의 갱장에 대한 종업원들의 믿음과 신뢰가 깃들어있었다.

지나온 나날에 대한 뜨거운 추억에 젖어있는 지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듯 광철은 열적게 웃으며 나직이 말했다.

《지배인동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척 힘들게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눈 꼭 감고 판정을 받자고 해도 4편도문제가 계속 속에 걸리는데... 하, 그게 도대체 뭘가요?》

진동렬지배인은 그 물음에 단마디로 쉽게 대답할 수도 있었다. 바로 그것이 량심이라고. 누가 보건 말건 언제 어디서나 지키여지는 바로 그러한...

그러나 그는 부디 그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한데 4편도가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재생될가요? 일전에 누군가도 말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땅속일을 다 알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광산일이라는 게 땅속에 집을 세우고 기계를 돌려 제품을 깎아내는 일과 같을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배인의 우려도 공언한것이 아니었다. 그러다 일이 여의치않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문제 또한 무시할수 없는것이였다. 더구나 간파할수 없는것은 이렇게 나날이 악화되어가는 홍광철갱장의 건강문제였다.

그러지 않아도 방금 당비서를 만난 자리에서 홍광철의 건강을 두고 논의가 있는 뒤였다. 몇달동안 료양소에 보내든가 그 불같은 성격을 봐서 하다못해 다문 몇주일 입원생활이라도 시켜야겠다는데서 당비서와 의견일치를 본것이였다.

《...지배인동지, 어떤때는 아닌게아니라 내가 부질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는가도 생각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경험에 따른 예감이랄가 아니, 광부의 량심에 비추어놓고볼 때 전 4편도의 재생을 확신합니다. 꼭 믿어주시시오, 지배인동지.》

광철은 여전히 자기의 건강을 두고 걱정과 불안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동렬지배인을 올려다보며 나직하나 또박또박 그루를 박아 말하였다.

지배인이 그렇게 돌아간 뒤로 광철의 마음은 더욱 착잡하게 얹혀들었다.

갱장인 자신으로서도 결코 4편도문제에 대해 이러저러한 우려가 영 없는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갱의 오랜 기능공들이나 탐사부문의 이름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만나 논의를 거듭할수록 자신있다는 확신

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일시적인 난관으로 그 많은 보물을 그저 땅속에 묻어버린다는것은 나라앞에 죄악이라는 자격지심이 조수처럼 밀려들곤 하였다.

(문제해결의 방도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 걸린 고리가 어디인가.)

갯가지로 갈마드는 생각이 예까지 이르고보니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그래 애써 목소리를 돋구어 옷방에 있는 딸을 불렀다.

《애, 주옥아.》

옷방에서 책상을 마주하고 공부에 열중하고있던 딸 주옥이가 급히 아래방으로 내려와 침대곁으로 다가섰다. 그 애에게 의지하여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광철은 침대머리맡에 걸쳐놓았던 작업복을 끌어당겼다.

그것을 본 주옥이가 부엌으로 쭈르르 달려내려가며 소리쳤다.

《엄마, 이것 봐요, 아버지 또 갱에 올라가실러 그래.》

그 말에 지금껏 부엌에 내려가있던 영월이 앞치마자락에 손을 문지르며 황급히 올라왔다.

《아니, 주옥이 아버지, 도대체 어쩌자는거예요.》

그러거나말거나 광철은 느릿한 동작으로 옷의 단추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채우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결코 안해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자기가 꼭 올라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형편에 대한 말없는 시사였다.

하지만 안해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여적 살면서 언제한번 남편의 의사를 거슬러본적이 없는 영월이었으나 이번만은 경우가 달랐다.

남편의 앞을 막아나서는 영월의 태도는 사뭇 강경하였다. 곁에서 주옥이까지도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기며 안타깝게 애원하да싶이 하였다.

《야, 아버지, 엄마속을 좀 그만 태우라요.》

안해와 딸의 손에 이끌려 광철은 다시 침대우에 눌러앉게 되었다.

《이봐요, 주옥이 아버지, 도대체 이 몸으로 어딜 간다구 그래요. 정말 그러다 영영 일어나지 못하려고 그래요? 다문 며칠만이라도 좀 쉬세요, 예?》

영월은 앉은자리에서 남편의 무릎을 흔들며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광철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대답이 없었다. 방안에는 불시에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그렇게 한동안이 흘렀다.

곁에서 그런 부모들을 민망스레 내려다보던 주옥이는 발끝걸음으로 조용히 옷방으로 올라갔다.

《여보, 미안하오. 오늘밤은 그만 일찌기 자지요.》

오랜 침묵을 깨뜨리며 광철이 하는 말이었다. 그 말에 영월은 물기어린 눈을 들어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너무도 쉽게 제말에 응하는것이 이상했던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정말로 손을 들어 웃웃단추를 천천히 벗긴다. 그러다 세번째 단추에 이르러서는 손을 그만 무릎우에 축 드리우고 말았다.

《...아무래두 내가 오늘 종업원들앞에 죄를 지은 것같애. 아까는 내 지배인동지한테 집체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방적으로 내 주견을 요구한것 같거든.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이라구. 말로는 이번 판정을 미루는데 동의한다고 하지만...마음이야 오죽 허전할라구.》

《그만해요, 주옥이 아버지, 제가 그 마음을 몰라서요. 하지만 욕망 하나만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거야 아니지 않나요. 일을 하루나 이틀 하고 그만두겠나요.》

또다시 깃드는 침묵...그 침묵은 무척 오래동안 두사람을 휩쌌다.

《여보, 저기 걸려있는 저 표창장을 내리워 정히 보관해주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말이요.》

무겁게 하는 남편의 말에 영월은 순간 자기의 두 귀를 의심하였다.

표창장, 그것은 몇달전에 남편이 받은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이다.

가정의 자랑이고 긍지이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해야 할 가보였다. 그런데 그걸 내리우라니...

《난 요즘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저 표창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 못 견디겠소. 사실 누군들 나만큼 일을 못했을라구?! 당신도 생각나지? 내가 표창장을 받은 날 지배인동지랑 당비서동지랑 종업원들모두가 와서 축하해주던 일이 말이요. 저 액자도 바로 그들이 성의를 담아 마련해주게 아니요. 그게 뭐겠소, 앞으로도 장군님의 신임에 더 큰 사업실적으로 보답해달라는 고무이고 격려가 아닐가?! 그런데 지금 이게 꼴이 뭐요. 2중3대혁명붉은기판정을 앞두고 편도 하나는 광택이 끊어졌지, 난 나대로 체면은 있어 판정심의를 연기해달라고 제기해, 그리고는 아프다구 이렇게 누워있자니...》

광철은 더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실제로 4편도만 다시 살아날수 있다면 한몫이라도 바치고 싶은것이 그의 심정이었다. 2중3대혁명붉은기칭호라는 남다른 그 영예도 갱의 모든것이 가장 완벽한 수준에서, 자신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받고싶었다.

얼마후 영월은 눈곱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웃결개에 걸려있는 자기 옷들을 벗겨 입기 시작하였다.

《그럼 같이 올라가요.》

그런 안해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던 광철은 그제야 비죽이 웃음을 지었다.

《그러지 않아도 혼자 올라갈 자신이 없었는데...고맙소, 영월이.》

안해를 언제 이렇게 불러보았던가. 그것은 아득히 흘러간 청춘시절의 일이었다.

《아버지, 나두 같이 갈래요.》

옷방문이 펄쩍 열리며 주옥이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로부터 얼마후 마을에서 갡으로 향한 경사급한 길우에는 세사람의 모습이 우줄우줄 나타났다. 광철은 안해와 딸에게 한팔씩 말기고 걷고있었다.

《아버지, 나 뭘 하나 물어보랴요?》

딸애의 물음에 광철이 선뜻 대답하였다.

《뭘데, 물어보렴.》

《음- 뭐가 하면... 녀자는 다 크면... 이답에 말이예요, 그땐 꼭 시집을 가야 되나?》

광철이 뭐라고 미처 응대하기도 전에 반대편에 있던 안해가 단마디로 딸애의 말을 일축해버렸다.

《무슨 말이냐, 생똥같이. 쪼꼬만게 못하는 말이 없구나.》

하지만 딸애는 엄마의 핀잔쯤은 개의치도 않고 또다시 웅석부리듯 아버지의 팔을 가볍게 흔들었다.

《아버지, 내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건 굉장히 우스운 애긴데, 음-》

딸애는 마치 이제 자기가 하려는 말의 효과를 가늠하는듯 말꼬리를 길게 끈다.

《한 남자가 처녀에게 청혼했대요. 그러자 처녀가 물었대나요, 앞으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려나구요. 그러자 총각이 씩씩하게 대답했대요.

〈저에게는 두가지 결혼조항이 있습니다. 예- 제1조, 안해의 말은 언제나 옳다. 제2조, 혹간 안해의 말이 틀리는 경우에도 우의 조항을 참작할것.〉
어때요, 아버지?》

딸애의 능청스런 말에 광철이와 영월은 다같이 소리내어 웃어버리고말았다.

《헐, 이답에 나두 시집가야 된다면 그런 사람한테 갈테야. 절대로 안해의 속을 썩이지 않는 사람 말이예요.》

어느 책에서 봤는지, 아니면 어디서 들었는지 부모들을 웃기려드는 딸애의 그 말은 오직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악의없는 조롱이였고 그런 남편을 위해 모든걸 고스란히 바치는 어머니에 대한 은근한 두둔이었다.

《주옥아, 엄마가 오늘 별로 더 곱지?》

빙긋이 웃으며 하는 광철의 말에 딸애가 얼른 뒤를 달았다.

《피- 언젠 미웠나요. 그래두 아버지가 엄마 제 일 도와한다는거 나두 다 아는데뎌.》

만시름 잊은 세사람의 웃음소리가 광산마을의 청신한 밤대기속으로 퍼져갔다.

생이란 무엇인가

어느날 온갱이 떠들썩하게 환성이 터졌다.

《터졌다. 4편도가 터졌다—》

막장안에서, 갱밖에서 일시에 터져오른 환성이 로두봉밀의 깊은 골짜기를 진감하였다. 그것은 숨죽었던 4편도에 끝끝내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을 증명해보인데 대한 노동자들의 환희였으며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할것이 없다는 새로운 확신의 분출이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광철의 얼굴에는 희심 어린 안도의 미소가 떠오르는데 두눈가에는 맑은것이 고이고있었다.

눈물이란 슬픔과 피로움의 표현만이 아닌것이였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눈물로 표현되는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안전한 생활속에 범박하게 찾아온것이 아님에라...

...홍광철의 치료문제가 본인의 완강한 거절로 여러차례나 실현되지 못하고있던 어느날 진동렬지배인이 차를 타고 갱에 들어타켰다. 광철이 두말 못하게 차에 올라앉히고 무작정 료양소에 실어갈 잡도리로 그 준비까지 갖추고 온것이다. 그때 그는 지배인에게 사정하듯 말했었다.

《지배인동지, 이 길이 나에게 더 큰 고생을 주는 길이라는걸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료양소에 보내야 보나마나 며칠 안되어 내가 광산에 나타나겠는데 그 수백리길을 나 혼자 올 일을 생각하면 지배인동지도 아마 이렇게 막무가내로 등을 떠밀진 않을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할말을 찾지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는 지배인에게 진지한 어조로 다짐을 두듯 말하였다. 4편도가 열리는 날이면 제발로 료양소에 찾아가 완쾌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결국 동렬지배인은 그날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당위원회와 토의하여 광산병원에서 의사 한명을 당분간 3갱에 전임 붙여놓는것으로 략착을 지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째나는대로 갱에 넘어가보면 그는 늘 노동자들과 함께 막장안에 들어가있곤 하였다.

그런 그들의 앞에 그렇듯 애를 태우던 4편도가 마침내 굳게 닫았던 자기의 문을 열어놓은것이였다. 그날 저녁 축하의 인사를 안고 찾아온 동렬지배인은 광철에게 언젠가 둘사이에 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켰다.

《아참, 료양 말이지요, 제 가겠습니다. 약속이야 지켜야지요. 그런데 저... 4편도가 열렸으니 곧 2중3대혁명붉은기판정이 시작되겠는데... 단위책임자인 제가 자릴 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갱장동지, 너무한데요. 지금 갱장동지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압니까? 의사들의 말이 당장 사회보장에 넘겨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격해진 동렬지배인은 지금껏 혼자 알고있으면서 입밖에 내지 않던 말을 막 쏟아놓았다.

《집의 아주머니나 애들이, 또 노동자동무들이 우릴 두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광산일꾼들이라는게 아래사람들 일시켜먹는것밖에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갱장동진 자기 생각밖에 안합니까. 예?》

광철은 이런 지배인앞에 할말을 잊은듯 확이 움푹하니 꺼진 눈길을 들어 멀리 하늘가 어딘가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동렬지배인의 가슴은 찢기는듯 아파났다. 시꺼멓게 죽은 얼굴에 홀쭉하니 패인 불편, 그로 하여 더구나 두드러진 관골에 극도의 피로가 모인 눈주위에는 퍼릿한 이끼가 덮여있었다. 어쩔수없이 솟구치는 편민의 감정이 그의 마음을 아릿하게 했다.

《지배인동지, 어떤 말을 해도 달게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요즘 인생이라는 의미에 대해 드문히 생각해 보군 합니다. 모든것이 시작이 있었으면 끝도 있기 마련인데... 사람이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후회할 일이 있다면 한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겠지요. <비겁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용감한 사람은 닥쳐오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훌륭히 맞겠는가를 생각한다> 는... 허, 이거 오늘따라 심각해진 지배인동지를 보니 나도 별나게 비장한 생각이 드는데요. 좀 웃으십시오. 그렇다구 내가 벌써부터 죽고싶은 생각은 없는거구. 부탁드립니다, 지배인동지. 2중3대혁명붉은기칭호관정이나 받아놓고는 내 정말 치료를 받겠습니다. 사나이로서 약속합니다. 많은 동무들이 그날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둘사이 분위기를 농치려는듯 싱긋이 웃는 광철을 바라보는 동렬지배인의 눈굽은 마치 불로 지지듯 파곤해왔다. 어쩔수없이 자기가 또 졌다는것을 자인하는 순간 노여움보다도 그 어떤 감동이 가슴가득 차오르는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3갱에 대한 2중3대혁명붉은기판정사업은 그때로부터 썩 많은 시일이 흐른 뒤에 진행되었다.

그날 갱의 생산실태를 료해하고 건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아보고난 상급기관 지도성원들은 모두가 얼굴에서 만족한 기색을 가무리지 못하였다. 그들중에는 갱이 첫 3대혁명붉은기판정을 받을 때 내려왔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새 갱이 또 달라졌구만. 완전히 달라졌어.》 그들이 하는 말이였다. 그때 누군가가 한마디 하

었다.

《웬간한 건물들은 다 다시 꾸렸습니다. 홍광철 동지의 발기로 말입니다.》

순간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렇다. 그때는 이미 홍광철이 그들의 곁을 떠나가고 없었다.

그렇게도 광산을 사랑하고 갱을 사랑하고 자기 종업원들을 사랑하던, 그로 하여 자신의 가장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며 온 육신을 불태우던 그가 이제는 애타게 불러도 대답할수 없는 그곳으로 영영 떠나간것이다.

…4편도가 터진 그때로부터 며칠후 곧 판정을 내려온다는 상급당조직의 연락이 왔다. 3갱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온 광산이 제일처럼 기뻐하였다.

판정을 이틀 앞둔 그날 상급단위에 제출할 생산 보고서를 작성하던 동렬지배인은 너무도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뭐요? 홍광철갱장이? 알겠소, 내 지금 당장…》

미처 말을 맺지 못하고 전화를 놓은 동렬지배인은 차를 타고 급히 3갱으로 넘어갔다. 갱에 이르고 보니 별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배회하는듯 하였다.

머리속에 갈마드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털어버리며 광철이 누워있다는 휴게실로 달려들어난 동렬지배인은 믿어지지 않는 현실앞에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다. 의식을 잃은 광철이 두눈을 꼭 감고 누워있는데 의사들이 그의 손발을 비비고 가슴을 누르며 인공호흡을 시키고있었다.

《방금까지 밖에서 도색작업을 지휘하했는데…》

담백처럼 둘러선 사람들중 누군가가 방에 들어선 지배인을 보고 울음을 씹어삼키며 하는 말이었다. 동렬은 그들을 헤치고 달려들어가 광철을 와락 부여안았다.

《갱장동지, 갱장동지… 정신차리십시오, 어서 눈을 뜨십시오.》

동렬은 자기의 얼굴로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였다. 바로 이때 지금껏 의식없이 누워있던 광철의 눈꺼풀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잠시후 가까스로 눈이 떠졌다. 자기를 그러안고있는 동렬지배인을 알아본듯 그의 눈동자에 순간 생기가 도는듯 하더니 뭔가 말하려고 애쓰는것이 알렸다.

《예? 뭐라구요?》

광철의 입가까이로 바투 가져다댄 동렬의 귀가에 간신히 흘러나오는 말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미안합… 부… 탁…》

뒤이어 애써 웃음을 지으려는듯 하더니 그만에야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다.

그는 이렇게 갔다. 뒤미처 올라온 안해와 자식앞에서도 그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하였다. 마지막순간에 지은 미소만이 그의 마르고 터갈라진 입술우에 그대로 굳어져있을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갔다.

온갱이 아니, 온 광산이 슬픔에 젖어들었다. 길이 않은 자기의 한생을 고스란히 광산에 바친 사람, 거기에서 사는 보람과 희열을 찾던 사람, 그 때문에 광산사람들 누구나의 가슴속에 깊이 인찍혀진 사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 한다. 하기에 판정성원들과 한자리에 앉아 예술소공연을 보는 동렬지배인 자기만 놓고봐도 홍광철이 떠나간 후에야 비로소 그의 전체를 이루고 있던 그 헌신성의 바탕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않았던가.

홍광철이 그렇게 떠나간 뒤의 어느날 동렬지배인은 그에 대한 생각에 못 견뎌 그의 사무실의자우에 오래동안 앉아있었다. 그렇게 마주앉은 사무실책상우에는 홍광철이 생시에 쓰던 손때묻은 갱작업일지도 있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 그를 위한 사업일정들이 매 월별, 일별로 상세히 기록되어있었다.

깊은 회억속에 그것을 한장 또 한장 번지던 동렬은 어느 한 대목에 이르러 문득 시선을 멈추었다. 거기에는 이제껏 보던것과는 다른, 갱사업계획과는 전혀 무관계한 그런 글이 섞여져있었다.

《어제 밤 텔레비죤을 보면서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참을수 없었다. 아마 철든 이후로 처음 울어본것 같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글썄 우리 군에있는 기계공장을 찾아주시다니, 선뜻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앞에서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길로 한달음에 갱으로 달려올라갔다. 금시라도 장군님께서 우리 갱앞으로 뻗은 큰길을 지나가실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장군님께서 지나가시던 길에 혹시 우리 갱에 들리시기라도 한다면… 애라는 마음으로 선광장우의 정각에 올라 밤새워 큰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어제 밤만은 꼭 어린시절로 되돌아간것 같았다. 별치않은 일을 해놓고도 장군님을 모시고 치하를 받고싶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발 이 멀고 험한 길로 장군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이 마음을 어쩌면 중단 말인가. 아, 장군님, 정말 뵈고싶습니다. 일생의 단 한번만이라도 모시고 싶습니다.》

요란한 수식사로 빚어진 현란한 문장은 없었다. 하지만 소박하고도 진실한 그 글을 보는 순간 동렬은 금시 살아있는 홍광철이 례의 그 웃음을 짓고 다가서는것만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파났다.

한생을 다우쳐 재촉하며 즐기치게 산 사람…

희생없는 헌신이란 있을수 없다.

누가 말했던가?! 인간의 헌신이란 꼭 희생만을 동반하는것이 아니라고...

그 희생이 사회와 집단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위한 헌신으로 될 때 비로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영생의 시작으로 된다고...

그때에야 비로소 그가 숨쉬는 마지막순간에 하던 말, 부락한다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있었다. 광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훌륭히 꾸려놓고 위대한 장군님을 꼭 모시고싶었던 자기의 소원, 끝내 이루지 못하고 가는 그 소원을 자신들에게 부탁하고 떠났던것이다.

...무대에서는 3명의 종업원들이 이미 자기들의 곁을 떠나간 홍광철의 목소리까지 합쳐 부르는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고있었다.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세월이 간대도 잊을수 없는
조국에 바쳐진 순간이라고
...

숲은 무성해간다

영월은 벌써 한시간남짓이 방 한가운데 꿈쩍않고 앉아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대여섯번이나 읽어본 편지가 들려있었다. 평양에 올라가 대학공부를 하는 딸 주옥이한테서 온 편지였다.

《...어머니, 지금 학급동무들은 모이는 기회만 생기면 수도의 한복판에 벌어지는 이 거창한 건설 사업들을 화제로 올리고있어요. 저도 동무들과 짝 있는대로 건설장에 현장지원대로 나가군 해요. 그 과정에 전...

그러자면 여기엔 어머니의 그 방조가 꼭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기회란 항상 있는게 아니지 않나요.》

먼곳에 있는 딸이 어머니의 도움을 바라고있다.

그 도움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영월이도 잘 알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을 통하여 수도의 한가운데 일떠서는 창전거리며 인민극장과 같은 기념비적건축물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있는 그였다. 수많은 군인들과 돌격대원들, 수도시민들뿐만아니라 대학생들도 이 건설에 떨쳐나섰다. 지원자로, 혹은 야간돌격대원으로...

전국 도처에서 온갖 성의가 담긴 지원물자들이 수도의 이 건설장들을 향해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주옥이도 대학공부의 여가에 짹짹이 동무들과 함께 달려나가 때로는 밤을 패면서 건설자들과 일한다는

것을 영월이도 알고있었다.

영월이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몫까지 합쳐 성의껏 지원물자를 마련해놓은것이 이젠 퍼그나 그량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아직 뭔가 부족하고 정성이 모자라는것 같아 선뜻 보낼 생각을 않고 한가지라도 보태어보느라 오늘까지 망설이고 있는것이다.

바로 이런 때 주옥이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기회란 항상 있는게 아니지 않나요.》

기회, 기회라. 영월은 벌써 몇번째나 이 말을 입속으로 외우고있다.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 놓쳐서는 안될 관건적인 시간간격개념을 몰라서가 아니였다. 어머니로서 그는 딸이 무엇을 바라고있는지도 잘 알고있다.

주옥이는 지금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바라고있는것이다.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그 성격까지도 아버지를 닮아 고집이 세고 승벽이 강한 딸이다. 대학에 입학한 후 지금껏 전과목 최우등의 성적을 놓지 않는데다 조직생활에서도 모범이라는 대학당위원회의 생활평정서까지 여러번 받고 어머니로서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워했던가.

영월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는 맞은편 벽면을 더듬었다.

(이봐요, 주옥이 아버지. 이런 뎨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부모들의 도움을 바라고있어요. 저 지원물자들을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말이예요.)

그것은 남편이 처음으로 3대혁명붉은기칭호를 수여받고 갱종업원들의 칭에 못이겨 찍어두었던것이다. 그런걸 그가 사망한 후에 영월이 액틀에 걸어둔것이다. 남편은 떠나갔어도 영월은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그 사진을 보며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

그우에는 남편이 받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표창장들과 생전에 그가 참가했던 대회와 참가증들이 걸려있었다. 뎨 나중에 있는것이 바로 남편이 사후에 받은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이었다. 한마디로 그 모든것은 남편이 걸어온 한생의 축도였다.

사진속의 남편은 여전히 약간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짓고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생전에 사람들속에서 두드러진 존재로 나타나는것을 몹시도 질색하던 그였다. 그런 소박한 성품과 꾸준한 노력, 성실성으로 하여 소대장으로부터 중대장으로, 갱장사업까지 맡아하게 된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게 된것이었다.

그런 남편이 지금 살아 딸의 편지를 보았다면 뭐

라고 말했을까.

아닌게 아니라 집에는 여러개의 지원증서들이 보관되어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상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남편과 자기가 품들어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나라에 기증한데 대한 증서들이었다. 하지만 그속에 딸애의 이름이 오른 증서는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언젠가 방학때 집에 와서 그 지원증서들을 펼쳐보며 그것때문에 불만을 표시하던 딸이었다. 또 그것을 본 어머니로서도 뭔가 속에 걸리는것 같았다. 그러니 이것저것 미루어보아 마침이 아닌가.

(여보,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자요, 주옥이 이름으로 말이에요.)

영월은 마치 산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듯 남편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아마 남편이 살아있다고 해도 대학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높은 명예칭호까지 받고 돌아온 딸을 본다면 몹시 기뻐하리라 생각되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급히 편지를 접어넣고 옷방으로 올라가 쌓아놓은 물자들을 포장하러 서두르던 영월은 불시에 뇌리를 때리는 생각에 그만 팔을 떨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게 언제 있는 일이었던가.

아마 주옥이가 중학교 3학년때일것이다.

...도에 있는 이모의 60돐생일에 다녀온 영월은 저녁에 퇴근해들어온 남편에게 기쁨에 들떠 말하였다.

《주옥이 아버지, 주옥이를 도에 있는 예술학원에 보내자요.》

밀도끝도없이 하는 안해의 말에 광철은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한 눈길을 던졌다.

《예술학원이라니, 왕청같이 건 또 무슨 소리요?》

그런 남편에게 영월은 이모의 생일에 가서 있는 일을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이번 이모의 생일에는 조카사위의 친구 하나가 딸애를 데리고왔는데 주옥이나이쯤 나보이는 그 처녀애가 얼마나 노래를 기막히게 잘 부르는지 듣는 사람들모두가 입을 딱 벌렸다. 많은 사람들의 절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처녀애의 아버지는 예술학원에 다니는 딸을 은근히 자랑하던 끝에 그 애의 지도교원에 대한 말까지 묻혀냈다.

영월의 머리속에는 제격 주옥이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게 유능한 지도교원의 밑에서라면 주옥이도 얼마든지 팬찮은 성악가가 될것 같은 생각이 불시에 솟구쳤던것이다. 그러지 않아 광산마을에서도 좀 거리를 둔 산골학교에서 딸을 공부시키는게 은근히 불만스러웠던 영월이었던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말을 들으면 함께 기뻐할줄 알았

던 남편이 이렇다할 반응이 없이 고개를 찌뚱하고 앉아만 있더니 한참만에 별로 시답지 않은 어조로 묻는것이였다.

《그러니까 정말 주옥이를 예술학원에 보내겠다는거요?》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내 그래서 낮에 주옥이 담임선생님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난 모르겠소. 그래 그 애에게 무슨 음악적인 소질이 있단 말이요.》

점점 덜컥스레 울리는 남편의 말투에 더럭 겁이난 영월은 나중에는 딸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무조건적인 권한을 행사하러 들었다.

《지금 이 마당에서 소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쨌든 난 그 애를 꼭 시내학교에서 공부시켜야겠어요.》

그리하여 딸의 전도를 두고 시작된 부부간의 대화는 차츰 언쟁으로 번져갔다.

《그래 딸애를 도에서 키우면 눈도 트고 여러모로 좋으면 좋았지 나쁠게 뭐가 있어요?》

《당신 아직두?!... 그래 그게 옳은 처사란 말이에요? 내 당신이... 그렇게까지 량심없는 녀자인줄은 몰랐구만.》

《뭐라구요? 량심?!》

영월은 순간 억이 꺾 막히는듯 하였다. 갑자기 알지 못할 설움이 왈칵 복받쳐올랐다. 그래 자기의 량심이 어쨌단 말인가, 지금까지 자기가 안해로서 량심에 저촉되게 한 일이 뭐란 말인가.

불편한 몸으로 갱장사업을 하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것을 바쳐왔던가. 여태껏 갱종업원들속에 제기되는 결혼식이나 60돐생일같은 일들에는 항상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가 나서군 했었다. 집안의 막내딸로 손에 물 한번 묻혀보지 못하고 자란 내가 품들어 키운 집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갱으로 올라갔던가! 더구나 건강치 못한 남편을 위해 갖은 정성을 다 고여 지은 보약단지들이 남의 손에 들리워져 되돌아올 때마저도 영월은 섭섭하고 노여운 감정을 조용히 물어왔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남편에게 언제한번 응석이나 푸념이라도 해보았던가? 그런데 뭐 량심?!

서럽고 분한 눈물이 견잡을수 없게 흘러내렸다. 갑자기 보게 되는 안해의 눈물앞에 잠시 어쩔줄 모르던 광철은 그만 훌쩍 일어나 썩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편이 그렇게 나가버린 뒤에도 영월은 무척 오래동안 혼자 앉아 울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계를 올려다보니 자정이 가까와오고있었다. 그 때에야 일어나 잠자리를 펴고 밖을 돌아보러 나가던 영월은 그만 흠칫 놀라 굳어져버렸다. 갱에 올라간줄만 알고있었던 남편이 지금껏 마당 한가운데 쭉그리고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그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측은한 감정이 떠오르는가싶더니 좀 사그라들었던 노여움이 새파랗게 살아올랐다. 그래서 마당을 썩 가로질러 대문을 닫은 후 남편을 본체도 않고 돌아서 들어가려는데 돌연히 남편이 자기앞을 딱 막아서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한참만에야 무겁게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내 말이 좀 지나쳤으면... 용서하오.》

녀성으로서 남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자그마한 것이다.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월은 지금껏 땡땡하던 고까움이 볼판에 눈슬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자기를 품에 꼭 껴안고 하던 남편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 여운으로 남아있었다.

《주옥이를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요. 하지만 그러한 편애가 결국에 가서는 애에게 부질없는 허영심만 키워주게 된다는거야 당신도 알지 않소, 발전전망도 없는 애를 그런데 보낸다면 국가적으로는 또 얼마나 손해구. 더구나 앞으로 나라앞에 독자적인 몫을 안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그 애의 인생관에 옳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거든. 자립성이 없어져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나 남의 손길을 바라게 될거란 말이요. 자격이야 제 노력으로 제가 갖추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한가지 부탁할건... 이전에두 말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제발 울지는 말아주오. 내가 녀자들의 눈물을 제일 무서워한다는거야 당신도 알지 않소.》

그리고는 광철은 쑥스러워 버둥거리는 안해를 더 힘주어 짊 그러안고 통쾌하게 웃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느라니 마치 남편이 오늘같은 일이 있을줄 알고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것 같았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어 오늘같은 딸의 편지를 보았다면 대답은 같았을것이다. 생각이 예까지 이르고 보니 딸의 온당치 못한 요구를 들어줄 용기가 더는 나지 않았다.

탁상등을 켜고 책상에 마주앉은 영월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드디어 필을 들었다. 주옥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이 결심은 어머니가 오랜 생각끝에 내린 것이다. 오늘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해도 너의 이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셨으리라는데 대해서는 아마 너도 알고있을것이다. 지금형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까지 대신해야 하는 어머니로서는 이렇게밖에 더 말할수 없구나, 용서해라, 그리고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볼길 바란다. 아버지가 어떤분이었고 너에게서 무엇을 바랐는가를...》

많은 주저와 망설임끝에 영월은 이 편지를 주옥이에게 부쳤다. 애잡잘하고도 찢린한 모성의 아픔은 그후 오래동안 영월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세

상에 제일 견디기 힘든것이 자기자신이다. 역시 그는 어머니였던것이다.

그후 주옥이는 오래동안, 무척 오래동안 소식이 없었다. 지어 방학때조차도 집에 내려오지 않았다. 불안과 위구심마저 갈마들었으나 영월은 인내성을 가지고 하루를 한달맞잡이로 기다리고기다렸다.

그러던 어느날 영월은 그토록 기다리던 주옥이의 편지를 받았다.

속에 재가 앉도록 기다리던 편지였지만 정작 받고보니 뜯어보기가 두려웠다.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하고 편지를 펼치자 거기에는 너무도 믿기 어려운 소식이 실려있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마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한을 품고 원망했는지 상상도 못할거예요. 세상에 자식의 장래발전을 두고 이렇게도 무관심한 어머니가 있을가, 인생의 지름길을 두고도 부디 멀리 에돌아가기를 바라는 어머니를 두고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가. 지금에 와서 솔직히 말한다면 대학에서 야간지원돌격대에 제일선참 탄원한 것도 어머니에 대한 강한 반발심에서였어요. 하지만 비내리고 무더운 장마철의 그밤들, 눈보라치는 혹한의 그밤들은 무시로 저에게 어머니의 편지구절들을 상기시켜주었어요. 아버지가 어떤분이고 나에게서 무엇을 바랐는가를 다시 생각해보라던 어머니의 그 편지가 말이에요. 하루이틀이 아닌 그 나날들은 저에게 십여년세월 깊고깊은 무인산중에 오늘같은 새깅을 세우느라 길지 않은 한생을 바쳐오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돌이켜보게 하였고 그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를 다소나마 알게 해준 뜻깊은 나날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나라를 받들어야 하는가를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잊지 못할 날들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요구가 백번 옳았다는것을 생활을 통해 확인한 날들이였습니다.》

어머니, 기뻐해주세요. 오늘 저는 높은 국가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표현할길 없는 환희와 격정에...》

영월은 이 대목에서부터 너무도 숨이 가빠와 더 읽을수가 없었다.

도대체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딸이 어머니를 놀래우느라 그런건 아닌지, 혹시 편지가 잘못 온것은 아닐까?!

아니, 아무리 훑어보아도 틀림없는 딸애의 편지였다. 한동안 들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난 영월은 편지를 처음부터 몇번이고 다시 읽고 또 읽었다.

딸애가 국가표창을 받았다는것도 기뻐지만 보다 대견한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생활이란 무엇

후날! 먼 후날에도

리 성 애

이 땅에
무궁세월이 흐르고흐른대도
이 땅에
천만대가 태어나고태어난대도
사람들은 목메여부르리라
—무궁토록 강성번영하는 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이어!

땅이 무겁도록
사시창철 오탁백과 무르익어 설레고
하늘이 비좁도록 창조물이 일떠서고
부귀영화의 무궁세월이 흐른대도
사람들은 변함없이 노래하리라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이어

만일 저 하늘의 태양도 끝이 있어
그 태양도 달리 부르는 세월이 온대도
어찌 달리 부르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이는 영원한 조선의 태양!
그이는 영원한 민족의 아버지!

흐르는 세월은
대원수님들의 숨결로 후더워
오탁백과는 혼풍속에 만년설레이고
무성한 숲 아름다운 꽃 흐르는 내물 그 모든것
잊지 말자 잊으면 너도 나도 조선도
그 모든것 없다고 말해주고

변모되고 변모되는 이 땅
하늘높이 치솟는 창조물들
아득히 뻗어간 물길과 언제
하늘을 안고도는 유원지의 관성차 그 모든것

지키라 지키지 못하면 너도 나도 민족도
모든것 없다고 새겨주는 이 땅

내 지금
어제와 오늘 래일을 그려본다
얼마나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이었더냐
오늘을 위해 바쳐오신 수령님의 한평생
피바다 불바다 천만리길...
사선의 고비들은 또 얼마...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
수령님의 유산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시려
조국의 새벽문 남먼저 여시고
조국의 저녁문 마지막으로 닫으시며
조국을 지켜 천만리 인민을 위해 수십성상
장군님 걸으신 헌신의 천만리

그렇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 땅 이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이 땅에 태어나 첫 고고성을 터칠
애기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
향기풍기는 무릉도원
창가마다 웃음소리 넘쳐나는 선경마을
구름닫고 높이 솟아
하늘의 별들과 속삭이는 행복의 창가를 위해
수령님과 장군님 바치신 사랑과 헌신이였거니

이 땅에 천만년 살아갈
우리의 모든 후손들 후날! 먼 후날에도
땅우엔 창조물로 하늘엔 별로 새겨가리라
하늘 땅 바다 그 모든것에 남겨진 그이의 사랑을
민족의 뉘트로 전해가리라
—조선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이다!
대원수님들처럼 조국을 사랑하라!

이 고 공민의 사명감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그것이
였다.

편지를 가슴에 꼭 품은 영월은 눈앞에 서있는
팔애를 대하듯 지그시 눈을 감고 눈물속에 속삭
였다.

(용라, 주옥아. 정말 장하다. 이 어머니의 일생
에서 제일 기쁜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다.)

이 순간 영월은 저 푸르른 하늘을 향하여 목청
껏 웨치고싶었다.

《주옥이 아버지! 기뻐하세요. 당신이 바라던대
로 우리 딸애가 옳바로 자라고있어요. 당신의 뒤를
이어 이 땅우에 또 한그루의 나무가 곧바로, 역세
계 자라나고있단 말이에요.》

대 동 강 의 새 노 래

백성근

무릇 강은 생명의 젖줄이라고들 말한다. 우리의 대동강문화를 비롯하여 인류가 크게 자랑하는 문화들이 모두 강을 낀 류역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있다. 그래서인지 세계에 자랑할 만 한 문화를 낳은 대동강기슭을 때없이 거닐며 나는 자주 명상에 잠기곤 한다.

어느날 강반을 거닐던 나는 고색질은 력사유적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기슭에 서있는 력사유적-대동문! 그 2층문루를 바라보니 《읍호루》라고 옛사람이 써놓은 글현판이 새삼스레 안겨온다.

문루에서 손을 드리워 강물을 떠올릴수 있다고 했지만 당시의 백성들이 정녕 여기서 여유있게 강변의 경치를 즐겨볼새가 있었을가. 하다면 인민이 진정 이 강을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느끼기 시작한것은 과연 언제부터일가.

문득 고려의 유명한 시인 정지상의 시구절이 떠오른다.

대동강 맑은 물아 너 어느때 다하려나
해마다 리별문물 네우에 더하거늘...

사람들에게 슬픈 리별만을 강요하던 당대사회에 대한 야속함이 은유적으로 반영된 시구절을 다시금 더듬노라니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진다.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으로 인민의 눈물과 한숨이 그칠줄 모르던 그때 인민은 정녕 강물을 떠마셨던가, 자기의 눈물을 떠마셨던가.

그렇다. 수난의 그 세월 인민은 자기들이 쏟은 쓰라린 피눈물을 강물과 함께 떠마셨다.

그렇게 천대받던 인민이 언제부터였던가, 행복의 웃음 날리며 이 강을 락원의 강으로 느끼기 시작한것은...

아마도 그것은 우리 수령님 대동강호안공사를 진행하게 하시고 옥류교를 비롯한 많은 다리들과 계단식갑문들을 대동강에 일떠세우도록 구상하신 그때부터였으리라. 아마도 그것은 우리 장군님 옥류관을 새롭게 개전하도록 하시고 룡라도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꾸려주도록 구상하신 그때부터였으리라.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려 우리 장군님께서는 락하산을 활짝 편듯 웅장한 5월1일경기장도 세워주셨고 대동강맥주공장, 천리마타일공장, 대동강식료공장, 대동강땀

장어공장도 편이어 일떠서게 이끌어주시였다.

어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지구에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이 일떠서고 뒤이어 대동강자라공장, 대동강돼지공장, 대동강그물공장이 새로 건설된 소식으로 기뻐하던 인민들이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화제거리로 가슴설레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룡라곱등어판, 룡라물놀이장, 룡라유희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이 훌륭히 일떠서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룡라도와 그 주변이 통채로 인민의 유원지, 행복의 락원으로 전변된 이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인민을 또 얼마나 환희에 넘치게 하는것인가.

그 환희에 환희를 또 더해주며 인민사랑의 물궁전-문수물놀이장이 인민에게 향유의 큰문을 열었다.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수십개의 수조들이 야외와 실내에 짝 들어차있는 환상같은 세계이다.

신녀들이 저마다 전설의 날개옷을 자랑하며 하늘로 날아오르는것만 같은 울긋불긋한 야외의 미끄럼대들도 희한하지만 독특한 유리지붕을 머리에 인 실내물놀이장 또한 황홀경의 절정이다.

동화세계에 온듯 한 즐거움속에 큼직한 《개구리》입에서 미끄러져내리는 아이들, 아기들과 함께 물장구를 치며 모성의 행복감에 싸여있는 녀성들, 폭포마냥 날아떨어지는 덕수를 맞으며 명상에 잠겨있는 로인들, 승벽대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듯 한 쾌감을 느끼며 고속주로를 통과하는 청년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에 빨려들어온듯 끝없이 웃음발을 터치는 사람들...

물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기분도 좋지만 여러가지 체육운동과 유희오락도 마음껏 하면서 느끼는 쾌감 또한 만족스럽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봉사를 받을수 있는 다기능화된 종합물놀이장, 면적과 공간의 리용효율이 최대로 보장되고 안팎으로 희한하게 다듬어지고 장식된 대건축전시장이다.

물과 더불어 터치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여기가 바로 인민의 물궁전이다.

여기가 정녕 억만금의 돈으로 빚어놓은 자본주의유희장도 머리속이지 않을수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이다.

신비함을 자랑하는 물놀이장이 세계에 또 있다고 하라.

명실공히 인민의것이라고 말할수 있는, 남녀로소, 각계층이라는 말그대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인민모두가 다같이 향유할수 있는 꿈같은 물놀이장은 오직 전설의 나라 우리 조국에만 있다.

우리 어찌 수조 하나, 타일 한개도 무심히 대할수 있으랴.

나라의 크고작은 일로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 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자신께서 직접 설계가, 건축가가 되시여 물놀이장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최상급의 선물로 마련하시려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의 그 가슴뜨거운 낮과 밤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단 말인가.

형성안만 해도 113차례나 지도해주시였다. 건설장을 낮에도 찾으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찾으시였다.

우리 다 알았던가.

너무 기뻐 숨이 다 막히는것 같다는 급강하물미끄럼대수조가 인민이 다 자는 깊은 밤 우리 원수님께서 오르시였던 곳이고 수조의 타일 하나하나에도 우리 원수님 보살펴주신 세심한 사랑이 깃들어있다는것을.

물놀이장의 곳곳에 있는 대형벽시계에도, 흥취를 돋구어주는 음악소리에도, 탈의실의 거울에도, 자그마한 건발기에도, 미끄럼대결에 새로 생긴 발판 하나에도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속속들이 숨배여있다.

문수물놀이장을 먼 후날에 가셔도 손색이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문화의 중심지로 꾸리자고 하시며 건설 전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을뿐 아니라 운영과 설비관리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니 세상에 이런 인민의 수령, 이런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물때문에 눈물 흘리던 인민이 오늘날 터치는 웃음소리 이처럼 나의 가슴에 문명의 대교향곡처럼 들려오는것이 아닌가.

물과 더불어 모든 복락을 대동문의 《읍호루》보다 더 높은 곳에서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 장군님 창전거리건설을 발기하셨고 우리 원수님 입사한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들을 찾아주시였나니 인민이여,

지금 그대는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초고층 살림집들에서 대동강반 어디서나 울려퍼지는 행복과 랑만의 노래를 마음껏 감상하고있다.

나에게도 시시각각 들려온다, 대동강반에서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그 소리가, 인민이 행복에 겨워 부르는 대동강의 새 노래가...

지난날 착취사회의 악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구슬픈 한숨소리, 통곡소리가 대동강물을 따라 굽이굽이 흘러내렸다면 오늘은 절세의 위인들께서 가꾸어주신 인민의 락원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수면우를 맴돌며 우리의 생활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출렁이며 남아있다.

《대동강맥주》와 과일음료들을 즐겨마시며 인민들이 하는 말, 강반을 거닐며 사랑을 속삭이고 위훈을 약속하는 남녀청춘들의 속삭임, 수면우에서 황홀한 조화를 펼치며 춤추는 분수의 물줄기소리, 성대히 진행된 축포야회의 불보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장엄한 선율, 룡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을 즐겨 리용하며 인민들이 터치는 웃음소리...

이 모든것은 바로 오늘날 대동강의 새 노래들이다. 환희롭고 아름다우며 랑만과 희열에 넘치는 멋진 새 노래들이다.

이 새 노래들의 위대한 작사자, 작곡가는 바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원수님이시다.

인민의 행복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신 위대한신 아버지들, 인민위해 자신들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헌신으로 날과 달을 이어오신 우리의 수령들께서 지으신 노래이기에 이 노래들은 비상이 아름답고 장중하며 그토록 여운이 짙은것이 아니라.

그 새 노래들의 주제는 어제와 오늘도 인민위천이며 그 새 노래들에 관통된 사상은 오늘도 래일도 김정일애국주의이다.

하기에 대동강에 끝없이 울려퍼지는 인민사랑의 새 노래들을 가사로, 악보로 적어놓기 위해, 불세출의 백두산위인들이 안겨준 창작적인 상을 그대로 작품에 담아 후세에 길이 전하고싶어 나는 여전히 거닐고있다. 나만이 아닌 수많은 문필가, 창작가들이 그래서 지금 이 강반을 거닐고있다. 거닐며 가슴뜨거이 감수하고있다.



사랑의 절정우에서

황 명 성

문수물놀이장 여기에 오니
신비한 동화의 세계에 들어선듯
머리에 흰서리 불린 이 시인도
세월을 되돌아 동심이 되는듯

휘넓은 야외물놀이장이라
황홀한 실내물놀이장이라
반갑게 어서 오라 불러주는
아름답고 희한한 물놀이장이여

급강하물미끄럼대에 올라
빙글빙글 물판을 타고 쓴살같이
웃음발을 날리며 지쳐내릴가
처절씩 파도수조에도 뛰어들가

아이어른 먹은 나이 무슨 상판이람
즐거움에 넘쳐 하하호호
기쁨에 겨워 하하호호
좋다 나도 어깨들씩 몸을 잠근
무아경의 웃음바다 행복의 바다

찾하지 말아다오
내 한껏 웃고 웃으면서도
절로 두볼을 눈물로 적시는 이 마음
철없이 뛰노는 아이들도 다 알아야 하리

이렇게 우리 인민이 누릴 락을 위해
나라의 천만금도 아끼지 않고
락원의 거리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쳐주신

한없이 은혜롭고 고마운 그 손길

문수물놀이장 어디라없이 어려있구나
한평생 이민위천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 장군님 바라신 그 소원 꽃피우시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선군의 그 길에 새기신 헌신의 자욱

전선시찰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밤에도
인민들이 단잠든 그 이른새벽에도
경애하는 원수님 조용히 나오시여
물미끄럼대로 오르는 계단도 밟으시고
애기와 어머니들이 들어설 수조의 깊이도 재어
보시며
다심한 정으로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셨나니

아, 하늘같은 사랑의 최절정우에
선군시대의 자랑스런 창조의 기념비로 솟은
세상에 둘도 없는 문수물놀이장이여
물보라 꽃무지개 피어나는 네 지붕너머
나는 본다 그림처럼 눈앞에 본다

태양의 축복을 받은 강성조선의 미래
로동당 만세를 부르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래일
이 땅의 이름없는 시인 내 마음도
어머니조국과 함께 청춘으로 젊어져
번영하는 영광의 김정은시대를 천년만년 노래
하고싶구나!

탄전이여 앞으로!

홍 민 식

또 한해
만복을 약속하는 설눈에 실려
우리 탄전에
우리 탄부들의 마음속에
환희로 밝아온 희망찬 새해여

소복이 내려쌓이는 흰눈도

탄부들 우리의 마음인양
갱으로 뻗은 길우에 저 저탄장에
온 탄전을 하얀 은빛세계
티없는 순결의 세계로 펼쳐놓았구나

가슴뜨거워라
탄전이 젊어야 온 나라가 젊다고

온 나라 전선의 앞장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그 믿음 그 영예

입갱의 새벽 출근길을 다그치는
체대병사 채탄공의 가슴에도
그 영예 한껏 넘쳤구나
종주먹 쥐고 출근길대오에 따라서는
전차공처녀의 눈길에도 곱게 그 믿음 어렸구나

갱은 갱마다 막장은 막장마다 불도가니
우리 캐내는 한덩이한덩이 석탄이
그저 불붙는 돌이라고 생각지 말라
온 나라 경제건설전역에 보내는
식량이고 탄약이며 불이다!
그 모든 전역이 우리를 지켜본다

저 보아라
탄벽을 때리는 착암기소리가 한창이더니
발파의 메아리 지심을 흔드누나

이어 끝없이 내리는 눈발속으로
탄차들의 행렬이 연방 흘러가는구나

검은 탄과 그우에 쌓인 흰눈
나에게는 한빛으로 보이는구나
그렇다 한빛이다
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탄부들의 흰눈처럼 순결한 충정의 마음이거니

순간도 정적을 모르는 막장과 갱들
순간도 고요를 모르는 탄전과 탄전
하여 원수님의 높이신 뜻 받들어
내 조국은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폭풍과 비약의 나래 한껏 펼친것 아니라

오, 원수님의 부르심 가슴에 새기고
흰눈처럼 순결한 애국의 열정 끓이며
새해의 날과 달을 위훈과 승리로 펼치리라
더 높은 탄산으로 그 믿음 그 영예를 빛내리라!

그들은 가슴에 손을 얹는다

김 정 삼

전기로의 첫 불을 지피기 전
로앞에서 그들은 모임을 가지었다
헐치 않는 새해 첫달계획 쇠물량을 두고
저마끔 마음 커지는 이 순간
저마끔 생각들이 깊어지는 이 순간

조용히 일어섰다
맨앞에 앉은 로장아바이
방열모를 움켜쥔 주먹을
가슴에 눌러었으며
나직하나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언제
당의 뜻 받들지 못한적 있었던가
무조건 해넵시다

드르릉!
용해장의 철기둥이 뒤울리는가
약속한듯 자리차고 일어서는 용해공들
불타는 시선들을 합치며
말없이 가슴들에 손을 얹는다

누가 모르랴 부파된 강철톤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수자인가를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것도 많다는것을
허나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때문에 손을 떨지 않았다

고난을 부시고 기적을 낳지 못한다면
어찌 나라의 맡아들이라 하랴
당이 준 과업은 무조건 넘쳐수행하여야 한다는
불굴의 신념 불타는 심장들
그들은 결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 맹세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말없이 엄숙히
그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위대한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력사의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헌신을 생각하며
조국앞에 지닌 만아들의 사명을 생각하며
그들이 가슴에 손을 얹을 때

전기로에 앞서
오, 가슴속 그 붉은 심장에서
뿔어야 할 쇠물은
피보다 진한 쇠물은 소리치며 끓고있었다

식지 않는 열풍

박 경 철

지금은 겨울이다. 겨울도 동장군이 제노라고 으시대는 년중 제일 춥고 맵짠 정월이다.

꽁꽁 얼어붙은 산과 들 그 어디에나 두텁게 눈이 쌓이고 우우 찬바람이 휘몰아친다.

온 여름 뜨겁게 달아있어 후더운 열풍만이 불던 그 계절이 언제 있었는가싶다.

하지만 이 엄동설한속에서도 식지 않는 열풍이 있으니 그것은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체육열풍이다. 그 열풍에 휩싸여 나도 지금 어느 한 지방도시의 빙상장에 서있다.

취재길이지만 잠시간을 내어 스케트를 타고있는 중이다. 넓다란 강반에 큼직하게 자리잡고있는 빙상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흥성거린다. 갖가지 색깔의 체육모자를 쓰고 썰매를 타느라 법석이는 꼬마들, 햇빛에 스케트날을 번쩍이며 제비처럼 날렵하게 은반우를 지쳐가는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의 남녀학생들, 그들과 어울린 사람들속에는 한창나이 처녀총각들도 있고 나와 같은 장정들도 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흰 입김을 훨훨 내뿜으며 스케트를 지쳐가느라 여념이 없다. 이 추운 겨울에도 멈춤없이 체육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상쾌한 기분속에 썩썩 은반우를 지쳐가느라니 마치 갱소년되어 멀리 중학교(당시)시절로 되돌아간 것만 같다.

평양전학갔던 아버지가 사온 《단천》표 스케트를 신고 저녁 늦도록 얼음판을 지쳐갈 때면 어머니가 따끈따끈한 삶은 고구마를 치마폭에 싸안고 찾아나오곤 하던 고향산촌의 그 작은 빙상장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그 시절의 숨씨가 되살아나 제법 다른 《선수》들에게 혼시절까지 하면서 시간가는줄 모르고 스케트를 탄다. 그러다가 아차 넘어지는 바람에 와하하 즐거운 웃음이 터져오른다.

아, 겨울철의 이 랑만, 겨울철의 이 풍경!

이제는 어디서나 체육을 하는데 습관된 나, 집에 있을 때와 기관에 출근할 때는 물론 이렇게 먼 취재지에서도 잠시간을 내어 아무 체육운동이라

하지 않고서는 견뎌배기지 못하는 나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몹시도 체육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원래 나는 어린시절부터 체육에 취미가 있어 중학교시절에는 룽상과 구기운동, 기계체조, 스케트 타기 등 여러가지 운동을 즐겨했다.

체육을 꾸준히 하여 육체를 튼튼히 준비한탓에 나는 혈기왕성하여 꿈많은 학창시절을 마치고 군대에 나갔고 군사복무시절에도 항상 체육을 계속하면서 펄펄나는 싸움군으로 준비해갔다.

그러던것이 제대후 이러저러하게 생활환경이 여러번 바뀌는 과정에 점점 체육에 관심이 적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식인이 되어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직업에서 일하면서부터 더욱 체육과 멀어지게 되었다. 이런 내가 중학교시절과 군사복무시절로 되돌아간 듯 다시 체육을 사랑하고 생활의 한부분으로 여기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과 따뜻한 사랑,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지금도 귀전에 우렁우렁 울려오는 그날의 음성.

뜻깊은 지난해 새해를 맞으면서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강성국가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전문체육과 대중체육을 다같이 급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고 몸소 여러차례나 경기장에 나오시어 선수들의 경기 모습도 보아주시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보살피심이 불씨가 되어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지 않았던가.

그 열풍속에 지난 한해동안만 하여도 온 나라 방방곡곡에는 수많은 체육시설들이 현대적으로 새로 일떠서거나 훌륭히 개건보수되어 체육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체육에 대한 사회적

어서 가고싶어 앞서 가고싶어

김 충 기

새벽어스름을
프락포트발동소리로 날려보내며
이 아침도 남먼저 들길에 나섰네
차판가득 거름을 싣고 나를 기다리는 포전으로
어서 가고싶어 앞서 가고싶어

포전방송에서 지금도 들려오누나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을 맞는 올해를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빛내일
우리 원수님의 높으신 뜻

새겨안을수록
하늘같은 그 믿음에 심장이 뛴네
벅찬 이 가슴의 숨결마냥
쌓아놓은 거름더미우로 더운김 뿜어올리며
어서 오라 나를 부르는 포전아

땅이 꺼지도록 거름더미 산같이 쌓아도
무거워하지 않는 너처럼
온종일 실어나르는 거름짐
차판가득 무거울수록 마음 가볍다
정초의 아침부터 신들메 조이고나선
이 마음 너도 알겠지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을 안으시고
우리 수령님 찾으신 영광의 땅
우리 장군님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내 고향 삼지강벌에 전례없는 풍작을 마련하
자고
자나깨나 포전으로만 달리는 이 마음

차판가득 실어나르는 거름집에서
가을날 무겁게 실어들일 풍작의 난알더미
가슴뿌듯이 안아보며
더 많은 거름을 달라고 나를 부르는듯
정든 나의 포전마다
나의 땀 나의 진정 쏟으려니

아, 농촌테제 이 땅우에 활짝 꽃피워
사회주의 만세소리 로동당 만세소리
들가득 풍년가로 울려퍼지고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소리로 넘쳐날 그날 향해

어서 가고싶어
앞서 가고싶어
차판가득 거름싣고 달리는 나를 향해
이 아침 별 한끝에 솟는 해도
정답게 마주보며 밝게 웃네

관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져 체육관과 야외경기장, 공원과 유원지는 물론 운동장과 마당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음껏 체육을 즐기는 남녀노소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온 사회에 약동하는 활력을 더해주고 이 과정에 재능있는 체육선수후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게 되었으며 누구나 건강한 몸으로 《마식령속도》창조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 힘차게 떨쳐 나서게 되었다. 어이 그뿐이라.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은 지난해에 국제경기들에서 레년에 없이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고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림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천하에 높이 떨치고 온 나라를 크나큰 기쁨과 환희로 들끓게 하였다.

나 역시 지난해에 체육을 생활화, 습성화한 덕에 언제나 맑은 정신과 거뜬한 기분으로 활력에 넘쳐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온 한해를 체육강국건설을 위해 그토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며 진두에서 이끌어주셨기에 우리 인민모두가 사회주의문명국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그날이 더욱 앞당겨지고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감격에 겨워 생각한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의 이 추운 겨울에도 식지 않는 열풍, 날이 갈수록 그 열도가 더욱 뜨거워만 지는 이 체육열풍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속에서 일어난 한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애국애민의 열풍이라고.

그 열풍속에 머지않아 세계의 맨 앞자리에 우뚝 솟아오를 체육강국의 자랑찬 모습을 확신성있게 그려보며 나는 맡은 임무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안고 빙상장을 나섰다.

열정, 노력, 언어형상의 능수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며 작가는 언어의 예술가이다.

언어는 작가의 위력한 무기이다. 무진장한 어휘와 풍부한 표현수법을 소유한 작가만이 인간과 그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다.

독자들이 작가들을 언어에 능통한 박식가로 보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작가들을 지성인중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문학은 오직 언어를 통하여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사상감정을 전달하는것만큼 읽는 사람들이 작가의 능란한 언어솜씨에 매혹되어 한문장한문장 눈을 밝혀가며 새겨나갈수 있게 되여야 한다. 아무리 큰 사상을 심어놓아도 문장이 읽을 맛이 없으면 독자의 마음을 끌수 없다.》

지나온 우리의 문단에는 언어형상의 능수로 이름을 날린 작가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한생교단에 서서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면서도 창작활동을 쉬임없이 벌린 교원작가 석인해도 있다.

해방전과 해방후에 그가 창작한 소설들과 수필을 보느라하면 그의 능란한 언어형상솜씨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문장마다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부드럽고 유정한 고유어휘들이 먼저 눈에 띄운다.

《다람없이 갈마드는》，《물에 씻긴 잔돌》，《각시놀음》，《목이 미어 흐르는 여울물소리》，《앙기하던 매화가지는 어느새 꽃망울을 달고 따사로운 봄날을 즐긴다》，《억지 팔자가 좋아 두눈이 멍청해 쌀독밑 난알을 굶는 수밖에 없었다》…

자연현상을 그대로 방불하게 떠올리는 의성의태어는 더욱 이채롭다.

《다람다람》，《발발발발》，《풍풍》，《풀풀》… 이렇게 외마디로 적지 말고 문장으로 보면 그 이채로움을 더 잘 느낄수 있다.

《풍풍 얼어붙은 시내가에 풀풀거리며 목이 미어 흐르는 여울물소리는 그냥 갑갑스럽기만 하다.》

한 겨울날 마을앞 시내가의 모습이 그대로 안겨온다.

생동하고 인상깊은 표현수법의 능숙한 활용은 언

어형상의 능수로서의 그의 특이한 장점이였다.

《짚물에 절은 토실토실한 종다리》，《아픈 상처에 침질당하듯이 뼈쓰는 느낌》，《발걸음 천근 쇠뭉치를 달아맨듯 무거웠다》，《별은 노루쫓지만 금씩 뻗어간다》，《추녀끝에 사치스런 꼴로 대롱달리던 고드름》… 참말 인상깊은 표현들이다.

정황에 꼭 들어맞는 성구속담의 재치있는 리용은 그의 작품들의 품위를 더욱 돋구어주고 성격의 개성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송아지도 어미를 팔아 동무를 산다》，《서우날 바람은 꾸어다가도 분다》，《제 칼도 남의 칼집에 가면 빼기가 힘들다》，《늙은 사람이란 삭은 나무등결같이 꺼꾸러지기가 쉽다》，《명사십리에 눈찌를 꼬챙이 없다》，《방망이가 약하면 썰기가 솜는다》，《발이 효자보다 낫다》…

그의 작품들에서 성구속담들을 따로 뽑아 정리하면 한편의 《성구속담집》이 될수도 있다.

이처럼 그의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능란한 언어형상솜씨에 스스로 매혹되게 되며 한편 부러움을 금할수 없다.

라고난 천성이였는가, 아니면 남달리 기억력이 좋아서였던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였다. 그는 정열가였고 성실한 노력이였다.

언어수련을 위한 그의 성실한 노력은 보통의 기성관념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는 정열적인 애독가였다. 어려서부터 시작하여 문장가로 이름을 날리던 백발의 그 시절까지 손에서 책을 놓아본적이 없었고 증세소설과 현대소설, 외국명작들, 력사소설, 고사집들, 일화 등 동서고금의 모든 서적들을 다 독파하였다.

그는 남달리 일찍 머리가 벗어졌고 얼굴에는 발고랑같은 주름살들이 패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털과 어휘, 고사를 바꾸었고 주름살마다에는 독파한 수많은 도서들의 내용이 레코드판처럼 기억되어있다고 성실성의 찬사로 악의없이 시까스르곤 하였다.

아닌게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책을 보다가 모를 어휘, 리해 못할 고사, 처음 듣는 책의 내용을 물어보면 막힘이 없이 언제나 시원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새해의 첫걸음

리 영 일

푸름푸름 밝아오는 아침
원수님의 신년사 구절구절 새겨보며
들로 나가는 길
기름진 거름 듬뿍 싣고
땅이 울리도록 내짚는 새해의 첫걸음

보도랑이 시작되는 저기로
수령님께선 자주 오군 하시었다고
리당비서였던 나의 아버지
어느새 눈썹이 축축해지고

우리를 잘살게 하려고 해주시던
수령님의 귀중한 말씀들을
이 길에서 모두 되새겨보는가
일욕심 많은 우리 관리위원장
자꾸만 보물진 수첩을 펼쳐보고

아버이수령님을 이 발머리에서 만나뵈온
나이많은 로인들도
젊은이들의 일손을 도와
겉이대 휘두르며 거름을 뿌린다

수령님과 고향벌이
끓을래야 끓지 못할 정을 맺은 이 길
수령님께서 언제나 포전에 계시는것만 같아
때없이 우리 마음 세워보는 이 들길

이 길에서 제일 가까워라
원수님 헌신으로 가꾸어가시는
강성부흥의 새봄이
그이 우리모두를 불러주시는
수령님님원 활짝 꽃핀 새 승리의 언덕이

한집한집 거름집마다에
수령님유훈 더 잘 받들 맹세도 실으며
희망과 신심과 열정에 넘쳐
누구나 가슴속에 풍요한 가을을 안고가는 이 길은
우리 수령님께로 가는 길

끝없이 끝없이
수령님 그 품을 향해 달리는 마음이어
아, 인자하신 아버이의 그 영상
이 들길에서 금시라도 뵈울듯!

=====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러 걸어다니는 《조선말사전》이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그는 성실한 노력이였다.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한 성품그대로 생활에서도 과학탐구에서도 오로지 성실한 노력으로 지식의 탑을 한치한치 쌓았다. 그의 풍부한 어휘축적도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여기에 어휘축적을 위한 그의 피타는 노력을 반증해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다.

그는 《조선말사전》을 완전히 통달할 결심을 품고 이에 달라붙었다. 그는 무척 아까웠지만 아침에 《조선말사전》의 한페이지를 떼내어 하루동안 짹짹이 보고 머리에 기억하였다. 저녁퇴근길에 머리에 다 들어가 앉았는가 확인하고는 다시 붙이곤 하였다. 다시는 사전작업을 하지 않을 결심이 확고히 굳어진 행동이였다.

이것이 바로 후일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그의 비결이였다.

이러한 실례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 하나의 일화로도 노력가인 그를 충분히 이해할수 있다고

본다.

꾸준하고 성실한 그의 노력은 평생 장편소설 《해뜨는 수평선》과 단편소설 《꽃피었던 섬》, 수필 《진달래》를 비롯한 100여편의 소설들과 400여편의 수필을 낳았고 《춘향전》, 《배비장전》, 《고전작품집》을 비롯한 많은 민중고전들을 주해, 분석하였으며 《레 미제라블》을 비롯한 적지 않은 외국소설들을 번역하였다.

그는 한평생 교단에 서있으면서 《조선문학사》, 《조선문학강독》, 《문학》 등 대학용교과서들과 고급중학교 교과서들을 집필편찬하였고 《문장의 길》을 비롯한 문학관계도서들을 집필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었다.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만이 알찬 열매를 익혀주는 법이다.

열정, 노력, 이것이 바로 언어형상의 능수로 키워주는 디딤돌이고 원동력이다.

장 원 기

군 량 골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7리가량 가면 군량골이라고 부르는 골안이 있다.

밖에서 얼핏 보기에는 그다지 깊어보이지 않는 골안이지만 군량봉기슭을 따라 휘어들어간 골짜기로 접어들면 가도가도 끝이 없을상싶은 계곡이 량쪽으로 늘어선 벼랑을 끼고 우불구불하게 깊숙이 뻗어있다.

이 골안을 군량골이라고 부르게 된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거란침략자들이 또다시 고려를 침입하였던 1018년이었다.

견고한 고려의 변방성들을 에돌아 수도 개경에까지 쳐들어왔던 침략자들은 고려군의 명활한 전법에 걸려들어 대참패를 당하였다.

게다가 애국적인 고려군사들과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도처에서 얻어맞은 놈들은 더는 지탱할수 없게 되자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강감찬장군이 지휘하는 고려군의 맹렬한 추격으로 더욱 곤경에 빠진 거란침략자들은 다음해 2월 서북지방의 요충지인 구주성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구주성에서도 고려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지치고 굶주린 줄개들을 데리고 안절부절못하고 있던 적장에게 어느날 귀가 번쩍 트이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구주성밖 얼마 멀지 않은 골안에 고려군의 군량창고가 있는데 이곳을 얼마 안되는 군사들이 지킨

다는 정보자료였다.

이게 뭐냐,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며 패재를 올린 적장놈은 제일 건장한 놈들을 천여명이나 끌고 그 골안을 향해 출발하였다.

산갈이 쌓여있다는 군량들을 다 실어올 심산으로 큰 수레며 멜것을 가진 놈들이 새까맣게 골짜기로 들어섰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심연속에 끌려들듯 들어설수록 골은 깊어지고 뒤로는 대문이 닫기듯 길이 없어지는데 문득 하늘땅을 뒤흔드는 북소리, 함성들이 터져올랐다.

골짜기를 진감하는 함성에 눈알이 뒤집힌 놈들은 미처 도망칠 사이도 없이 화살에 맞고 돌벼락에 맞아 무리죽음을 당했다.

때를 같이하여 골짜기 웃쪽에서 물이 터져나오며 살아보려고 갈팡질팡하는 놈들을 모조리 수장해버리었다.

놈들의 약점을 손금보듯 꿰뚫고있던 강감찬장군은 깊고깊은 이 골안에 군량미가 쌓여있다는 허위정보를 내돌리고는 골짜기 웃쪽에 나무로 물등을 막고 골짜기 량쪽벼랑우에 군사들을 배치하여두었던 것이다.

침략군놈들은 고려군의 이러한 유인매복전에 걸려들어 잠간사이에 몰살당하고말았다.

후날 사람들은 이날의 승전을 길이 전하기 위해 그 골안을 군량골이라 부르고 골막바지의 봉우리를 군량봉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옥 성 일

조선문학 주체103(2014)년 제1호 (루게 제795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3(2014)년 1월 20일

발 행 주체103(2014)년 1월 25일

7-36851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4

D P R Korea

ISSN 1727-9437